



■ 연구보고서 2014-22-4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조성호 · 변수정 · 이소영 · 박종서 · 서희정 · 유재언

【책임연구자】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서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유재언 (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2-4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저자 조성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한디자인

정가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179-3 93330

지난 10여 년간 결혼을 매개로 하여 한국에 정주하게 되는 결혼이민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자녀들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성장기에 접어들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속한 다문화가족의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편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아직까지 인구자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소득, 생활만족도, 이와 더불어 자녀의 언어 능력과 정신 건강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 앞으로 이들의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보고서는 조성호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변수정 부연구위원, 이소영 부연구위원, 박종서 부연구위원, 서희정 연구원, 유재언 연구원(2013년 5월 퇴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본 원의 정은희 부연구위원 이상림 부연구위원,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오성배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수 교수

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조언을 제공해 준 전문가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16
제2장 인구자질의 개념 및 연구 방법	19
제1절 인구자질의 개념	21
제2절 연구 방법	30
제3장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추이 및 인구자질의 기본특성	47
제1절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추이	49
제2절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인구자질의 기본특성	62
제3절 소결	68
제4장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1): 노동시장성과(취업과 소득)	71
제1절 이론적 배경	73
제2절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소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78
제3절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86
제5장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2): 생활만족도	101
제1절 이론적 배경	103

제2절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105
제3절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	108
제6장 결혼이민자 자녀의 인구자질(1): 언어 능력	115
제1절 이론적 배경	117
제2절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 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120
제3절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 능력의 결정요인	128
제7장 결혼이민자 자녀의 인구자질(2): 정신 건강	141
제1절 이론적 배경	143
제2절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신 건강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145
제3절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신 건강의 결정요인	149
제8장 결론	159
제1절 요약	161
제2절 정책적 제안	166
참고문헌	173

표 목차

〈표 2- 1〉 변수 설명	38
〈표 2- 2〉 표본 특성(카테고리 변수)	41
〈표 2- 3〉 표본 특성(연속 변수)	42
〈표 2- 4〉 표본 특성(국가별, 카테고리 변수)	43
〈표 2- 5〉 표본 특성(국가별, 연속 변수)	44
〈표 3- 1〉 국내 체류 외국인수 및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	49
〈표 3- 2〉 국적별·연도별 외국인 구성 비율(2007~2010년)	51
〈표 3- 3〉 국적별·연도별 외국인 구성 비율(2011~2014년)	52
〈표 3- 4〉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수 및 인구 대비 체류 결혼이민자 비율	53
〈표 3- 5〉 국적별·연도별 결혼이민자 구성 비율(2007~2010년)	55
〈표 3- 6〉 국적별·연도별 결혼이민자 구성 비율(2011~2014년)	56
〈표 3- 7〉 결혼이민자 부부의 평균 연령 차이	57
〈표 3- 8〉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현황(2013년)	57
〈표 3- 9〉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출신국별 자녀 현황(2013년)	58
〈표 3-10〉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출신국별 자녀의 지역별 현황(2013년)	59
〈표 3-11〉 결혼이민자 자녀의 재학생 수 현황(2005~2010년)	60
〈표 3-12〉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 급별 현황(2013~2014년)	61
〈표 3-13〉 다문화 가정 학생 증가 추이(최근 5년)	61
〈표 3-14〉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학력 비교	63
〈표 3-15〉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건강상태 비교	63
〈표 3-16〉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취업률 비교	64
〈표 3-17〉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소득 비교	65
〈표 3-18〉 생활만족도	66
〈표 3-19〉 결혼이민자 자녀와 한국인 자녀의 우울 및 절망감	68
〈표 4- 1〉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요인별 취업 유무	80
〈표 4- 2〉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관련 변인별 취업 유무	81

〈표 4- 3〉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별 취업 유무	82
〈표 4- 4〉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요인별 소득 현황	83
〈표 4- 5〉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관련 변인별 소득 현황	84
〈표 4- 6〉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별 소득 현황	85
〈표 4- 7〉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취업확률 추정(전체, 한계효과)	89
〈표 4- 8〉 모델 적합성 테스트(Wald test statistic)	91
〈표 4- 9〉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취업확률 추정(출신국별, 한계효과)	93
〈표 4-10〉 결혼이민자의 소득함수 추정(전체)	96
〈표 4-11〉 결혼이민자의 소득함수 추정(출신국별)	99
〈표 5- 1〉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요인별 생활 만족도	106
〈표 5- 2〉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별 생활 만족도	107
〈표 5- 3〉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별 생활 만족도	108
〈표 5- 4〉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추정(전체)	110
〈표 5- 5〉 모델 적합성 테스트(Wald test statistic)	112
〈표 5- 6〉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추정(출신국별)	113
〈표 6- 1〉 어머니의 인적자본요인에 따른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능력	121
〈표 6- 2〉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한국어 능력	121
〈표 6- 3〉 자녀 본인의 요인에 따른 자녀의 한국어 능력	123
〈표 6- 4〉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에 따른 자녀의 한국어 능력	123
〈표 6- 5〉 어머니의 인적자본요인에 따른 결혼 이민자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	125
〈표 6- 6〉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	125
〈표 6- 7〉 자녀 본인의 요인에 따른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	126
〈표 6- 8〉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 모국어 능력	127
〈표 6- 9〉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능력 추정(전체)	130
〈표 6-10〉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능력 추정(출신국별)	132
〈표 6-11〉 결혼이민자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 추정(전체)	136
〈표 6-12〉 결혼이민자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 추정(출신국별)	139
〈표 7- 1〉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요인에 따른 자녀의 정신 건강	146

〈표 7- 2〉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정신 건강	147
〈표 7- 3〉 자녀의 요인에 따른 자녀의 정신 건강	148
〈표 7- 4〉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에 따른 정신 건강	149
〈표 7- 5〉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신 건강 추정(전체)	152
〈표 7- 6〉 모델 적합성 테스트(Wald test statistic)	154
〈표 7- 7〉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신 건강 추정(국적별)	155

그림 목차

[그림 2-1] 인구자질의 정의	29
[그림 2-2] 본 연구의 분석틀	45
[그림 3-1] 결혼이민자의 연도별 증감 추이	53

Abstract <<

A Study of Population Quality for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This study examines population qual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Employment status(employed vs unemployed), income(for those who are employed) and life satisfaction(for those who are unemployed) are used to examines population qual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whereas language skills and psychological health are used to investigate population quality for children of marriage migrant women.

The results show that associations between factors related to marriage migrant women and employment status were different by marriage migrant women's county of origin. These results reflect that tailored services and policies consider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by country of origin should be emphasized and be provided to effectively use marriage migrant women's human capital.

Korean language skills of marriage migrant women have effects on population quality of not only marriage migrant women but also their children. In addition, relations between marriage migrant women's Korean language skills and population quality both those women and their children vary by women's

2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country of origin. Thus, instead of standardized Korean language education, systemically tailored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arriage migrant women should be emphasized. In addition, bilingual education for children of marriage migrant women should be continuously discussed and be supported to develop environments promoting linguistic superiority by using advantaged environm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which have diverse cultural and language backgrounds.

Moreover, because of their language skills or skin colors children of marriage migrant women could be more vulnerable than those in non-multicultural families. Therefore, discourse on preventative measures against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should be continued.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결혼이민자는 정주의 목적을 가지고 이주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구 집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민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이민자, 특히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통칭하며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이 과거보다 많아지고 북미·유럽 지역 국가 출신 배우자와의 결혼도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주를 이루고 있는 대상은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국가 출신 여성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결혼에 있어서 한국여성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성들과 혼인을 하게 되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고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점점 학령기에 접어들고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 이들은 부모 중 한명, 특히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머니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환경에 많이 놓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이민자인 어머니에게 배우는 한국어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 구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도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인구자질향

4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니즈(needs)가 무엇인지 적절히 파악해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역량증진 및 인구자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나 정책 방향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한국 생활과 관련된 차이 및 출신국가별 차이를 강조하여, 출신 국가에 따라 잘 맞추어진 정책적 지원이나 각각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경제학에서는 주로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을 이민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국가에서의 인적자본의 축적결과를 인구자질로 정의하였지만, 인적자본의 축적결과는 주로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바, 그것이 관찰되지 않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인구자질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취업 중인 결혼이민자는 취업여부와 소득, 취업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생활만족도를 인구자질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들 자녀는 인적자본 축적의 과정으로 언어 능력과 정신 건강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과의 인구자질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자가 한국여성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들 자녀 또한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한국여성의 자녀들에 비하여 인구자질이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인구자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인구자질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취업 중인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취업, 소득) 분석 결과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졌고, 남편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취업은 보조적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과 유사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미취학 자녀가 존재할 경우 취업확률이 감소하지만,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학령기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취업확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생활만족도) 결과 분석에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체류 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하고, 국적별로 보면 중국 출신 조선족과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가 낮으며, 중국 출신 한족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도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인구자질 결과 중, 한국어 능력은 대체로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어 한국어 수준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도입국한 자녀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반면, 결혼이민자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은 한국어 능력과 반대로 하향평준화되어 있어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모국어 능력은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도와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신 건강은 주로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비율로 측정하였는데, 주로 자녀 본인의 속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국어 능력과 차별 경험이나 폭력 경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자녀의 경우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향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가 가진 요인과 취업 경향 사이에 있어서 출신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로 각기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각각의 결혼이민자들의 특징을 살리고 본인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출신국가별로 그 특징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결혼이민자들의 상황과 배경에 알맞은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고 그 결과 다문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학력이 결혼이민자의 소득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모국의 학력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정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정규 학위 취득을 도와주는 것이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을 높이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 중, 중국 출신 한족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정착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이 중기 또는 후기 정책 단계로 이동함에 따라, 한국사회의 이민 주기에 따른 현상들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결혼이민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국가별로 영향력도 다르게 나타나 한국어 교육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필요한 결혼

이민자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자녀들의 이중언어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 다문화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점과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되어 언어적인 우수성을 키워가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들의 차별과 폭력경험이 인구자질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결혼이민자 자녀의 특성상, 언어나 피부색 등으로 인해 한국인 자녀보다 폭력과 차별이 노출되기 쉬운 점을 고려해 방지책마련에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자녀, 인구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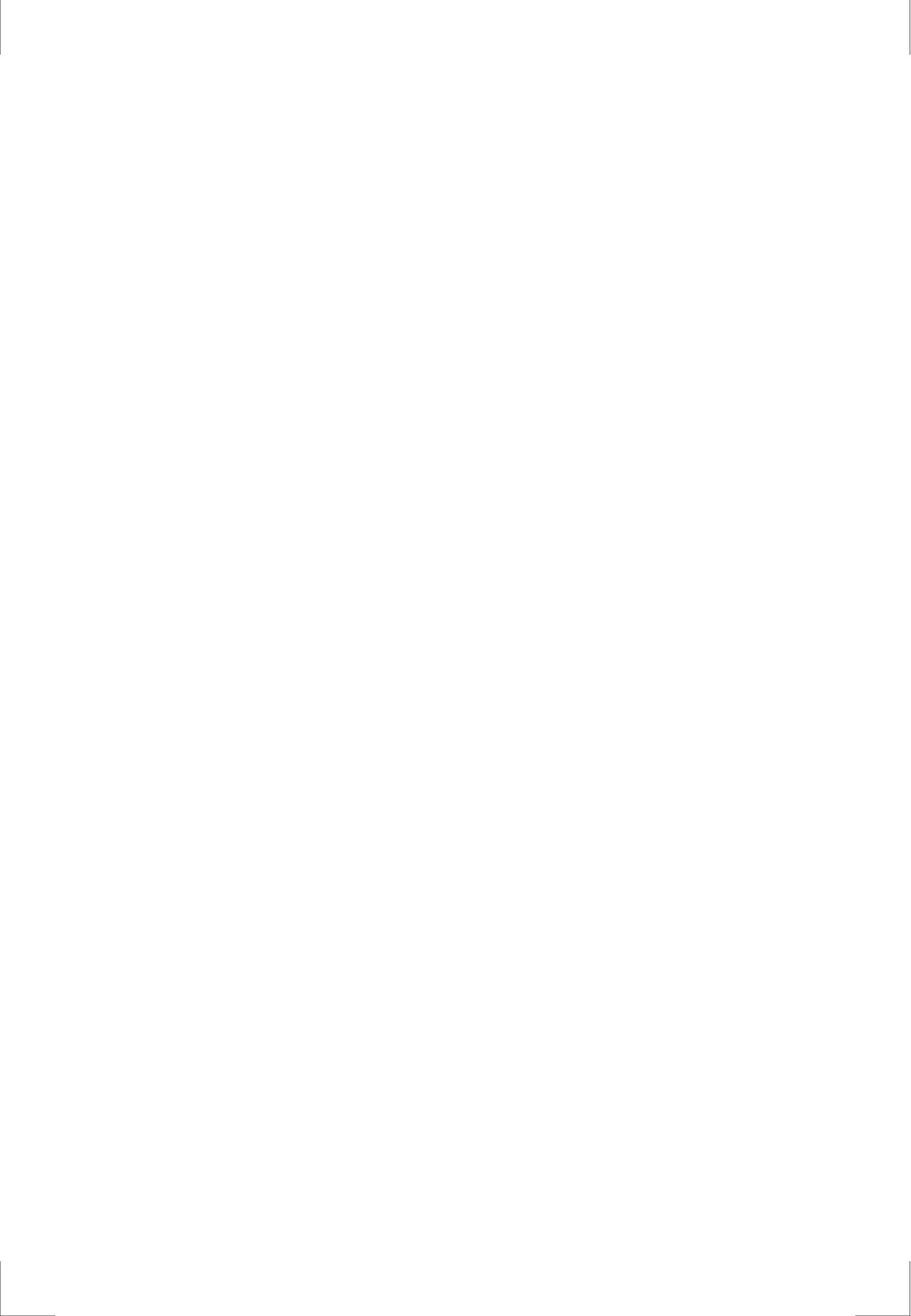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156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 다수와 결혼이민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중에는 혼인귀화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안정행정부 2014). 결혼이민자는 정주의 목적을 가지고 이주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구 집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민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이민자, 특히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통칭하며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결혼이민자들은 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주해 온다. 결혼이주는 여성들의 고학력 및 경제활동으로 인해 혼인시장에서 남녀성비의 불균형이 일어났는데, 특히 농촌의 미혼 남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특히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국가로 부터 배우자를 맞이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인구학적인 요인으로 인구구조 불균형과 인구분포 불균형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진 것이다(이삼식 외 2007).

또한 이주에는 이주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흡입요인(pull factor)이 크게 작용하는데(Mejia et al. 1979), 한국보다 경제발전이 덜 이루어진 국가에서 오는 여성들은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이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국

제결혼이 과거보다 많아지고 북미·유럽 지역 국가 출신 배우자와의 결혼도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주를 이루고 있는 대상은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출신 여성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결혼에 있어서 한국여성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성들과 혼인을 하게 되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고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¹⁾.

이에 더해, 남편(한국인)의 연령이 높고, 아내(외국인)의 연령이 낮아 부부 간의 연령차이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편의 경제활동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측되어, 외국인인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근에는 경제적인 안정과 적응이 된 후에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사회활동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안정된 적응을 이루고 그들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는 것이 한국사회에, 그리고 결혼이민자 자신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처음 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들어오던 시기에는 한국사회가 이민자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곧 새로운 인구집단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결혼이민자들의 초기 적응을 돕는 것에 집중했다. 현재에도 새롭게 한국사회에서 적응이 필요한 결혼이민자는 생겨나고 있고, 따라서 초기적응에 대한 도움 및 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사회에 들어와 초기적응기는 이미 거치고 중기나 후기 안정기를 경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발적인 지

1) 2012년 다문화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다문화 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가 약 70%,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임금 200만원 이하가 약 60%로(전기택 외 2013), 2013년 우리나라 전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416만원보다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4).

원에서 벗어나 결혼이민자들이 필요에 따라 경제활동도 활발히 하고 더 나은 사회적 지위나 생활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에 대한 역량 강화(empowerment)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점점 학령기에 접어들고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 이들은 부모 중 한명, 특히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은데,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머니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양육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배우는 한국어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 구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 적응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도 있다. 이에 따라, 학업성취가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오성배 2005; 안혜령·이순형 2009).

이러한 면에서, 결혼이민자의 자녀 또한 특수한 가족구성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뒤처짐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역량강화가 강조되어야 하고,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인 어머니의 특징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지, 자녀의 인구자질은 무엇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지 등을 알아보아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구자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인구자질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민자들이 가지는 독특한 인적자본과 이민으로 인해 직면하는 환경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요인들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인구자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인구자질에 대한 이론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개념화 과정도 함께 거친다.

본 연구는 인구자질에 대한 개념을 결혼이민자와 자녀에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에 더하여, 정의한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인구자질이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사람의 인구자질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또한, 전국 단위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연구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 지역이나 대상의 특성만을 대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전국 단위 데이터를 사용해 인구자질의 요인을 찾는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데이터를 활용해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해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데이터를 매칭(matching)시켜 자녀의 인구자질에 그들 부모의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본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먼저 결혼이민자가 어떤 집단인지에 대해 정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결혼이민자는 국제결혼가정, 즉, 귀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의미하며,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칭한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본 연구에서의 결혼이민자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북미·유럽 지역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동남아 등의 결혼이민자와 그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북미·유럽 지역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제외한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인구집단으로 명명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각국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비슷하면서도 각국마다의 독특한 문화

나 언어 등으로 인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출신국에 따른 분석은 극히 제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샘플 수의 문제로 국가별로 그 특징을 볼 수 없거나, 국가별 특징의 중요성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다문화 정책이 점점 안정되어 감에 따라 출신국에 따른 편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서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출신국별 차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자녀의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결혼이민자인 어머니의 출신국별로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다룬 접근도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어머니의 출신국 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인구자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역량증진 및 인구자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나 정책방향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한국 생활과 관련된 차이 및 출신국가별 차이를 강조해 결혼이민자나 자녀의 인구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동일한 요인들을 강조하는 대신, 필요에 따라 잘 맞추어진 정책적 지원이나 각각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결혼을 매개로 우리나라에 이주하게 된 이민자의 인구자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인구자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의미하고 있는 인구자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인구자질 요소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9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 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배경과 의의 및 전체적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다. 그리고 제 2장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은 인구자질에 대하여 본 연구만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데, 인구자질이 현재까지 어떠한 의미로 정의되어 왔는지 선행연구 흐름에 대하여 개관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고찰한다.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방법은 다음 소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연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데이터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의 설명과 함께 회귀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연구 방법에서는 종속 변수의 특징에 따라 분석에 사용하는 회귀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고, 회귀 모델에 사용되는 독립 변수의 설명을 더하면서,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하여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일반적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 현황은 통계청, 안전행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크로 통계를 이용하여 그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 5장부터 제 8장까지는 제 2장에서 정의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을 전국을 대표하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

5장과 제 6장은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에 대한 분석으로, 제 5장에서는 취업과 소득, 제 6장에서는 생활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한다. 제 7장과 제 8장은 결혼이민자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분석으로, 제 7장에서는 언어 능력, 제 8장에서는 정신 건강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 9장에서는 앞 장까지 실시한 분석결과들을 요약 및 종합하여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이민자의 현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가 성장했을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

인구자질의 개념 및 연구 방법

제1절 인구자질의 개념

제2절 연구 방법



2

인구자질의 개념 및 연구 방법 <<

제1절 인구자질의 개념

1. 일반적인 인구자질의 개념

‘인구자질’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인구자질에 관해 일치되는 정확한 개념적인 정의는 없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 및 인구 정책에서 인구자질을 논의할 경우 그에 적합한 조작적인 정의를 통해 인구자질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구자질에 대한 적합한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그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려 한다.

인구자질 관련 개념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논의 되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인구자질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구자질의 개념이 학문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리고 가족 계획이 국가적으로 실시되었던 우리나라에서 인구자질이라는 개념은 인구정책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와 같이 역사적이라는 종적인 관점과, 학문적이라는 횡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구자질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한 후, 본 연구에서의 인구자질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한다.

먼저 역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인구자질에 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이나 아리스

토텔레스(Aristotle)의 경우 바람직한 혹은 이상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자녀만을 양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출산 자체부터 억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의 인구자질이 유전자의 질에 달려있다는 논의는 이후의 우생학적 논의로 이어진다. 우생학은 다음 세대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연구하고 그러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인구의 질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Galton 1883). 이렇게 시작된 우생학은 미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우생학적 연구를 통해 규정된 질이 낮은 인구에 대해 이들의 낮은 형질이 유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불임 시술과 거세, 학살까지 자행되는데 악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생학에서 유전적으로 인구의 질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초기의 우생학에 반대하면서 환경의 개선과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의 도덕적, 지적, 신체적 형질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라마르크주의(Lamarckism)와 연관된 환경론적 우생학이 등장하였다(Bannister 1979). 라마르크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생학은 인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보건 위생적인 관점에서의 환경의 개선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하였다(Glad 2001; Stepan 1991).

역사적으로 우생학은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적 형질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을 유린하게 만드는데 근거를 제시해 준 사회운동의 성격이 강한 학문이었으나 이를 비판하면서 연구가 된 후기의 우생학에서는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유전적인 형질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난과 문맹 등 사회적인 환경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인구자질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현대의 우생학은 인구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Lynn 2001). 요약하면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인구자질은 우월한 유전자 혹은 좋은 환경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서 모자보건과 빈곤과 문맹으로 설명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인구자질에 관한 학제적 논의 중 가장 종합적인 인구자질에 관한 논의는 1984년에 출판된 양재모의 ‘인구자질 향상책’이라는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인구자질은 인구의 노동 생산성과 건강(보건)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구체적인 인구자질의 구성요소 혹은 지표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기준으로 하는 부양비와 모자보건 상태 및 이 유기 영양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학문 분야별로 이루어진 인구자질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우선 경제학 분야에서 인구자질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인구자질을 인적자본으로 보고 인구자질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노동의 생산성을 제시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부적으로 인구자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부양비 혹은 노년부양부담(안명옥 2005), 인적자본을 통한 생활수준 혹은 삶의 질(Nikolas 2010; Cohen 1995; Teo 1995), 노동과 기술의 진보(구성열 2005)이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인구자질을 인구의 건강상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건강상태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는 학자마다 일치하지 않는다. 대부분 모성과 태아 및 출생아의 건강(김정근 외 1996; 김혜련 2009; 장영식 1998; 황나미 2001; 황나미 외 2007; 홍문식 1998)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상태(오대규 1997), 유병율(Luts et al. 2011)이나 기대수명(Lutz et al. 2011)도 인구자질을 평가하는 구성요소로서 사용되었다. 그 외 생물학, 유전학, 우생학 등에서는 유전자나 신체적인 능력(Gould 2009; Mosk 1996), 교육수준(조남훈 2006; Shah 1985), 영양상태(Woodward 1939) 등으로 인구자질을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인구자질을 삶의 질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인구자질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대표

적인 지표로 Human Development Index(HDI),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PQLI),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quality-of-life Index, Nonlinear Quality of Life Index, Health Status Index를 예로 들 수 있다. 각 지표에서 살펴보는 삶의 질 혹은 인구자질의 구성요소는 기대수명, 교육 기간(years of schooling) 및 기대 교육 기간(expected years of schooling), 1인당 국민총소득(GNI), 1인당 GDP, 문맹률, 영아 사망률, 기대수명, 인구 1,000명당 이혼율, 사회관계망, 교회·노동조합 등 참석, 실업률, 정치적 안정성 및 안전, 정치적, 시민 자유, 남성과 여성의 평균소득비율, 따뜻하고 추운 기후의 정도, 결핵발병률, 신체 활동 능력, 이동성(mobility)이다.

인구정책에 있어서의 인구자질 개념을 고찰해 보면, '인구자질의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면서 인구자질에 대한 나름의 조작적 개념 정의가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의 인구 자질 향상 정책에서 언급된 인구자질의 구성 요소들은 주로 보건·의료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HIV/AIDS 발생수준, 영아 건강 수준(영아사망), 아동 사망, 모성 건강 및 사망, 청소년 출산, 질병예방 프로그램, 출생률, 건강상태(비만율), 교육, 노동가능 인구규모, 의료 환경, 이민, 인구성장률 등이다²⁾.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정책의 목적에 따라 인구자질과 정책은 그 중요도 및 비중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인구자질과 관련된 정책은 존재해 왔다. 한국의 인구정책은 그 추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인구억제정책기(1961-1995),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정책기(2004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 될 수 있다(이삼식 외 2013). 이러한 한국의 인구정책의 흐름에서 인구자질과 관련된 인구정책이 비교적 활성화된 시기는 인구자질향상정책기와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정책

2) UN, World Population Policies, 2009, 2010.

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억제정책기에도 모의 건강상의 이유 혹은 강간 등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모자 보건법을 통해 인구자질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출생성비의 불균형에 대한 대응으로서 실시된 성감별 행위 금지를 통한 출생성비유지 정책은 인구자질 정책으로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구억제정책기를 통해 출산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했으나 한편으로 인구의 자질로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더욱 더 요구되기 시작하였다(이삼식 외 2013). 따라서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년~2003년)는 인구억제정책의 실시로 인해 발생한 혼전임신, 인공임신중절, 남녀 성비불균형, 청소년 성문제 등의 새로운 인구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인구자질의 향상을 통한 복지 향상이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인구자질 향상 정책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가족계획사업 중 생식보건 사업의 확대, 사망률 개선,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예방검진사업 강화, 출생성비의 균형, 인공임신중절예방,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청소년의 성활동 예방, 남녀평등, 가족 보건 및 복지 증진, 소득세 공제한도 인상 등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정책기에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함께 이를 위한 인구자질의 향상책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후생활보장과 고령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잠재인력을 활용하고 인적자본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등이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정책기는 인구의 양적 증가를 위한 정책과 함께 인구자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함께 시행된 시기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에서의 인구자질 정책은 출산율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혹은 조절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인구의 질과 더 나아가서 삶의 질과 복지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발전되어 왔다고 정리될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의 인구자질 개념³⁾

지금까지 인구자질을 역사적, 학문적, 인구 정책 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인구자질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기 위해, 인구자질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활발한 경제학에서 논의된 인적 자본과 삶의 질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경제학에서 이어져 온 인구자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Schultz(1981)는 인구자질은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유사하고, 인구자질의 향상은 인적자본의 축적과 큰 상관성을 가진다고 하며, 인적자본의 종류로는 자녀 양육(child care), 가사 및 직장 경험(home and work experience), 교육(schooling), 건강(health)이라 정의했다.

일반적인 인적자본에 대한 개념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들(Schultz 1961; Becker 1964, 1993; Fitz-enz 2000)을 거쳐 발전되어 왔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신체적 건강, 일할 수 있는 능력, 땅 등이 생산성에 있어서 주된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경제발전은 이 전통적인 요인들만으로는 설명

3)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의 인구자질 향상에 대한 언급은 이삼식 외(2009)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그들 연구의 후속 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정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낮은 인구자질이 전체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구자질의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자질에 대하여 면밀히 정의한 후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려 한다.

되지 않기 시작했다(Krueger 1968).

이렇게 전통적인 생산성요소로 설명되지 않던 요인들을 1961년에 Schultz가 인적자본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부터, 인적자본이라는 것은 인간 개개인이 훈련이나 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 및 기술이라고 정립되어가기 시작했다. 그 이후, Becker(1964)가 인적자본을 이론화 하면서, Schultz가 교육을 강조한 것에 더해, 교육에 투자한 만큼 더 부가적인 편익을 얻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 후의 인적자본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Becker는 훈련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주는지 살펴보면서, 인적자본과 고용 및 수입과의 관계를 강조하였다(Becker 1993). 최근에는 Fitz-enz(2000)가 인적자본이 만들어내는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전을 거친 인적자본의 정의는, 사회적·경제적 웰빙을 위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 또는 후천적으로 개발시킨 기술 및 능력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Grundy and Sloggett 2003). 인적자본 이론에서 인간은 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Becker 1993), 인간이라는 자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같은 투자가 가능하다(Aliaga 2001). 또한 인적자본은 이러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험을 늘리거나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Becker 1964; Schultz 1963). 이처럼 인적자본은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재능, 기술 및 능력을 가진 개인은 노동시장에서 그 만큼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 즉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기술 및 학습능력에 더하여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또한 인적자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Becker(1993)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더욱 생

산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더 높거나 기술이 더 좋을 뿐 아니라 건강상태 또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및 노동 공급 함수 추정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 일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건강을 인적자본으로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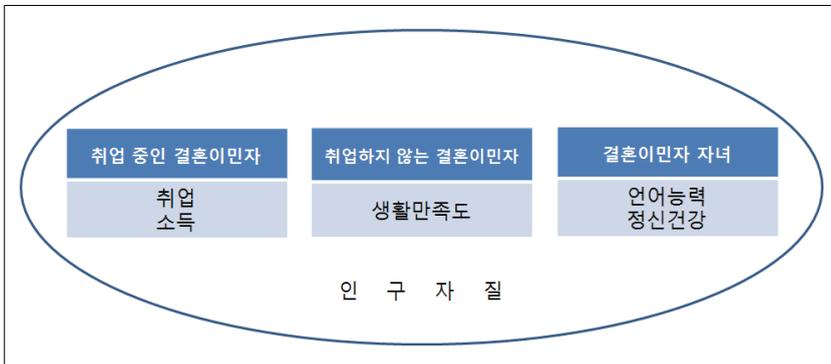
이러한 일반적인 인적자본에 대한 요인에 더하여 이민자들은 그들의 특수한 인적자본이 존재하고, 주로 이민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퍼포먼스를 이민자의 인구자질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earning), 기술(skill) 등을 이민자들의 자질로 보고, 그 자질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인구자질을 인적자본의 축적에 의한 결과물(return)로 보고, 모국(origin country)과 이민국가(destination country)에서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거나, 이민국가 내에서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코호트 분석을 통해 그들의 자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로 취업과 소득을 본다.

그러나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없다고 해서 인구자질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 이민자는 노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노동 이민자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동 시장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결혼 이민자들은 다른 측면으로 그들의 인구자질을 평가해야 하는데, 앞 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인구 자질은 삶의 질로도 정의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결혼 이민자들의 인구자질의 경우는 삶의 질을 볼 수 있는 생활만족도를 이들의 인구자질로 삼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본인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분석의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본인들은 취업이나 소득 등 노동시

장에서의 퍼포먼스를 인구자질이라고 정의했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령기 자녀들은 어떤 것을 인구자질의 결과로 정의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학령기의 자녀들은 계속적으로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인적자본 축적의 결과인 인구자질을 관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까지 축적된 인적자본의 양을 인구자질이라고 정의한다. 성인의 경우는 인적자본 축적의 결과로 인구자질을 볼 수 있지만, 인구자질은 인적자본과 유사한 개념으로도 인식되는 바, 인적자본을 축적중인 자녀의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 정신 건강상태를 인구자질로 본다. 단, 학령기 자녀의 경우, 인적자본 축적의 결과로 학교 성적이 무엇보다도 적절한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점을 분석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림 2-1] 인구자질의 정의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인구자질을 도식화 하면 [그림 2-1]과 같다. 즉,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인구자질은 총 3가지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일을 하는 결혼 이민자의 인구자질은 인적자본 축적의 결과로 취업과 소득이다. 단, 취업의 경우, 비자발적인 실업이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는 직업을 찾고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인구자질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을 하지 않는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삶의 질과 관련지어 그들의 생활만족도가 인구자질이 된다. 셋째,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는 이들의 향후 인적자본 축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 능력, 정신 건강이 인구자질이 된다. 단, 자녀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요인은 서로 상관성이 크기 때문에(Davis-Kean 2005; Riley et al. 2009; 최현욱·황보명 2009), 본 연구에서는 자녀 본인의 속성이 자신의 인구자질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부모의 속성이 자녀 자신의 인구자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 2장에서와 같이 인구자질의 흐름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인구자질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하였고, 일반적인 인구자질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부 승인 통계를 활용하였다. 또한 인구자질 비교분석 및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 전국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하고 회귀 모델로 추정하였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는 내부 연구진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본 연구의 방향성 및 목적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고, 다문화 정책 등의 특정한 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등을 청취하여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였다.

본 절에서는 먼저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설명하고, 회귀 분석을 위한 종속 변수의 구축 과정과 추정 모델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영역별 독립 변수의 정의와 구축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데이터⁴⁾

본 연구는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와 매크로 데이터(macro data)를 사용하여 분석을 한다. 먼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일반적인 현황을 정부 부처가 생산하는 여러 매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혼인·이혼 통계」, 「다문화가족 지원포털 다누리 통계자료」,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 「다문화 학생 통계 현황」이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하여 외국인과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비율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통계를 정리할 수 있고, 그 자녀들의 연령대 및 외국인 부모님 출신국별 현황, 그리고 학교급별 학생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본 후에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과 한국여성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을 비교한다. 인구자질 비교에서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다시 말하면 조사 데이터(survey data)를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 하는 지표를 가능한 동일하게 맞추기 위함이다. 즉, 본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다

4) 본 절에서 서술하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전기택 외 (2013)를 참조하였고, 샘플 추출 및 조사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보고서를 참조.

문화 조사)와 비교 가능한 변수를 가공할 수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찾아 인구자질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나 각 조사 데이터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비교 가능한 지표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인구자질 비교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청년패널조사」이다.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문화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한다. 다문화 조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고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는 모집단의 특성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대 장점이 있다.

이 조사는 2012년 7월 10일~2012년 7월 31일에 걸쳐서 조사가 되었고, 조사대상은 4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국의 다문화가족 15,341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총 15,001명(여성 12,531명, 남성 2,470명),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총 13,859명(여성 2,278명, 남성 11,581명), 만 9~24세의 결혼이민자 자녀 총 4,775명(여성 2,271명, 남성 2,504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가구 구성표에는 가구 구성원, 자녀 보살핌, 월평균 소득 등 10개 항목이고,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은 혼인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활동 등 112개 항목, 배우자는 혼인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활동 등 53개 항목, 만 9~24세 자녀는 한국어 사용, 학교 폭력 경험 등 71개 항목이 조사되었다.

이 조사 결과, 전국에는 다문화가족 266,547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283,224명(여성 226,084명, 남성 58,140명), 배우자 234,505명(여성 42,337명, 남성 192,168명), 만 9~24세 자녀 66,536명(여성 32,655명, 남성 33,882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문화와 관련된 많은 실증연구들이 소규모의 독자적인 데이터로 분석한 것이 많은데, 이러한 연구는 연구자의 관심분야에 대하여 그 어떤 데이터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그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의 대상은 센터에 방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센터에 방문하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대부분 보통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집단과 매우 큰 편향(bias)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해 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표하고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데이터인 다문화 조사를 사용하여 분석을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통합하였다. 다문화 조사 데이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 대상이 4가지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즉, 가구, 결혼이민자, 그 배우자, 자녀의 정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야만(merge)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각 데이터의 가구 번호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통합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 가구 내에 결혼이민자, 그 배우자, 자녀가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구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구 번호로 통합을 하였을 시에는 가구당 자녀 수 별로 데이터가 존재하게 된다. 즉, 자녀가 2명일 경우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의 정보도 2개가 되어 중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여 결혼이민자의 분석, 즉 취업확률, 소득, 생활만족도에서는 자녀가 제외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자녀에 대한 분석은 자녀 정보를 포함한 데이

터로 분석을 한다. 그러나 자녀의 정보가 중복되는 데이터로 추정할 경우에는 표준 오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대 추정(over-estimate)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표준 오차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Huber-White의 수정된 표준 오차로 강건한 추정량(robust estimator)을 계산하여 유의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한국 여성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과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을 비교하기 위하여 여러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먼저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학력, 건강상태, 취업률, 소득 비교에는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사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져 본 분석에 사용된 2012년 조사는 제 4회 차 조사가 된다. 모집단의 대표성을 증시하기 위해서는 1회 차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같은 시기의 경향 분석하는 것을 증시하였기 때문에 2012년 조사를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의 경우는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이다. 이 두 조사는 모두 같은 시기인 2012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자녀의 경우에는 『청년패널조사』를 사용하였고, 2007년 조사가 사용되었다. 자세한 설명은 제 3장에서 하도록 한다.

2. 종속변수 및 추정모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구자질을 분석하기 위해 주

5) 4회 차 여성가족패널의 표본유지율은 78.0%이다(주재선 외 2012).

로 양적 데이터에 의한 실증분석을 하는데, 먼저 결혼이민자에 대한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것은 취업여부, 소득, 생활만족도이다. 취업여부는 ‘당신은 지난 1주일(2012. 7. 1. ~ 7. 7.)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고 있는 경우에 1, 하지 않는 경우에 0의 값을 갖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의 2개의 값을 갖는 변수를 제한 종속 변수(limited dependent variable)라 하며, 이 경우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은 프로빗 모델(probit model, 이하 프로빗)과 로짓 모델(logit model, 이하 로짓)이 있다. 프로빗과 로짓의 추정 결과에는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 단지 이 둘의 차이는 오차항(error term)을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로 가정하느냐 로지스틱 분포(logistic distribution)로 가정하느냐의 차이일 뿐, 어떤 모델을 적용하느냐는 개인의 성향(preference)에 달려있다. 노동경제학에서 연구되어온 취업확률함수의 추정은 프로빗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본 분석에서도 프로빗으로 추정을 한다.

소득은 ‘지난 3개월(2012. 4. 1. ~ 6. 30.)동안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얼마였습니까?’라는 질문에 ‘50만원 미만’부터 50만원 간격으로 ‘700만 원 이상’의 총 15개 카테고리 응답을 하고 있다. 회귀 분석에서는 이 변수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이하 OLS)으로 추정을 한다.

생활 만족도는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당신은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합니까?’라는 질문에, ‘1’의 ‘매우 만족’에서 ‘5’의 ‘매우 불만족’의 5개의 척도로 되어 있는데, 해석의 편의를 위해 큰 숫자를 긍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였다. 즉, ‘1’이 ‘매우 불만족’, ‘5’가 ‘매우 만족’

으로 하였다.

생활 만족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OLS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생활 만족도와 같이 순서(ordinal)를 전제하고 있는 종속 변수의 경우에는 OLS보다 순서 로짓 모델(ordered logit model, 이하 순서 로짓)이 더 바람직한 추정 방법이기 때문에(Min 2013; Winship and Mare 1984), 본 연구에서는 순서 로짓으로 추정한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종속변수는 한국어 능력,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 그리고 정신 건강인데, 한국어 능력은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문항으로부터 만들어진 변수로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을 5개의 척도(‘매우 잘한다’ ~ ‘매우 못한다’)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복합 점수로 변환시켰다⁶⁾.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개 영역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는데, 최저 점수는 이 4개영역을 전부 ‘매우 못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로 4점이고, 최고점수는 20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단, 이 변수는 정신 건강 분석에서 독립변수로도 사용되는데, 한국어 능력별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편의상 상중하의 3급으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11점 미만일 경우를 하급, 12점에서 16점까지를 중급, 17점 이상을 상급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추정은 OLS로 한다.

자녀의 어머니 외국어 능력은 ‘당신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얼마나 잘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부터 만들어진 변수로, 한국어 능력과 동일하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복합 점수로 변환시켰다⁷⁾. 또한 한국어 능력과 마찬가지로 상

6) 한국어 능력은 결혼이민자 자녀 자신이 생각하는(self-report)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결혼이민자 자녀 한국어 능력 점수의 Cronbach α 는 0.95이다.

7) 결혼이민자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 점수의 Cronbach α 는 0.97이고, 이 변수 또한 자신이 인식하는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다.

중하의 3급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추정은 OLS로 한다.

정신 건강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해 본 적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가 '1'에서 '자주 경험했다'의 '4'점까지 자녀들이 응답하고 있는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그런 적이 없다'를 0으로 하고, 그 이외를 1로 하는 더미 변수(dummy variable)를 구축하여 로짓(logit)으로 추정한다⁸⁾.

3. 독립변수 및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되는 독립변수는 인적자본요인, 한국생활 관련변인, 자녀관련 변인,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 2-1>에서는 변수의 설명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요인으로는 학력, 한국어 능력, 자국에서의 취업경험⁹⁾, 건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나누어 가장 비율이 큰 고졸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였고, 한국어 능력은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 마찬가지로 복합 점수로 구성하였고, 상중하급으로 구성하였는데¹⁰⁾, 중급의 비율이 가장 많기 때문에 중급을 준거변수로 하였다. 자국에서의 취업경험은 한국에 오기 전 출신국에서 일한 경험을 나타낸 변수로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이고, 건강은 결혼이민자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로서 '1'의

8) 정신 건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된 여러 문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표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그러한 지표를 만들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정신 건강은 엄밀하게 정신 건강이라기보다는 슬픔 및 절망 경험 여부이며, 이러한 경험이 있을수록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9) 단, 이 변수는 취업확률추정에만 사용된다.

10) 결혼이민자 한국어 능력 점수의 Cronbach α 는 0.94이고, 결혼이민자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어 능력이다.

‘매우 좋다’에서 ‘5’의 ‘매우 나쁘다’의 5개 척도로 되어 있는데, ‘1’의 ‘매우 좋다’와 ‘2’의 ‘좋다’를 통합하여 건강이 좋다고 정의하고 2개 중 어느 하나에 답한 응답자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를 만들었다.

〈표 2-1〉 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설명
어머니 인적자본 요인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한국어 능력	상급, 중급*, 하급
	자국에서의 취업경험	있음(=1) 중요(=1)
어머니 한국생활 관련변인	한국생활의 어려움	있음(=1)
	다문화 수용성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6)’
	차별 경험	있음(=1)
	국적 취득 여부	있음(=1)
	체류 기간	년
자녀 관련요인	취업 의향	있음(=1)
	성별	남자(=1)
	연령	세
	중도입국여부	있음(=1)
	한국어 능력	상급*, 중급, 하급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도	‘전혀 관심이 없다(1)’ ~ ‘매우 관심이 많다(5)’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1)’ ~ ‘매우 자랑스럽다(5)’
	어머니 모국어 권장	‘권장하지 않는다(1)’ ~ ‘매우 권장한다(5)’
인구 사회학적 경제적 변인	차별 경험	있음(=1)
	폭력 경험(친구들)	있음(=1)
	어머니 연령	세
	어머니 출신국	중국(한족),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남편 소득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집의 소유형태	월세*, 전세, 자가
경제적 변인	자녀수	0~6세 미만, 6~12세 미만
	도시 거주 여부	도시에 거주(=1), 도시:동, 군부:읍, 면

주: *은 준거변수를 나타냄.
자료: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두 번째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변인으로 한국생활의 어려움, 다문화 수용성, 차별 경험, 국적 취득 여부, 체류 기간, 취업 의향으로 구

성되어 있다. 한국생활의 어려움은 한국생활의 어려움은 '당신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외로움', '가족 간의 갈등',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의 12개의 어려움 점을 나열하여 선택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힘든 점이 없음' 이외의 응답을 할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변수를 구축하였다.

다문화 수용성 변수는 '당신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자기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1'의 '매우 그렇다'에서 '6'의 '전혀 그렇지 않다'의 6개 척도로 되어 있는데 이 변수도 해석의 편의를 위해 큰 숫자를 긍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였다.

차별 경험은 '당신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터미 변수로 구성하였다. 국적 취득 여부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취득하였을 경우 1이 되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체류 기간은 조사년도에서 한국에 입국한 연도를 차감하여 구성하였고, 취업 의향은 앞으로 취업 의향이 있는 경우 1이 되는 터미 변수를 구축하였다.

세 번째로는 자녀 관련 요인인데 성별, 연령, 중도입국 여부, 한국어 능력,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도,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어머니 모국어 권장, 차별 경험(친구들), 폭력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 능력은 종속변수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고, 중도입국 여부는 중도에 입국하였을 경우 1의 값을 갖는 변수로 구축하였다.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도는 '당신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의 '매우 관심이 많다'에서 '5'의 '전혀 관심이 없다'의 5개 척도로 되어 있는데, 이 변수 역시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으로 재구성

하였다. 어머니 모국어 권장은 ‘한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해준다’라는 질문에 ‘1’의 ‘매우 그렇다’에서 ‘5’의 ‘전혀 그렇지 않다’의 5개 척도로 되어 있는데, 이 변수 역시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으로 재구성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은 ‘당신은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친구나 선생님 등 다른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의 ‘매우 자랑스럽다’에서 ‘5’의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의 5개 척도로 되어 있다. 이 변수도 역으로 재구성하였다.

차별 경험은 ‘당신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와 ‘없다’로 응답한 자녀를 나누었는데, 특히 세부 문항에서 친구에게 차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 변수는 친구에게 차별을 받은 경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폭력 경험 변수는 ‘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1이 되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컨트롤 변수로 사용되는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이다. 이 변인들은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출신국, 아버지 소득, 집의 소유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어머니의 출신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결혼이민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중국(한족,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기타 아시아 및 그 외의 나라로 구성하였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양은 제외하였다¹¹⁾. 남편 소득은 앞서 설명한 결혼이민자의 소득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는데, 각 카테고리별 응답비율을 고려하여 ‘150만 원 미만’, ‘150~200만 원 미만’, ‘200~250만 원미만’, ‘250만 원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하였고, 집의 소유형태는 ‘월세’, ‘전세’, ‘자가’로 나누었다.

11) 여기에서의 서양은 북미(미국, 캐나다), 서유럽/대양주를 의미한다.

〈표 2-2〉 표본 특성(카테고리 변수)

구분	변수명	표본크기(N)	비율(%)	표준편차
어머니 인적자본 요인	학력			
	중졸이하	11,316	30.4	0.460
	고졸*	11,316	44.0	0.496
	대졸이상	11,316	25.6	0.436
	한국어 능력			
	상급	11,316	26.1	0.439
	중급*	11,316	42.7	0.495
	하급	11,316	31.2	0.463
자국에서의 취업경험(있음=1)	11,316	79.1	0.406	
건강(좋은=1)	11,316	64.9	0.477	
어머니 한국생활 관련변인	한국생활의 어려움(있음=1)	11,316	89.1	0.311
	차별 경험	11,316	40.4	0.491
	국적 취득 여부(있음=1)	11,316	37.2	0.483
	취업 의향(있음=1)	5,743	85.6	0.351
자녀 관련요인	성별(남자=1)	3,739	52.3	0.500
	중도입국여부(있음=1)	3,739	13.5	0.342
	한국어 능력			
	상급*	3,739	79.4	0.405
	중급	3,739	17.4	0.379
	하급	3,739	3.2	0.177
	차별 경험	3,739	5.3	0.225
	폭력 경험(친구들)	3,231	8.7	0.282
인구 사회학적 · 경제적 변인	어머니 출신국			
	중국(한족)	11,316	17.8	0.383
	중국(조선족)	11,316	17.3	0.379
	베트남	11,316	18.0	0.384
	필리핀	11,316	12.9	0.335
	일본	11,316	8.6	0.280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11,316	25.3	0.435
	남편 소득			
	150만원 미만*	9,969	29.7	0.457
	150~200만원 미만	9,969	25.2	0.434
	200~250만원 미만	9,969	19.2	0.394
	250만원 이상	9,969	25.9	0.438
	집의 소유형태			
	월세*	11,316	27.4	0.446
	전세	11,316	20.3	0.402
	자가	11,316	52.3	0.499
	자녀수			
0~6세 미만	11,316	63.1	0.742	
6~12세 미만	11,316	30.3	0.609	
도시거주(살고 있음=1)	12,603	60.9	0.488	

주: *은 준거변수를 나타냄.

자료: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42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여성의 노동 참가는 자녀의 존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Bratti and Staffolani 2012; Gronau 1974; Nawata and Ii 2004), 결혼이민자의 노동 참가에 대한 추정에서는 자녀관련 변수를 도입한다. 자녀관련 변수는 0~6세 미만 자녀수, 6~12세 미만 자녀수이다. 또한, 주거지역에 따라 인구자질에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도시와 군부로 나누어 도시에 살고 있는 경우 1이 되는 변수로 구성하였다¹²⁾.

〈표 2-2〉는 카테고리 변수만을 나타낸 것이고, 〈표 2-3〉은 연속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표 2-4〉는 국가별 표본특성을 〈표 2-2〉와 〈표 2-3〉과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변수와 연속변수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다.

〈표 2-3〉 표본 특성(연속 변수)

구분	변수명	표본크기(N)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한국생활 관련변인	다문화 수용성	11,316	3.265	1.734
	체류 기간	11,316	7.627	6.273
자녀 관련요인	연령	3,739	13.197	3.718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도	3,739	3.541	1.113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3,739	3.452	0.986
	어머니 모국어 권장	3,739	3.018	1.306
인구 사회학적· 경제적 변인	어머니 연령	11,316	35.123	10.248

자료: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12) 여기에서 도시는 동, 군부는 읍·면을 의미한다.

〈표 2-4〉 표본 특성(국가별, 카테고리 변수)

(단위: %)

구분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어머니 인적자본 요인	학력					
	중졸이하	32.3	33.0	57.7	8.6	1.8
	고졸*	49.4	52.8	38.3	46.0	41.0
	대졸이상	18.3	14.2	3.9	45.4	57.3
	한국어 능력					
	상급	38.0	67.7	5.0	6.9	22.5
	중급*	36.1	27.0	48.6	50.3	53.5
	하급	25.9	5.4	46.3	42.8	24.1
	자국에서의 취업경험(있음=1)	83.2	83.2	71.6	83.2	91.9
건강(좋은=1)	62.8	56.8	73.5	69.8	49.8	
어머니 한국생활 관련변인	한국생활의 어려움(있음=1)	85.4	77.1	94.9	96.0	91.7
	차별 경험	42.5	42.5	34.6	44.5	38.7
	국적 취득 여부(있음=1)	45.8	67.4	28.2	45.3	6.4
	취업 의향(있음=1)	84.7	84.0	87.4	88.8	80.6
자녀 관련 요인	성별(남자=1)	51.1	51.0	57.6	51.9	52.7
	중도입국여부(있음=1)	23.7	19.7	4.1	6.0	8.2
	한국어 능력					
	상급*	79.7	81.7	87.8	80.0	76.5
	중급	13.0	14.8	11.6	17.4	21.7
	하급	7.3	3.5	0.6	2.6	1.8
	차별 경험	1.6	3.5	4.7	7.9	6.3
폭력 경험(친구들)	7.5	7.5	9.4	10.5	8.9	
인구 사회학적 · 경제적 변인	남편 소득					
	150만원 미만*	27.0	29.4	31.9	37.4	25.8
	150~200만원 미만	23.2	26.8	27.8	24.9	20.4
	200~250만원 미만	20.6	18.6	19.8	19.6	16.4
	250만원 이상	29.2	25.1	20.6	18.1	37.5
	집의 소유형태					
	월세*	31.5	30.2	22.6	30.1	18.5
	전세	23.3	23.9	16.5	15.2	21.6
	자가	45.2	45.9	60.9	54.7	59.8
	자녀수					
	0~6세 미만	43.6	35.7	96.6	70.3	43.2
6~12세 미만	20.6	27.9	11.0	50.5	72.3	
도시거주(살고 있음=1)	68.4	66.1	52.5	57.4	55.4	

주: *은 준거변수를 나타냄.
 자료: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44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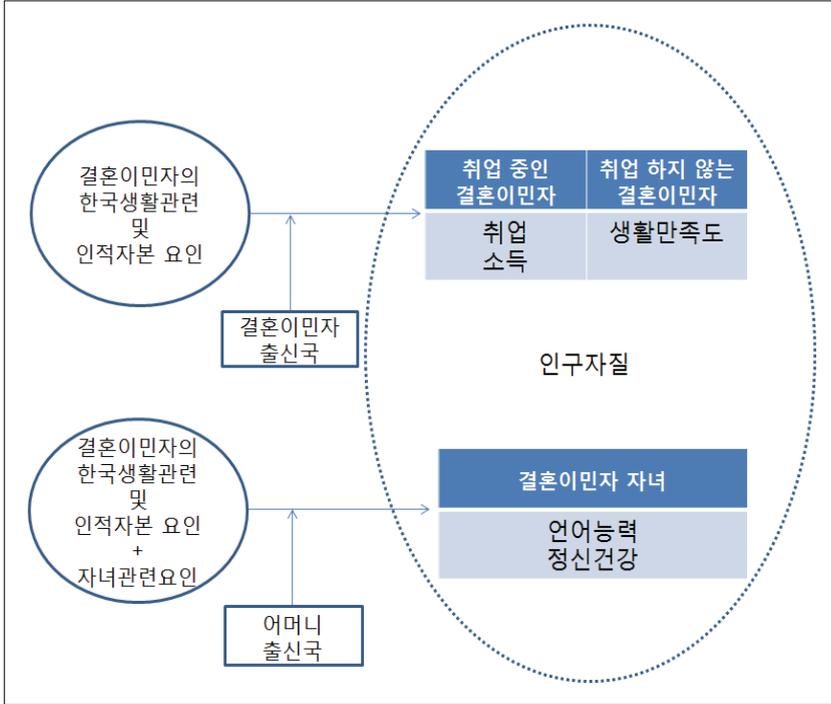
〈표 2-5〉 표본 특성(국가별, 연속 변수)

구분	변수명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어머니 한국생활 관련변인	다문화 수용성	3.271	3.611	3.175	3.168	3.261
	체류 기간	7.443	9.500	4.182	6.933	13.512
자녀 관련요인	연령	14.623	13.833	14.541	11.605	12.842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도	3.343	3.260	3.099	3.525	3.869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3.268	3.371	2.959	3.502	3.632
	어머니 모국어 권장	3.010	2.669	2.820	2.915	3.283
인구 사회학적· 경제적 변인	어머니 연령	38.819	42.115	26.486	32.772	43.046

자료: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이러한 4가지 영역의 변인은 모두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사용되는데, 분석틀을 표시한 것이 [그림 2-2]이다. 즉,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을 컨트롤 변수로 놓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관련 변인 및 인적자본 요인이 인구자질(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과 소득,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자녀의 경우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관련 변인 및 인적자본 요인뿐만 아니라 자녀 자신의 요인도 분석에 포함한다.

[그림 2-2] 본 연구의 분석틀







제3장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추이 및 인구자질의 기본특성

제1절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추이

제2절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인구자질의 기본특성

제3절 소결



3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 추이 및 인구자질의 기본특성

제1절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추이

1. 결혼이민자의 추이

본 장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상세한 현황과 추이에 대하여 서술하고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표 3-1〉 국내 체류 외국인수 및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

(단위: 명, %)

연도	체류 외국인	대한민국 인구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2006	536,627	48,782,274	1.1
2007	722,686	49,092,419	1.5
2008	891,341	49,355,153	1.8
2009	1,106,884	49,593,665	2.2
2010	1,139,283	49,773,145	2.3
2011	1,265,006	50,515,666	2.5
2012	1,409,577	50,734,284	2.8
2013	1,445,631	50,948,272	2.8
2014	1,569,470	51,141,463	3.1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각 연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살펴보면(표 3-1 참조), 2006년에는 당시 인구의 1.1%인 약 54만 명이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2009년에는 체류외국인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를 넘겼다

(2.2%). 그 후 2014년에는 그 비율이 3.1%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와 〈표 3-3〉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국적별로 나타낸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기타에는 홍콩, 싱가포르, 라오스 티모르 민주공화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타 국가에 포함되었지만, 2010년부터는 각각 집계되기 시작하였다. 남부 아시아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부탄 등이고, 중앙 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국가에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의 외국인 구성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인(한족과 조선족)의 비율이 약 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추이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의 외국인이 베트남인으로 2007년의 8.4%에서 그 후 계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14년에는 1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동남아인들의 비율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캄보디아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는 취업, 유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살펴보면(표 3-4 참조), 2007년의 결혼이민자수는 약 12만 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약 24만 명으로 7년 사이에 약 2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결혼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 살펴보면, 2007년에는 0.26%였던 것이 2014년에는 0.47%로 증가하였다. 〈표 3-1〉의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총수를 참고하여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

자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15.3%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10명 중에서 약 1.5명이 결혼이민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국적별·연도별 외국인 구성 비율(2007~2010년)

(단위: %, 명)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총계 (외국인 수)		100.0 (722,686)	100.0 (891,341)	100.0 (1,106,884)	100.0 (1,139,283)
동북아	중국(한족)	16.0	15.4	16.4	16.0
	중국(조선족)	36.4	42.4	40.1	39.9
	대만	2.9	2.3	2.1	2.1
	일본	3.3	2.7	2.4	2.2
	몽골	2.6	2.4	2.1	2.0
동남아	베트남	8.4	8.7	9.8	10.4
	필리핀	6.7	5.8	4.9	4.8
	태국	3.9	3.3	2.8	2.7
	인도네시아	3.1	2.6	2.5	2.3
	캄보디아	1.65	1.8	1.3	1.0
	미얀마				0.3
	말레이시아				0.1
	기타 ¹⁾				0.1
남부아시아 ²⁾		4.6	3.7	3.9	3.8
중앙아시아 ³⁾		2.0	1.7	1.8	1.9
미국		3.4	3.1	5.4	5.6
러시아		0.6	0.6	0.6	0.6
기타 ⁴⁾		4.4	3.6	4.0	4.1

주: 1) 홍콩, 싱가포르, 라오스, 티모르민주공화국 등

2)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부탄 등

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4)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5) 2007~2009년에는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가 기타에 포함.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각 연도.

52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표 3-3〉 국적별·연도별 외국인 구성 비율(2011~2014년)

(단위: %, 명)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총계 (외국인 수)		100.0 (1,265,006)	100.0 (1,409,577)	100.0 (1,445,631)	100.0 (1,569,470)
동북아	중국(한족)	16.5	15.0	15.4	15.0
	중국(조선족)	38.6	40.4	38.3	38.7
	대만	1.9	1.8	1.7	1.6
	일본	2.8	2.7	2.9	2.7
	몽골	1.9	1.7	1.6	1.4
동남아	베트남	11.0	11.5	12.2	11.8
	필리핀	4.6	4.2	4.0	4.1
	태국	2.4	2.0	1.7	1.9
	인도네시아	2.2	2.2	2.1	2.2
	캄보디아	1.2	1.6	2.1	2.5
	미얀마	0.3	0.4	0.6	0.7
	말레이시아	0.1	0.1	0.1	0.1
	기타 ¹⁾	0.2	0.2	0.2	0.2
남부아시아 ²⁾		4.1	4.5	4.8	4.8
중앙아시아 ³⁾		2.1	2.3	2.7	2.8
미국		5.2	4.9	4.8	4.5
러시아		0.6	0.6	0.7	0.7
기타 ⁴⁾		4.2	3.9	4.1	4.1

주: 1) 홍콩, 싱가포르, 라오스, 티모르민주공화국 등
 2)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부탄 등
 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4)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각 연도.

〈표 3-4〉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수 및 인구 대비 체류 결혼이민자 비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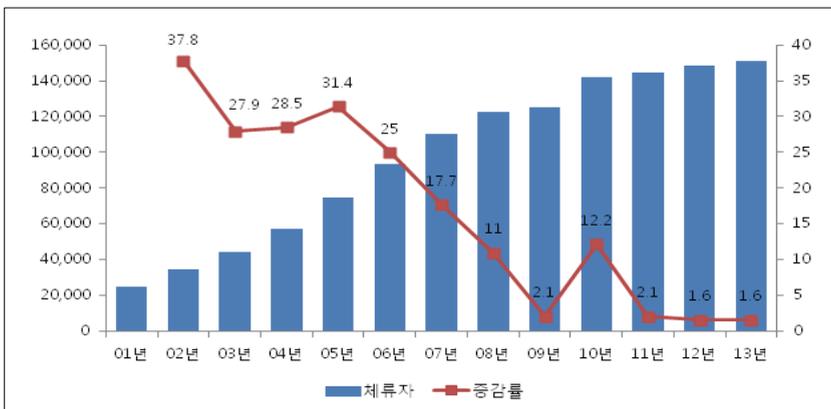
연도	체류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인구	인구대비 결혼이민자 비율
2007	126,955	49,092,419	0.26
2008	144,385	49,355,153	0.29
2009	167,090	49,593,665	0.34
2010	181,671	49,773,145	0.40
2011	211,458	50,515,666	0.42
2012	220,687	50,734,284	0.43
2013	231,520	50,948,272	0.45
2014	240,203	51,141,463	0.47

주: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각 연도.

[그림 3-1]은 결혼이민자의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2년을 보면, 37.8%로 가장 높았지만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에는 1.6%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증가율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결혼이민자의 절대적인 수가 과거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혼이민자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 결혼이민자의 연도별 증감 추이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각 월보.

〈표 3-5〉와 〈표 3-6〉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결혼이민자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나타낸 표이다. 국가에 대한 설명은 〈표 3-3〉과 〈표 3-4〉와 같다. 결혼이민자의 변화 추이를 보면, 중국(한족, 조선족) 출신의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2008년에 약 60%에서 2014년 약 50%로 약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구성 비율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점유 비율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인데 2007년 12.8%에서 2014년 23.3%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한국인)의 평균 연령 차이를 한국인 부부와 비교하여 살펴보면(표 3-7 참조), 부부의 조합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한국인끼리 결혼했을 경우로 그 차이는 2.2세인데 반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경우가 2010년 기준으로 12.1세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그 다음이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과 결혼한 경우이다(3.4세).

연도별 추세를 보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약 8세 내외였던 것이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12.1세 차이가 나고 있고,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약 5~6세였던 것이 그 이후 감소를 거듭하여 2010년에는 3.4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인과 결혼했을 경우는 2.2~2.6세로 비교적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5〉 국적별·연도별 결혼이민자 구성 비율(2007~2010년)

(단위: %, 명)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총계 (결혼이민자 수)		100.0 (126,955)	100.0 (144,385)	100.0 (167,090)	100.0 (181,671)
동북아	중국(한족)	23.3	23.3	29.1	28.3
	중국(조선족)	39.4	38.6	32.2	32.7
	대만	4.2	2.6	0.3	0.6
	일본	5.2	4.5	3.2	2.9
	몽골	1.2	1.4	1.5	1.4
동남아	베트남	12.8	14.6	18.4	19.1
	필리핀	5.5	5.4	5.9	5.8
	태국	1.2	1.3	1.3	1.3
	인도네시아	0.4	0.4	0.3	0.3
	캄보디아	0.9	1.9	1.9	1.8
	미얀마				0.1
	말레이시아				0.0
	기타 ¹⁾				0.1
남부아시아 ²⁾		1.0	1.1	1.2	1.3
중앙아시아 ³⁾		1.2	1.2	1.3	1.2
미국		1.0	1.1	1.0	0.9
러시아		0.7	0.6	0.6	0.6
기타 ⁴⁾		1.8	2.0	1.8	1.7

주: 1) 홍콩, 싱가포르, 라오스, 티모르민주공화국 등

2)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부탄 등

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4)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5) 2007~2009년에는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가 기타에 포함

6) 총계는 혼인귀화자 포함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각 연도.

56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표 3-6〉 국적별·연도별 결혼이민자 구성 비율(2011~2014년)

(단위: %, 명)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총계 (결혼이민자 수)		100.0 (211,458)	100.0 (220,687)	100.0 (231,520)	100.0 (240,203)
동북아	중국(한족)	27.5	24.8	24.2	24.0
	중국(조선족)	29.8	30.1	29.1	27.9
	대만	0.5	0.6	0.6	0.7
	일본	5.1	5.2	5.2	5.2
	몽골	1.4	1.3	1.3	1.3
동남아	베트남	19.8	21.5	22.4	23.2
	필리핀	5.7	6.1	6.4	6.6
	태국	1.3	1.3	1.3	1.3
	인도네시아	0.3	0.3	0.3	0.3
	캄보디아	2.1	2.4	2.4	2.6
	미얀마	0.1	0.1	0.1	0.1
	말레이시아	0.0	0.0	0.1	0.1
	기타 ¹⁾	0.1	0.1	0.1	0.2
남부아시아 ²⁾		1.2	1.4	1.5	1.5
중앙아시아 ³⁾		1.2	1.3	1.4	1.4
미국		1.0	1.1	1.2	1.2
러시아		0.7	0.7	0.7	0.6
기타 ⁴⁾		2.1	1.9	1.9	2.0

주: 1) 홍콩, 싱가포르, 라오스, 티모르민주공화국 등

2)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부탄 등

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4)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5) 총계는 혼인귀화자 포함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각 연도.

〈표 3-7〉 결혼이민자 부부의 평균 연령 차이

(단위: 세)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한국남성+ 외국여성	7.5	7.9	8.3	8.4	9.1	11.6	11.5	11.8	11.1	12.1
한국여성+ 외국남성	6.5	5.3	4.0	3.1	2.7	4.1	4.3	4.1	3.7	3.4
한국여성+ 한국남성	2.6	2.6	2.6	2.6	2.5	2.4	2.4	2.3	2.2	2.2

자료: 2010 혼인·이혼통계, 통계청.

2. 결혼이민자 자녀의 추이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알아본다. 〈표 3-8〉은 2013년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자녀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자녀수를 보면, 2013년 1월 1일 현재 총 19만 천여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연령별 비율을 보면 만 6세 이하가 전체의 6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만 7~12세, 13~15세, 16~18세의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각각 23.6%, 9.6%, 5.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8〉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현황(2013년)

(단위: 명, %)

구분	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자녀수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비율	100	61.0	23.6	9.6	5.8

자료: '13.1.1 기준, 안전행정부,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통계자료.

〈표 3-9〉는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출신국별 자녀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분포를 전체적으로 보면, 앞

에서 계속적으로 보여 왔던 것과 같이 그 자녀들도 중국 출신 한족과 조선족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중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일 민족으로 보면 베트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9〉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출신국별 자녀 현황(2013년)

(단위: %, 명)

구분	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합계	100.0 (191,328)	100.0 (116,696)	100.0 (45,156)	100.0 (18,395)	100.0 (11,081)
중국(조선족)	22.0	16.0	31.0	36.0	31.0
중국(한족)	19.0	19.0	19.0	20.0	24.0
베트남	26.0	37.0	9.0	7.0	13.0
필리핀	9.0	9.0	14.0	6.0	5.0
일본	9.0	5.0	15.0	21.0	15.0
캄보디아	3.0	5.0	1.0	1.0	1.0
몽골	1.0	2.0	1.0	1.0	1.0
태국	1.0	1.0	2.0	1.0	1.0
미국	1.0	1.0	1.0	1.0	1.0
러시아	1.0	1.0	1.0	0.0	1.0
대만	1.0	1.0	1.0	2.0	2.0
기타	5.0	6.0	6.0	4.0	5.0

자료: '13.1.1 기준, 안전행정부,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통계자료.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나이를 보면, 나라별로 여성들이 한국에 온 순서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녀의 나이가 많은 비율이 제일 큰 중국은 오래전부터 많은 수가 꾸준하게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고, 베트남 국적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의 연령분포가 만 6세 이하가 많은 것으로 볼 때, 비교적 최근에 많은 수의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만 7~18세까지의 자녀가 비교적 많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으나, 오히려 만 6세 이하의 비율은 작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인과의 결혼 비율이 작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만 6세 이하 자녀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와 비교하여 볼 때,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자녀 비율이 작아 보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자녀에 대한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표 3-10 참조), 경기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서울,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들이 작은 비율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녀의 연령별 분포도 전체 분포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3-10〉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출신국별 자녀의 지역별 현황(2013년)

(단위: %, 명)

구분	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전국	100.0 (191,328)	100.0 (116,696)	100.0 (45,156)	100.0 (18,395)	100.0 (11,081)
서울	15.0	14.0	17.0	16.0	17.0
부산	4.0	5.0	4.0	4.0	4.0
대구	3.0	3.0	3.0	3.0	3.0
인천	6.0	5.0	6.0	6.0	6.0
광주	2.0	3.0	2.0	2.0	2.0
대전	2.0	2.0	2.0	2.0	3.0
울산	2.0	2.0	2.0	2.0	2.0
세종	0.0	0.0	0.0	0.0	0.0
경기	25.0	24.0	27.0	26.0	28.0
강원	3.0	3.0	4.0	4.0	3.0
충북	4.0	4.0	4.0	4.0	4.0
충남	6.0	6.0	5.0	5.0	5.0
전북	5.0	5.0	5.0	5.0	5.0
전남	6.0	7.0	6.0	6.0	5.0
경북	6.0	7.0	5.0	5.0	5.0
경남	7.0	8.0	6.0	7.0	7.0
제주	1.0	1.0	1.0	1.0	1.0

자료: '13.1.1 기준, 안전행정부,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통계자료.

〈표 3-11〉은 결혼이민자 자녀의 재학생 수를 연도별·학교급별로 보여 주고 있다. 결혼이민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 자녀의 재학생 수 또한 연도별로 증가함을 알 수 있고, 2010년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재학생 수가 30,040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수에 비해, 초등학교 자녀의 재학생 수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결혼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그 이유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11〉 결혼이민자 자녀의 재학생 수 현황(2005~2010년)

(단위: 명, %)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	583	-	206	-	6,121	-
2006	6,795	-	924	-	279	-	7,998	-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2009	20,632	30.5	2,987	35.0	1,126	48.0	24,745	31.8
2010	23,602	14.4	4,814	61.2	1,624	44.2	30,040	21.4

자료: 교육부,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2010. 4. 출신국 포함).

〈표 3-12〉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 급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¹³⁾. 국내 출생의 초등학생 수의 변화를 보면, 2013년도에는 32,831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41,575명으로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3-9〉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 6세 이하가 대부분인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입학이 줄어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중도입국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아직 그렇게 큰 비중을 차

13) 여기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외국인 부부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12〉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 급별 현황(2013~2014년)

(단위: 명, %)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국내출생	32,831	9,174	3,809	45,814	41,575	10,325	5,598	57,498
중도입국	3,065	1,144	713	4,922	3,268	1,389	945	5,602
외국인자녀	3,534	976	534	5,044	3,454	811	441	4,706
계	39,430	11,294	5,056	55,780	48,297	12,525	6,984	67,806
비율	70.7	20.3	9.0	100.0	71.2	18.5	10.3	100

자료: 교육부, 다문화 학생 통계 현황(14.4월).

〈표 3-13〉은 최근 5년간(2010~2014년)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의 전체 학생 수는 약 720만 명이었고 다문화 학생 수는 약 3만 1천 명으로 0.44%였는데, 2014년에는 약 630만 명의 전체 학생 수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약 6만 8천명으로 1.07%를 점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학령인구는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 비율은 앞으로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3-13〉 다문화 가정 학생 증가 추이(최근 5년)

(단위: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다문화 학생 수(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전체 학생 수(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다문화학생 비율 (A/B*100)	0.44	0.55	0.70	0.86	1.07

자료: 교육부, 다문화 학생 통계 현황(14.4월).

제2절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인구자질의 기본특성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인구자질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중인 경우 취업여부, 소득을 인구자질이라고 하였고, 취업하고 있지 않는 결혼이민자는 생활만족도를 그들의 인구자질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 자녀의 경우는 언어 능력과 정신 건강을 인구자질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요소로 표현되는 인구자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평가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구자질을 한국인의 인구자질 수준과 비교하려고 한다. 단, 인구자질에 대하여 비교하기 전에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즉 학력과 건강에 대한 비교도 포함한다.

〈표 3-14〉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학력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여성의 경우는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유배우 여성의 학력을 도출한 것이다. 표를 보면, 초등학교이하에서는 한국여성의 비율이 높고, 중학교에서 4년제 미만 대학교까지는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력이 4년제 대학이상인 그룹을 보면 한국여성의 비율이 높지만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여기에서, 결혼이민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50세까지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학력별로 다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결혼이민자에서는 72.6%, 한국여성에서는 96%였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결혼이민자에서 29.8%, 한국여성에서 48.6%, 그리고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결혼이민자는 16.1%, 한국여성은 28.8%로 결혼이민자와 비교해 한국여성의 학력이 더 높은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표 3-15〉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것이다. 건

강 상태는 '매우 나쁘다'에서 '매우 좋다'의 5개 척도로서 표시하고 있다. '매우 나쁘다'와 '조금 나쁜 편이다'를 비교해보면, 결혼이민자가 13.5%에 반하여, 한국여성은 7.7%이고, '대체로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다'를 비교하면, 결혼이민자가 52.6%인 반면, 한국여성은 64.9%로 모두 한국여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좋다'의 비율을 보면, 결혼이민자가 6.7%인 것에 비하여, 한국여성은 41.7%로 두 집단 사이에 35%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가 한국여성보다 비교적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표 3-14〉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학력 비교

(단위: %, 명)

구분	전체		50세 이하	
	결혼이민자	한국여성	결혼이민자	한국여성
무학	0.4	2.0	0.3	0.1
초등학교	7.4	15.7	6.4	0.9
중학교	20.9	12.4	20.7	3.0
고등학교	42.7	38.9	42.8	47.4
4년제 미만 대학교	13.3	12.3	13.7	19.8
4년제 대학교	13.9	17.0	14.5	26.1
대학원이상	1.6	1.7	1.6	2.7
샘플사이즈	11,316	5,963	10,290	3,427

자료: 결혼이민자: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표 3-15〉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건강상태 비교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여성
매우 나쁘다	1.8	1.5
조금 나쁜 편이다	11.7	6.2
보통이다	34.0	27.5
대체로 좋은 편이다	45.9	23.2
매우 좋다	6.7	41.7
샘플사이즈	5,964	11,316

자료: 결혼이민자: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인구자질(취업 중인 경우: 취업과 소득, 취업하지 않은 경우: 생활만족도)에 대해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을 비교해본다. <표 3-16>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취업률을 비교한 것인데,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48.6%임에 반하여, 한국여성의 취업률은 53.1%로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한국여성의 취업률보다 약 5%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학력과 건강상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표 3-16>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취업률 비교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여성
취업률	48.6	53.1
샘플 사이즈	11,316	5,573

자료: 결혼이민자: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표 3-17>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소득을 도출한 것이다. 소득은 전체적 분포를 고려하여 ‘50만 원 미만’에서부터 ‘150만 원 이상’까지 각 계급별 50만 원의 차이를 두고 4개의 범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100만 원 미만에서는 결혼이민자가 접하는 비율이 큰 반면, 100~150만 원은 두 집단의 비율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 되는 결혼이민자는 13.6%인데 반해, 동일 그룹의 한국여성은 결혼이민자 보다 24.8% 더 높은 38.4%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 그룹별 분포를 볼 때, 한국여성이 결혼이민자보다 비교적 소득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취업 중인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표 3-16>과 <표 3-17>과 같이 취업률과 소득의 비교가 가능하였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활만족도를 비교하였다.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는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만

족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한국복지패널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 중 2012년에 조사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 3-17〉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소득 비교

(단위: 명, %)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여성
50만원 미만	22.3	11.4
50~100만원 미만	33.3	20.9
100~150만원 미만	30.8	29.4
150만원 이상	13.6	38.4
샘플 사이즈	5,573	2,240

자료: 결혼이민자: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매우 안 좋다’에서 ‘매우 좋다’까지 동일하게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 데이터의 비교가 가능하다. 비교 대상은 앞에서 비교한 것과 동일하게 유배우 여성으로 하였다¹⁴⁾. 단,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조사의 특성상 중위 소득 미만의 샘플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평균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 평균도 함께 도출하여 나타낸다.

〈표 3-18〉을 보면, 결혼이민자의 경우(「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총 5점 만점에서 3.77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여성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각각 3.46과 2.52로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보다 낮은 것은 물론 두 데이터 사이의 차이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14)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여성가족패널조사」와 같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와 가구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인 여성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3-18〉 생활만족도

(단위: 명)

구분	샘플 사이즈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5,813	3.77	0.94
복지패널			
전체	2,108	3.46	0.67
일반	1,427	3.62	0.59
저소득	681	3.15	0.73
노동패널	2,218	2.52	0.58

주: *조건: (유배우)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의 성별이 여자이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의 생활 만족도 (5개 척도).

이 두 데이터의 평균 차이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대상가구에 저소득 층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일반 가구층만을 보면 3.62로 결혼이민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패널 데이터의 특성 상 샘플의 탈락(attrition)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2012년의 원가구 표본 유지율은 70.3%로(이상호 외 2014), 약 30%의 탈락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향(bias)에 의한 차이라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학력이나 건강과 같은 인구자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적자본 측면에 있어서는, 결혼이민자에 비해 한국여성의 학력이나 건강이 비교적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구자질 측면에서 취업률과 소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취업률에서 결혼이민자보다 한국여성이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소득 측면에서는 한국여성이 결혼이민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여성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종사상 지위나 직업군에 종사한 결과로 예상된다.

앞서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을 비교하였는데 이어서는 그 자녀들의 인구자질에 대해서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 자녀의 인구자질로 언어 능력과 정신 건강을 포함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하였는데, 언어 능력의 경우, 한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역시 한국인이기 때문에 언어 능력으로 한국어 능력 비교는 불가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자녀와 한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비교는 정신 건강에 대하여 비교한다.

비교 데이터는 「청년패널조사」로, 이 조사는 만 15~2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첫 해 이후부터는 최저 연령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 이 조사는 2001년에 처음 시작되어 2006년에 첫 번째 패널조사가 마무리 되었고, 현재의 패널은 2007년에 시작되어 2014년 현재 제 7차년도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2001년의 데이터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시기의 차가 크기 때문에 2007년의 데이터로 비교를 한다.

「청년패널조사」는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 ‘예’라고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경우, 「청년패널조사」와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항을 통해 비교가 가능한데, 단, 그 응답이 ‘그런 적이 없다’, ‘약간 그런 적이 있다’, ‘그런 적이 있다’, ‘자주 그런 적이 있다’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다’ 이외의 응답을 ‘예’라고 통합함으로써 「청년패널조사」의 응답과 동일하게 조작하였다.

〈표 3-19〉는 상기 과정으로 산출한 결혼이민자 자녀의 우울 및 절망감을 느끼는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결혼이민자 자녀가 우울 및 절망감을 느끼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9~24세), 23.6%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 중에는 만 15세 미만인 자녀

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청년패널조사」의 연령층과 비교하기 위하여 대상을 만 15~24세만으로 한정하여 비교하면,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0.7%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여성의 자녀는 5.9%로 결혼이민자 자녀의 1/5정도만이 우울 및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결혼이민자 자녀와 한국여성의 자녀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더 우울 및 절망감을 느꼈던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9〉 결혼이민자 자녀와 한국인 자녀의 우울 및 절망감

(단위: 명, %)

구분		만 9~24세		만 15~24세	
		샘플사이즈	'예' 응답 비율	샘플사이즈	'예' 응답 비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전체	4,775	23.6	1,550	30.7
	남자	2,504	22.2	794	28.2
	여자	2,271	25.2	756	33.2
청년패널	전체			4,565	5.9
	남자			1,867	4.6
	여자			2,698	6.8

주: 청년패널: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일반적인 추이 및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인구자질에 대하여 비슷한 조건의 한국여성 및 이들의 자녀와 비교를 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약 157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1%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결혼이민자는 약 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47%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10명 중 약 1.5명이 결혼이민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 자녀는 만 6세 이하인 미취학 아동이 대부분이며 전체에서 61%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이지만, 최근에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자녀의 증가도 미취학 아동의 증가 못지않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구집단이라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구자질 연구를 위해 한국여성과 자녀의 인구자질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봄에 있어서, 인구자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학력과 건강 상태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해보았다. 그 결과, 두 집단간 학력과 건강 모두 차이가 있었는데, 결혼이민자가 한국여성보다 학력과 건강 모두 낮은 경향을 보였고, 특히 학력 면에서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서 인구자질에 대한 비교를 위해 결혼이민자와의 인구자질은 취업률과 소득, 생활만족도로 비교하였고, 자녀는 정신 건강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은 한국여성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과 차이를 보였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취업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5%정도 한국여성의 취업률이 결혼이민자에 비해 더 높았고, 소득 면에서는 150만 원 이상 그룹에 속한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비율이 차이를 보여 한국여성이 결혼이민자보다는 소득조건이 나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취업률 및 소득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만족도로 인구자질을 살펴보았는데, 한국여성보다 결혼이민자가 수치상으로는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한국사회로 이주하고 정주한다는 특성상 취업이 이주의 목표가 아닌 경우가 많고, 결혼당시 본국에서의 생활보다 더 나은 환경,

특히 경제적 환경을 찾아서 오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 싶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 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생활만족도가 일반 한국여성보다 더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여성과 비교했을 때, 생활만족도가 결혼이민자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정신 건강을 비교해 보았는데, 데이터의 연령 차이로 인해 정확한 비교는 어려웠지만, 15세 이상 자녀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인 부모의 자녀보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가 우울 및 절망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의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한국여성과 자녀와 비교해 본 결과,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한국여성과 자녀보다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결혼이민자 가구의 취약성과 더해져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향후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집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소외방지와 역량강화를 위해, 인구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분석을 위해, 다음 장부터는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인 분석을 한다. [그림 2-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경우 인적자본 요인과 이민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생활관련 변인을 통해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자녀의 경우는 어머니가 가진 특성과, 이에 더하여 자녀 본인과 관련된 변인을 추가하여 이들 요인이 인구자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한 후, 인구나사회학적·경제적 변인을 통제하여 인구자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나아가 출신국가 별로 요인과 인구자질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본다.



제4장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1): 노동시장성과(취업과 소득)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소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제3절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4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1): << 노동시장성과(취업과 소득)

제1절 이론적 배경

지금까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정리함과 동시에 인구자질을 동일한 조건의 한국여성 및 자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이 취약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장부터는 인구자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려한다. 본 장은 [그림 2-1]에서 제시한 분석틀의 왼 편 사각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업과 소득에 대하여 분석한다.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 앞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이민자의 인구자질에 관한 연구를 취업과 소득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으로 본 분석의 이론적 배경을 보완한다.

1. 취업

선진이민사회에서는 이민자의 인적자본과 취업 및 소득 즉, 노동시장에서의 퍼포먼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Boyd 1992; Kanas and van Tubergen 2009). 이러한 이민자 대상 연구에서의 인적자본은 일반국민의 인적자본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교육정도, 일에 대한 기술이나 경험, 건강 등과 같은 일반적인 인적자본(OECD 2001)을 이민자의 연구에 적용할 때에는,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이민

국의 언어 능력이 추가적인 인적자본 요소로 더해진다(Finnie and Meng 2002). 그리고 이민자의 이민국가로 이주 전에 축적한 인적자본과 이주 후에 축적한 인적자본이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누기도 한다(Behtoui 2004). 우선, 이민자의 인적자본과 인구자질로서 취업의 관계를 보면, 교육 자체는 취업여부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서미진 2010; Cohen and Bianchi 1999). 그러나 이민자의 경우 이민자 출신국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민국보다 덜 발전된 출신국의 학위나 학력은 특히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Zeng and Xie 2004). 반면, 이민국에서의 학력은 그 국가 노동시장의 필요와 매치가 잘되거나 이민국이 출신국보다 더욱 선진국인 경우는 더욱 이민국의 학력이 노동시장에서 중요하게 된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출신국보다 이민국에서 학력을 쌓아도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예외적인 선행연구도 있지만(Duvander 2001),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한국에 온 결혼이민자들은 출신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수준이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학력에 더해, 일한 경험도 중요하다. 일에 대한 경험은 그 분야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노동시장의 경험으로 인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서미진 2010). 이 또한 학력과 마찬가지로 출신국에서의 일한 경험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Matto et al. 2008).

이민자의 이민국 언어수준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일 자리를 찾을 때부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Chiswick and Miller 2002; Shields and Wheatley-Price 2002). 이와 더불어 또 다

른 인적자본인 건강도 취업과 관련이 있다. 건강한 이민자가 더 취업에 높은 확률을 가지기도 하고(Beland et al. 2002), 정신 건강과 같은 경우는 취업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도 있다(Dean and Wilson 2009).

그 외에 우리나라의 이민자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국적여부와 같은 경우는 취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외국의 연구에서 보면, 이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언어 능력이나 교육을 받는 기간들이 늘어날 수 있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Read and Cohen 2007), 그 영향이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더 이상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Chiswick andrst 2000). 한국생활의 어려움이나 차별경험 등 한국생활과 관련된 요인들이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Bratti and Staffolani 2012; Gronau 1974; Nawata and Ii 2004; 김대일 2008; 양승주 1995), 아직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가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의 존재가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2. 소득

이민자의 소득과 관련된 연구는 소득 그 자체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그 중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Borjas(1985)의 연구로서 미국으로 이민 온 자들의 소득변화를 분석하여 그들의 질적 변화를 추정하였다. 즉, 1970년과 1980년의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1970년에서 1980년 동안의 소득변화를 분석했는데, 최근 코호트일수록 소득의 감소가 커지는 것을 알게 되어 이민자의 자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반면, LaLonde and Topel(1991)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미국에 이민 온 자들의 초기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이민 국가에 동화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소득이, 비슷한 인종의 본국인(native)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해갈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자질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지어 Hatton(2000)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의 약 40년간의 이민자의 인구자질 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이민자의 자질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미미할 정도라고 하고 있다.

소득 그 자체로 인구자질을 평가하는 연구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교육수준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양인숙 외(2011)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이 고용가능성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009 다문화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소득 또한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강혜정·이규용(2012)과 이태정 외(2013)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건강을 들 수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건강이 좋다는 것은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질병으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것 등의 장점이 있고, 이러한 건강과 임금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건강과 임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과 임금이 내생적인(endogenous)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임금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계량적으로 보완하여 추정하는 연구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한 연구 중의 하나가 Lee(1982)의 연구로서 건강과 임금의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structural equation)을 이용하여 건강과 임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강과 임금은 매우 강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즉, 임금은 건강 수요에 강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건강함은 시장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Chirikos and Nestel(1985)의 연구도 건강이 나쁜 사람의 소득이 적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로는 언어 능력으로 이민자에게 있어서 이민국가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언어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고, 언어 능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Kossoudji(1988)는 미국에 이민 온 자들의 영어능력이 인종과 직업에 따라 다르고, 특히 아시아계 보다는 히스패닉의 경우가 영어를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비용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Tainer(1988)는 영어능력이 모든 인종에 있어서 소득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영국도 마찬가지로 Leslie(2001)의 연구결과는 언어 능력이 소수 이민자 남녀의 실업율과 비경제활동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언어 능력이 낮으면 소득도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상충되고 있는데, 강혜정·이규용(2012), 양인숙 외(2011), Lee(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가능성 및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한 반면, 이태정 외(2013)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언어 능력은 이민을 온 시기에 따라 그 유창함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Bleakley and Chin(2004)는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 온 자들의 영어능력이 임금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어능력은 교육연수와 큰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 이민 온 자들의 영어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도 인구자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Borjas(1991)는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 정책 차이가 숙련 노동자의 유입에 차이를 만들었다고 하였고, Belletini and Ceroni(2007)는 이민 제한(quota)이 이민자들의 자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리적 모델을 확립하였는데,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이민 제한을 완화하면 여러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개개인의 임금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민 국가의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소득추정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요인들 이외에 출신 국가별로 소득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제2절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소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본 절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소득에 대하여 분석틀에서 제시한 인적자본 요인, 한국생활관련 변인,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와 인구자질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이들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카이 제곱 테스트(chi-squared test)를 시행한다.

1. 취업

〈표 4-1〉은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요인별로 취업 여부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취업 여부는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단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은 비취업 인구에서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인구자질과 취업사이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취업에 대한 의사가 없어서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취업을 할 의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이들을 비취업 대상에 포함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를 고려해 분석을 한다¹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 요인은 학력, 한국어 능력, 자국 취업 유무, 건강 상태이다. 카이 제곱 테스트를 보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각 요인의 카테고리별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률이 52.5%이고, 학력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국어 능력은 그 차이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상급일수록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국에서 취업할수록 한국에서의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건강상태와 취업률의 관계는 대체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이는 곧 경제활동인구(취업인구와 구직활동중인 인구) 중에서 취업과 비취업의 비율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즉,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일을 하려는 의향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분석의 대상은 일을 하고 있는 자와 일을 하지 않는 자 중 취업 의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 3장에서 살펴본 취업유무(표 3-16)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표 4-1〉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요인별 취업 유무

(단위: %)

구분		한국 취업 여부		합계(N)	x ²
		취업	비취업		
전체		52.5	47.5	100.0(10,490)	
학력	중졸이하	53.1	46.9	100.0(3,145)	0.8***
	고졸	52.0	48.0	100.0(4,654)	
	대졸이상	52.5	47.5	100.0(2,691)	
한국어 능력	상급	63.3	36.7	100.0(2,728)	249.0***
	중급	52.8	47.2	100.0(4,508)	
	하급	42.9	57.1	100.0(3,254)	
자국취업	취업	53.0	47.0	100.0(8,383)	5.3*
	비취업	50.2	49.8	100.0(2,107)	
건강상태	매우 좋다	49.4	50.6	100.0(4,357)	40.1***
	좋다	55.4	44.6	100.0(2,459)	
	보통이다	55.4	44.6	100.0(2,940)	
	나쁘다	50.1	49.9	100.0(609)	
	매우 나쁘다	43.2	56.8	100.0(125)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표 4-2〉는 한국생활관련 변인별로 취업유무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생활관련 변인은 한국생활의 어려움, 다문화 수용성, 차별 경험, 한국 국적 유무, 체류 기간이다. 이들의 관계를 보면,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을수록 취업률이 높아지지만, 다문화 수용성과의 명확한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차별 경험과 한국 국적 유무, 그리고 체류기간은 취업률과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관련 변인별 취업 유무

(단위: %)

구분		한국 취업 여부		합계(N)	χ^2
		취업	비취업		
한국생활 어려움	있다	51.3	48.8	100.0(9,409)	53.7***
	없다	63.0	37.0	100.0(1,081)	
다문화 수용성	전혀 그렇지 않다	51.0	49.0	100.0(2,606)	11.2*
	그렇지 않다	53.0	47.0	100.0(1,359)	
	약간 그렇지 않다	50.4	49.6	100.0(1,408)	
	약간 그렇다	52.2	47.9	100.0(2,284)	
	그렇다	55.0	45.1	100.0(1,445)	
	매우 그렇다	54.7	45.3	100.0(1,388)	
차별 경험	있다	56.2	43.8	100.0(4,359)	40.9***
	없다	49.8	50.2	100.0(6,131)	
한국 국적	있다	64.3	35.7	100.0(3,926)	40.9***
	없다	45.4	54.6	100.0(6,564)	
체류 기간	0~4년	30.0	70.0	100.0(2,607)	810.0***
	4~7년	52.8	47.2	100.0(2,970)	
	7~14년	62.8	37.2	100.0(3,537)	
	14년이상	67.8	32.2	100.0(1,376)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표 4-3〉은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별 취업유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은 출신국적, 남편소득, 집의 소유형태를 포함한다. 먼저 국적별 취업유무를 보면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의 취업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한족 출신 결혼이민자가 58.4%, 조선족 출신 결혼이민자가 66.2%인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소득에 따른 취업유무를 보면,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집의 소유 형태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존재에 따라 취업 유무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0~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하고 있

82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는 경향이 작고(유: 38.2%, 무: 66.1%), 6~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0~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와 반대의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유: 61.6%, 무: 49.7%). 그리고 도시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도시에 거주하지 않을수록(군부에 거주할수록), 취업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3〉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별 취업 유무

(단위: %)

구분		한국 취업 여부		합계(N)	x ²
		취업	비취업		
출신 국적	중국(한족)	58.4	41.7	100.0(1,880)	270.9***
	중국(조선족)	66.2	33.8	100.0(1,845)	
	일본	49.3	50.7	100.0(868)	
	베트남	45.6	54.4	100.0(1,888)	
	필리핀	52.6	47.4	100.0(1,381)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44.5	55.5	100.0(2,628)	
남편 소득	150만원 미만	61.9	38.1	100.0(2,797)	208.3***
	150~200만원 미만	51.3	48.7	100.0(2,375)	
	200~250만원 미만	49.5	50.5	100.0(1,795)	
	250만원 이상	42.0	58.0	100.0(2,320)	
집 소유 형태	월세	55.1	44.9	100.0(2,878)	11.0**
	전세	51.8	48.2	100.0(2,132)	
	자가	51.3	48.7	100.0(5,480)	
0~5세미만 자녀수	있음	38.2	61.8	100.0(5,115)	818.2***
	없음	66.1	33.9	100.0(5,375)	
6~12세미만 자녀수	있음	61.6	38.4	100.0(2,451)	107.3***
	없음	49.7	50.3	100.0(8,039)	
도시 거주	있음	50.6	49.5	100.0(6,506)	25.0***
	없음	55.6	44.4	100.0(3,984)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2)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대체하였음.

2. 소득

제 2장의 인구자질 개념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소득은 인적자본 축적의 결과라 할 수 있고, 이는 곧 인적자본과의 상관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4>는 이러한 인적자본 요인과 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전체적인 소득 분포를 보면 50~150만원 미만의 비율이 볼록한 산의 모양을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한국어 능력과도 유사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국취업과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4>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요인별 소득 현황

(단위: %)

구분		본인 소득 수준				합계(N)	χ^2
		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150 만원 미만	150 만원 이상		
전체		22.3	33.2	30.8	13.6	100.0(5,573)	
학력	중졸 이하	24.8	33.4	32.9	8.9	100.0(1,677)	106.3***
	고졸	22.4	33.6	31.5	12.5	100.0(2,447)	
	대졸 이상	19.3	32.5	27.3	20.9	100.0(1,449)	
한국어 능력	상급	20.2	27.9	33.4	18.5	100.0(1,754)	85.0***
	중급	22.5	35.2	30.1	12.3	100.0(2,409)	
	하급	24.8	36.5	28.9	9.8	100.0(1,410)	
자국 취업	있다	22.1	33.8	30.7	13.4	100.0(4,503)	3.5
	없다	23.4	30.9	31.3	14.4	100.0(1,070)	
건강 상태	매우 좋다	22.8	32.4	31.7	13.2	100.0(2,180)	20.2†
	좋다	20.1	34.2	30.3	15.4	100.0(1,378)	
	보통이다	23.2	32.5	31.0	13.3	100.0(1,648)	
	나쁘다	24.1	39.6	37.0	9.3	100.0(311)	
	매우나쁘다	23.2	32.1	26.8	17.9	100.0(56)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84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표 4-5〉는 한국생활변인 별로 소득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생활이 어려울수록 소득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다문화 수용 정도와 차별 경험, 그리고 한국 국적 유무와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보이질 않는다. 반면, 체류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관련 변인별 소득 현황

(단위: %)

구분		본인 소득 수준				합계(N)	x ²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한국생활 어려움	있다	22.4	34.7	30.7	12.2	100.0(4,883)	82.6***
	없다	21.7	23.2	31.5	23.6	100.0(690)	
다문화 수용성	전혀 그렇지 않다	24.3	33.0	30.4	12.3	100.0(1,352)	18.1
	그렇지 않다	22.0	35.6	28.7	13.7	100.0(728)	
	약간 그렇지 않다	18.4	32.7	32.6	16.4	100.0(719)	
	약간 그렇다	22.1	33.4	31.6	12.9	100.0(1,207)	
	그렇다	23.2	32.8	30.3	13.6	100.0(801)	
	매우 그렇다	22.3	32.3	31.3	14.1	100.0(766)	
차별 경험	있다	20.4	34.1	32.2	13.4	100.0(2,490)	11.5**
	없다	24.0	32.6	29.7	13.7	100.0(3,083)	
한국 국적	있다	21.5	33.5	31.5	13.6	100.0(2,550)	2.5*
	없다	23.1	33.1	30.2	13.6	100.0(3,023)	
체류 기간	0~4년	23.1	35.7	30.4	10.8	100.0(789)	58.6***
	4~7년	21.4	34.6	32.9	11.2	100.0(1,585)	
	7~14년	20.6	33.5	31.4	14.4	100.0(2,251)	
	14년 이상	27.4	28.3	26.3	17.9	100.0(948)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표 4-6〉은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별로 소득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출신국적별로 보면, 대체로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의 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소득은 작은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편 소득과의 관계를 보면,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이민자 본인의 소득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¹⁶⁾, 집의 소유형태가 자가일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일수록 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별 소득 현황

(단위: %)

구분		본인 소득 수준				합계(N)	χ^2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출신국적	중국(한족)	18.1	26.0	39.0	16.9	100.0(1,110)	347.5***
	중국(조선족)	20.0	23.5	36.0	20.6	100.0(1,231)	
	일본	33.9	35.5	16.4	14.3	100.0(440)	
	베트남	25.3	43.2	27.4	4.1	100.0(865)	
	필리핀	21.9	42.7	27.7	7.7	100.0(737)	
	기타아시아 및 그 외	22.6	36.1	27.7	13.6	100.0(1,190)	
남편 소득	150만원 미만	24.6	38.1	29.0	8.3	100.0(1,742)	141.8***
	150~200만원 미만	20.5	34.3	32.8	12.4	100.0(1,227)	
	200~250만원 미만	22.3	31.9	30.9	15.0	100.0(903)	
	250만원 이상	28.7	24.6	25.9	20.9	100.0(1,001)	
집 소유 형태	월세	17.3	34.8	34.6	13.3	100.0(1,600)	157.4***
	전세	15.1	29.8	36.6	18.6	100.0(1,126)	
	자가	28.1	33.8	26.4	11.8	100.0(2,847)	
도시 거주	있음	16.0	33.1	34.2	16.7	100.0(3,340)	242.8***
	없음	31.8	33.5	25.8	8.9	100.0(2,233)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16) 결혼이민자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의 경우를 보면 남편이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이민자 본인의 소득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절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앞 절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한국생활관련,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별로 취업률 및 소득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들은 변인이 하나인 분석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인적자본 이론 및 그와 관련된 수많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력은 소득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학력 변수가 소득함수 추정에서 누락될 경우 이 변수가 빠진 추정량은 과소추정(under-estimate)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취업 및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능한 통제하여 추정한다.

1. 취업확률함수 추정

〈표 4-7〉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취업확률을 프로빗 모델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 나타내고 있는 숫자는 계수(coefficent)가 아닌 한계효과(marginal effect)로서 어떤 특정한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는 종속변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지면 관계로 t-값(t-value)은 생략하고 유의성의 수준만을 별표(asterisk)로 표시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취업확률의 추정모델을 나타내면,

$$y_i^* = \beta H_i + \gamma K_i + \delta D_i + \epsilon_i \cdots \cdots (4-1)$$

where

$$y = 1 \text{ if } y_i^* > 0$$

$$y = 0 \text{ if } y_i^* \leq 0$$

이 된다. 여기에서 y_i^* 는 잠재 변수(latent variable)로서 관찰되지 않는 변수를 나타내고 만일 양의 값을 갖는다면 종속변수는 1의 값, 음 또는 0의 값을 갖는다면 종속변수는 0의 값을 갖게 된다. H_i 는 인적자본 변수, K_i 는 한국생활 변인, D_i 는 그 이외에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를 나타낸다.

추정 모델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은 인적자본요인만을 도입한 모델, 두 번째는 인적자본 요인에 한국생활관련 변인을 도입한 모델, 세 번째는 나머지 인구사회학적·경제적 요인을 도입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단계적(stepwise) 모델을 구성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각 변인 군별 영향을 파악한 후,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를 통제하고 난 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모델 구성은 뒤의 장 분석에서도 동일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 구성이 적합한지 아닌지 Wald test로 검증한다. 간단하게 이 테스트에 대하여 설명하면, 특정한 변수의 영향이 제로(0)라는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카이 스퀘어 통계량으로 검정하여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그 변수는 그 모델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변수를 포함한 모델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은 모델보다 적합한 모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귀무가설을 표현하면,

$H_0 : R\beta = 0$ 이 되고, 여기에서 R 은 $h \times K$ 행렬을 나타내며 β 는 추정식의 계수이며 $k \times 1$ 행렬을 나타낸다. 즉, 귀무가설은 $\beta_2 = 0, \dots, \beta_j = 0$ (β_1 은 상수항)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통계량으로 기각역이 판단된다.

$$\chi_{Wald}^2 = (R\hat{\beta})' (R I_F(\hat{\beta})^{-1} R)^{-1} R\hat{\beta} \sim \chi^2(j) \dots \dots (4-2)$$

여기에서 $\hat{\beta}$ 는 최우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된 계수를 의미하고, $I_F(\cdot)$ 는 피셔의 정보 행렬(Fisher's information matrix)¹⁷⁾을 의미하며 스코어(score)¹⁸⁾의 분산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7〉의 모델 1을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그리고 자국에서의 취업경험이 있을수록 취업확률이 증가하며, 건강이 좋을수록 취업확률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서 도입했던 건강 변수의 결과가 반대로 되어 건강이 좋을수록 취업확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건강 변수보다는 한국생활관련 변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생활관련 변인을 도입했을 때 건강 변수의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이며, 이 상쇄 효과의 크기가 부호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결혼이민자의 취업은 인적자본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민 온 국가에서의 생활관련 요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모델 2에서 추가로 도입된 한국생활관련 변인의 결과를 보면,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취업률은 감소하고, 차별을 경험할수록, 한국 국적을 보유할수록, 체류기간이 길수록 취업확률은 증가한다. 그 중 차별 경험 변수는 역인과 관계(reverse causality)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차별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동시적 내생성(simultaneous endogeneity)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생활의 어려움도 유사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적어지게 되면, 한국 생활이 어렵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7) 피셔의 정보 행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Fisher(1925)를 참조.

18) 확률밀도함수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파라미터로 편미분한 결과를 의미한다.

(표 4-7)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취업확률 추정(전체, 한계효과)

한국 취업유무(probit)				
구분		model1	model2	model3
인적 자본 요인	학력(Ref. 고졸)			
	중졸이하	0.076**	0.154***	0.081*
	대졸이상	0.016	-0.036	0.059
	한국어 능력(Ref. 중급)			
	상급	0.276***	0.078*	0.010
	하급	-0.254***	-0.086**	-0.160***
	자국에서의 취업경험(있음=1)	0.075*	0.044	-0.056
건강(좋은=1)	-0.054*	0.065*	0.151***	
한국생활 관련 변인	한국생활의 어려움(있음=1)		-0.189***	-0.086 †
	다문화 수용성		0.006	-0.004
	차별 경험(있음=1)		0.141***	0.156***
	국적취득여부(있음=1)		0.202***	0.172***
	체류 기간		0.089***	0.081***
	체류 기간 제곱		-0.002***	-0.002***
인구 사회학적 · 경제적 변인	연령			0.025***
	출신국(Ref.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중국(한족)			0.000
	중국(조선족)			-0.052
	베트남			0.265***
	필리핀			0.047
	일본			-0.475***
	남편 소득(Ref.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0.209***
	200~250만원 미만			-0.247***
	250만원 이상			-0.449***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0.043
	자가			-0.034
자녀수				
0~6세 미만			-0.362***	
6~12세 미만			-0.086**	
도시거주(살고 있음=1)			-0.192***	
상수항	0.019	-0.538***	-0.844***	
log-likelihood	-7124.099	-6802.826	-5538.999	
chi2 (d.f.)	268.638	911.183	1783.994	
	(6)	(11)	(22)	
Observations	10,490	10,490	9,287	

주: † p<0.1, * p<0.05, ** p<0.01, *** p<0.001.

여기에서 체류 기간의 제곱항을 도입한 것은, Chiswick and Hurst (2000)의 연구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더 이상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본 분석의 결과에서도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조 증가를 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한다는 결과로 보아 Chiswick and Hurst(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의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이민국에서의 취업은 이민초기에는 생활 및 언어 등에 차차 적응함에 따라 체류기간과 취업가능성 사이 정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체류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취업가능성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을 보여준다.

모델 3은 모델 2에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을 추가적으로 도입한 모델이다. 인적자본, 한국생활관련 변인은 큰 변화가 없고, 새로운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확률은 증가한다. 출신 국적별로 보면, 기타 아시아 및 그 외의 나라와 비교하여, 베트남은 증가하는 반면, 일본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 2절의 교차 분석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며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효과는 명확히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편 소득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혜정·이규용 (2012)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의 취업은 보조적인 소득원으로서의 역할(additive worker)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소득함수 추정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집의 소유형태는 특별히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자녀의 수는 0~5세 미만과 6~12세 미만의 자녀가 모두 결혼이민자의 취업확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계 효과를 살펴보면, 0~6세 미만의 자녀수가 한 명 증가하면, 취업확률은 약 35% 감소하고, 6~12세 미만의 자녀수가 한 명 증가하면 8%의 취업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자녀의 수는 결혼이민자의 취업확률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일반적으로 군부보다는 도시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노동 참여가 높은 경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미국의 선행 연구에서도 도시에 사는 경우 여성의 노동 참여가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ibar 1992, 1995). 그러나 본 분석의 결과는 그 반대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 여성의 노동 참여에 대한 연구도 본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김현숙 2005; 양승주 1995). 이와 관련된 일본의 연구에서도 본 분석과 동일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군부쪽은 어린이집의 대기 아동 수가 적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통근하는데 있어서 도시보다 장애가 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大石 2003). 우리나라의 경우도 군부보다는 도시의 대기 아동 수가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양미선·임지희 2012), 도시보다 군부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노동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경향이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강혜정·이규용(2012)에서는 농가에 거주할수록 취업이 감소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분석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8〉 모델 적합성 테스트(Wald test statistic)

구분	model1 - model2	model2 - model3
χ^2 statistic	623.4***	873.5***

주: † p<0.1, * p<0.05, ** p<0.01, *** p<0.001.

19) 표에서는 게재하지 않고 있지만, 13~18세 미만, 18세 이상의 자녀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8〉은 식(4-2)를 계산한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모델 1에 한국 생활 관련변인을 도입한 모델 2의 카이 제곱 통계량은 623.4로 0.1%의 유의수준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모델 2의 한국생활 관련변인이 도입된 모델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하게 모델 3도 0.1%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모델 3이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표 4-7〉의 결과에서는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의 결과 중,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에 따른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영향이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지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표 4-7〉과 동일한 모델을 출신국가 별로 추정을 해 보았다(표 4-9 참조). 출신국별 추정은 결혼이민자 수가 많은 대표 출신국²⁰⁾, 중국(한족),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에 대한 추정을 하였고, 이들 나라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의 추정은 제외하였다²¹⁾.

추정결과를 보면, 전체 추정(표 4-7의 모델 3)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나, 국가별 추정에서는 필리핀, 일본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고, 중국과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취업확률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것은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 학력과 취업확률이 음의 관계에 있다고 유추되고 또한 그 유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필리핀,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학력이 조건이 되는 직업, 예를 들어 외국어 강사, 또는 통역 및 번역 등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학력과 상관 없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규용 외

20) 중국의 결혼이민자에는 조선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족과 조선족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는 민족이지만, 편의상 출신국으로 분류한다.

21)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의 영향은 나머지 국가와 전체 추정의 결과로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

(2011)의 연구를 보면, 필리핀,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업종 분포는 주로 사무직이 많은 반면, 몽골, 태국 등은 서비스업 및 생산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9〉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취업확률 추정(출신국별, 한계효과)

		한국 취업유무(probit)				
구분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인적 자본 요인	학력(Ref. 고졸)					
	중졸이하	0.066	0.025	0.006	0.065	-0.743 †
	대졸이상	-0.103	0.032	-0.222	0.248**	0.293**
	한국어 능력(Ref. 중급)					
	상급	-0.010	0.017	0.204	-0.019	0.148
	하급	-0.079	-0.223	-0.050	-0.131	-0.013
	자국취업경험(있음=1)	-0.128	0.037	-0.042	-0.053	-0.069
건강 (좋은=1)	0.202**	0.297***	-0.004	0.077	0.252*	
한국 생활 관련 변인	한국생활어려움(있음=1)	-0.057	-0.158 †	0.077	-0.111	-0.055
	다문화 수용성	-0.023	-0.033	-0.004	0.020	0.043
	차별 경험(있음=1)	-0.023	0.110	0.303***	0.083	-0.025
	국적취득여부(있음=1)	0.087	0.132	0.099	0.052	0.146
	체류 기간	0.022	0.007	0.375***	0.258***	0.139***
	체류 기간 제공	0.000	0.000	-0.015***	-0.009***	-0.004***
인구 사회 학적 · 경제적 변인	연령	0.030***	0.027***	0.018*	-0.002	0.003
	남편 소득(Ref.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0.256**	-0.103	-0.153 †	-0.035	-0.453**
	200~250만원 미만	-0.294**	-0.250*	-0.212*	-0.261*	-0.459**
	250만원이상	-0.447***	-0.306**	-0.513***	-0.230*	-0.786***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0.057	0.044	0.055	-0.055	-0.003
	자가	-0.066	0.101	-0.006	-0.096	0.160
	자녀수					
	0~6세 미만	-0.508***	-0.553***	-0.473***	-0.313***	-0.645***
6~12세 미만	-0.035	-0.044	-0.328**	-0.188**	-0.081	
도시거주(살고 있음=1)	-0.095	-0.086	-0.308***	-0.112	-0.264*	
상수항	-0.336	-0.453	-1.109***	-0.610 †	-0.702	
log-likelihood	-960.543	-860.665	-987.458	-711.802	-423.607	
chi2 (d.f.)	319.413 (20)	276.714 (20)	396.919 (20)	285.514 (20)	222.819 (20)	
Observations	1,642	1,552	1,721	1,234	772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한국어 능력은 전체 추정에서 음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국가별 추정에서는 유의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한족),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은 특별히 한국어 능력이 장애가 되어 취업률에 변화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생활이 어려울수록 취업확률이 감소하는 것은 주로 중국 출신 조선족 결혼이민자들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인 것으로 보이고²²⁾, 한국어 능력 결과와 유사한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수록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의 취업률이 증가한다고 유추된다.

그 이외에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의 영향은 모든 국가가 전체 추정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녀수의 영향은 0~6세 미만 자녀수의 경우 일본이 가장 크고, 필리핀이 가장 작지만 모두 강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하여, 6~12세 미만 자녀수는 베트남과 필리핀만이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 거주 여부는 베트남과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만이 전체 결과(표 4-8 참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앞의 해석을 따르면, 베트남과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가 아이로 인하여 취업행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베트남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베트남, 필리핀,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한족과 조선족의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베트남, 필리

22)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취업유무와의 관계도 앞서 언급한 역인과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즉, 취업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적어지게 되면, 한국 생활이 어렵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핀, 일본 여성은 동일하게 체류기간이 취업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필리핀과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에게는 대졸이상의 학력이 영향을 미쳤고,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는 건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베트남 여성은 차별 경험이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출신의 결혼이민자의 취업에는 건강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필리핀과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는 학력이 중요시되는 직업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졸이상의 학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출신 결혼이민자는 서비스나 생산직 또는 단순노무와 같이 체력이나 건강이 더욱 요구되는 직업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한 요인일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과 필리핀 이외의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미취학 자녀가 존재할 경우 취업확률이 감소하지만,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학령기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취업확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소득함수 추정

소득함수는 최소자승법으로 추정을 하며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_i = \alpha + \beta H_i + \gamma K_i + \delta D_i + \epsilon_i \cdots \cdots (4-2)$$

where

$$Y = Y_i \text{ if } y_i^* > 0$$

여기에서 Y_i 는 소득을 나타내는데 이 소득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만 관찰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H_i , K_i , D_i 의 변수들은 이전과 같다. 단, D_i 에서 자녀수에 관한 변수는 제외한다.

〈표 4-10〉은 취업확률함수 추정과 동일한 변수로 결혼이민자의 소득에 대하여 OLS 모델로 추정한 것이다. 지면 관계로 t-값은 생략하고 유의성의 수준만을 별표로 표시하고 있다.

〈표 4-10〉 결혼이민자의 소득함수 추정(전체)

소득(OLS)				
구분		model1	model2	model3
인적 자본 요인	학력(Ref. 고졸)			
	중졸이하	-0.230	-0.185	-0.222
	대졸이상	1.823***	1.732***	1.779***
	한국어 능력(Ref. 중급)			
	상급	1.211***	0.945***	0.091
	하급	-0.331 †	-0.284	-0.096
	건강(좋은=1)	0.221	0.236	0.523**
한국 생활 관련 변인	한국생활의 어려움(있음=1)		-1.605***	-1.017***
	다문화 수용성		0.042	0.008
	차별 경험(있음=1)		0.439**	0.265
	국적취득여부(있음=1)		-0.407*	-0.500**
	체류 기간		0.033*	0.045**
인구 사회학적 · 경제적 변인	연령			0.032**
	출신국(Ref.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중국(한족)			0.899***
	중국(조선족)			0.876**
	베트남			-0.159
	필리핀			-0.801**
	일본			-1.472***
	남편 소득(Ref.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0.412*
	200~250만원 미만			0.625**
	250만원 이상			1.385***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0.429 †	
자가			-0.230	
도시거주(살고 있음=1)			1.246***	
상수항	9.473***	10.510***	7.471***	
R-squared	0.033	0.042	0.087	
Observations	5,573	5,573	4,873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결과를 살펴보면, 세 모델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한국어 능력은 모델 1과 2에서는 강한 양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지만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을 추가한 모델 3에서는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 즉, 한국어 능력은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과 상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아마도 네 이티브 수준의 한국어 구사를 하는 중국 출신 조선족 결혼이민자의 영향에 흡수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생활관련 변인 중 한국 국적 취득 여부는 소득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정주할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도가 뒷받침 되고 있는 결혼이민자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체류기간은 소득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 오래 체류를 할수록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힘이 높아지거나, 유무형의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의 영향을 보면, 연령은 소득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출신국은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이 양의 영향이 있지만, 필리핀, 일본은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의 소득은 제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개월 평균 소득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근무시간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길 경우 소득이 많아질 수 있다. 즉, 주로 사무직 및 언어 관련 일에 종사하는 필리핀,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는 동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소득(임금율, wage rate)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²³⁾.

23) 본 분석에 사용된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는 근무시간이 조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개월간의 소득평균을 종속변수로 한 본 추정에 도입할 수 없었다. 만일 이 변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난 3개월간 이직을 하지 않았다는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 근무시간이 지난 3개월간의 평균 근무시간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이민자의 소득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분석한 취업확률의 경우와 반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취업확률의 결과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혼이민자가 취업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는 것은 남편의 소득에 영향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많은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의 결혼에도 Becker(1991)가 주장한 동위혼 assortative mating, 즉 비슷한 속성을 가진 이들이 결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시에 거주할수록 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표 4-11>의 출신 국적별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추정 결과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력이 유의하게 양의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을 보면, 중국 출신 한족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아짐에 반하여,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추정의 모델 3에서 한국어 능력 변수의 영향이 소멸된 것은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과의 상관성 보다는 국가별 영향의 차이가 상쇄되어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중국 출신 한족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능력이라는 인적자본이 인정되지 않는 업종, 즉 생산직 또는 단순노무와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의 영향을 보면, 연령은 주로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가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이민자의 소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남편 소득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고, 특히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집의 소유형태가 자가일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은 도시에 거주할수록 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1〉 결혼이민자의 소득함수 추정(출신국별)

		소득(OLS)				
구분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인적 자본 요인	학력(Ref. 고졸)					
	중졸이하	0.234	-0.789*	-0.269	0.242	-1.601
	대졸이상	1.722**	2.522***	1.144 †	0.925*	1.945*
	한국어 능력(Ref. 중급)					
	상급	-1.214**	0.092	-1.239*	-0.212	2.643**
	하급	-0.635	0.088	-0.308	-0.052	-0.532
	건강(좋은=1)	0.829*	0.144	0.542 †	-0.266	0.587
한국 생활 관련 변인	한국생활어려움(있음=1)	-0.910 †	-0.587	-0.051	-0.184	-2.913*
	다문화 수용성	-0.032	0.129	-0.155*	0.146	0.082
	차별 경험(있음=1)	0.057	0.102	0.239	0.392	-0.578
	국적취득여부(있음=1)	-0.063	-0.765 †	0.009	0.036	1.108
	체류 기간	0.043	-0.002	0.078	0.013	-0.128
인구 사회 학적 · 경제적 변인	연령	0.052*	0.048*	0.013	-0.011	0.016
	남편 소득(Ref.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0.069	0.590	0.056	1.074*	0.398
	200~250만원 미만	1.089*	0.879 †	-0.001	0.674	1.891 †
	250만원 이상	1.402**	0.234	0.175	2.476***	2.354*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0.294	0.830 †	0.388	-0.452	0.443
자가	-0.674	-0.124	-0.616*	0.268	0.539	
도시거주(살고 있음=1)	1.198**	1.498***	1.040***	1.092**	1.594*	
상수항		8.081***	7.794***	8.019***	7.392***	9.206*
R-squared		0.047	0.068	0.059	0.038	0.111
Observations		953	1,027	786	649	390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제5장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2): 생활만족도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제3절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



5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2): << 생활만족도

제1절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생활 만족도는 소득, 교육 등 개인의 속성과 관련이 있으며(Amit 2010), 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Bohnke(2008)는 2003년에 실시된 유럽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EQLS)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럽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분석을 하였는데, 1인당 GDP, 평균 수명 등이 생활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쳤고, 실업률은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Bohnke(2008)의 연구가 거시적 관점에서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반면, Bonini(2007)는 미시적으로 생활 만족도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1999년과 2003년에 이루어진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WVS) 데이터를 이용하여 46개 국가의 생활 만족도를 분석하고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두 연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인 반면, Amit(2010)는 2007년에 실시된 루핀 조사(Ruppin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양에서 이스라엘에 이민 온 자들과 구소련 지역에서 온 자들을 비교하고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양에서 온 자들이 구소련 지역에서 온 자들 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히브리어가 유창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

고 Gokdemir and Duumludag(2012)의 연구는 네덜란드에 이민 온 터키인과 모로코인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조사를 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모로코인에게 있어서 소득은 생활 만족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터키인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분석은 크게 전국 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와 직접 조사한 데이터로 분석한 연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²⁴⁾, 전자로는 Lee(2013), Sung et al.(2013), 후자로는 성도경·이지영(2010), 유은광 외(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소규모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도경·이지영(2010)의 연구에서는 포항시에 사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조사를 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생활 만족도는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높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유은광 외(2012)는 서울, 경기(하남시, 용인시), 경상남도(진주), 부산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을 대표할 수 있고 모집단과의 편향이 적다고 생각되는 전국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Lee(2013)의 연구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족별 만족도를 보면, 조선족 중국인에 비하여 한족 중국인과 일본인들의 생활 만족도가 낮는데 특히 일본인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반면, 베트남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Sung et al.(2013)의 연구와 Lee(2013)의 연구는 「2009 전국 다문화 실태 조사」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점과 주제도 유사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유사하지만, 분석 방

24) 여기에서 언급한 전국 조사는 「2009 전국 다문화 실태 조사」 데이터를 가리킨다.

법에 있어서 전자가 순서 로짓 모델(ordered logit model)로 분석을 한 반면, 후자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으로 분석을 한 것이 다른 점이다. 그 중 순서 모델로 추정된 Sung et al.(2013)의 결과를 보면,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소규모 샘플로 의한 편향을 보완하고자 대규모 샘플로 사용하여, 생활만족도 분석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순서 로짓 모델로 추정을 한다.

제2절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표 5-1〉은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쁘다는 비율(나쁘다+매우 나쁘다=5.8%)보다 좋다는 비율이 크고(매우 좋다+좋다=57.3%), 보통이라는 비율도 작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36.9%).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분포가 유사하지만, 고졸의 경우는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보다 보통이라는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능력별로 보면, 좋다는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한국 국적 유무에 따른 생활 만족도의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은데, 없는 경우의 생활 만족도가 약간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력, 한국어 능력, 한국 국적 유무와는 달리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와 매우 큰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강이 좋을수록 생활만족도도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5-1〉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요인별 생활 만족도

(단위: %)

구분	생활 만족도					합계(N)	x ²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전체	26.7	30.6	36.9	4.6	1.2	100.0(5,813)		
학력	중졸이하	28.2	30.8	35.3	4.6	1.1	100.0(1,773)	17.4*
	고졸	26.6	28.8	39.1	4.2	1.2	100.0(2,559)	
	대졸이상	25.2	33.4	35.0	5.1	1.4	100.0(1,481)	
한국어 능력	상급	32.1	25.1	36.6	4.7	1.6	100.0(1,224)	43.5***
	중급	26.2	30.6	38.0	4.1	1.1	100.0(2,455)	
	하급	24.2	33.8	35.8	5.1	1.2	100.0(2,134)	
한국 국적	있다	25.9	30.6	37.3	5.1	1.2	100.0(4,510)	18.4**
	없다	29.7	30.7	35.5	2.8	1.3	100.0(1,303)	
건강 상태	매우 좋다	41.7	29.4	26	2.3	0.6	100.0(2,560)	1.1e+03***
	좋다	14.6	47.4	33.7	3.6	0.8	100.0(1,265)	
	보통이다	16.9	21.9	54.4	5.6	1.3	100.0(1,482)	
	나쁘다	10.4	21.6	50.1	14.8	3.1	100.0(393)	
	매우 나쁘다	9.7	15.9	44.3	17.7	12.4	100.0(113)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표 5-2〉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별로 생활만족도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클수록 생활만족도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자기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자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 경험은 없는 것이 생활만족도가 높고, 한국 국적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별 생활 만족도

(단위: %)

구분		생활 만족도					합계(N)	χ^2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한국생활 어려움	있다	24.7	30.9	38.3	4.9	1.3	100.0(5,266)	141.5***
	없다	46.8	28.2	23.8	1.1	0.2	100.0(547)	
다문화 수용성	전혀 그렇지 않다	34.0	22.4	37.9	3.9	1.8	100.0(1,474)	224.5***
	그렇지 않다	20.6	37.5	35.6	5.8	0.5	100.0(744)	
	약간 그렇지 않다	20.1	34.8	38.5	5.2	1.5	100.0(816)	
	약간 그렇다	21.2	32.6	40.9	4.7	0.6	100.0(1,279)	
	그렇다	24.5	39.3	31.3	4.3	0.7	100.0(768)	
	매우 그렇다	37.8	22.8	33.5	4.0	1.9	100.0(732)	
차별 경험	있다	20.8	28.0	43.2	6.2	1.9	100.0(2,122)	116.8***
	없다	30.1	32.1	33.3	3.6	0.8	100.0(3,691)	
한국 국적	있다	23.4	25.3	43.7	5.9	1.7	100.0(1,685)	76.0***
	없음	28.1	32.8	34.1	4.0	1.0	100.0(4,128)	
체류 기간	0~4년	33.3	33.1	30.0	2.8	0.8	100.0(2,085)	167.8***
	4~7년	25.0	32.0	37.9	3.9	1.3	100.0(1,601)	
	7~14년	22.6	26.4	43.0	6.6	1.4	100.0(1,552)	
	14년 이상	19.0	28.9	42.8	7.3	2.1	100.0(575)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표 5-3〉은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별로 생활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과 필리핀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베트남: 61.9%, 필리핀: 61.1%), 중국 출신의 조선족과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중국 조선족: 48.7%, 일본: 51.8%). 그리고 남편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집의 소유형태별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표 5-3〉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별 생활 만족도

(단위: %)

구분		생활 만족도					합계(N)	x ²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국적	중국(한족)	27.4	27.9	37.4	5.3	2.0	100.0(922)	115.42***
	중국(조선족)	25.2	23.5	44.3	5.0	2.0	100.0(741)	
	일본	16.4	35.4	37.6	9.2	1.5	100.0(543)	
	베트남	29.9	32.0	33.9	3.2	0.9	100.0(1,174)	
	필리핀	28.9	32.2	33.8	3.9	1.1	100.0(736)	
	기타아시아 및 그 외	27.2	32.0	36.6	3.7	0.6	100.0(1,697)	
남편 소득	150만원 미만	22.2	26.9	43.9	5.3	1.7	100.0(1,232)	115.42***
	150~200만원 미만	24.8	28.7	40.6	5.0	0.9	100.0(1,292)	
	200~250만원 미만	26.7	34.4	34.8	3.0	1.0	100.0(1,022)	
	250만원 이상	34.1	33.8	28.8	2.8	0.5	100.0(1,609)	
집 소유 형태	월세	23.8	28.8	40.0	5.9	1.5	100.0(1,516)	38.3***
	전세	23.7	32.5	38.1	4.7	0.9	100.0(1,188)	
	자가	29.3	30.8	34.9	3.9	1.2	100.0(3,109)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제3절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추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LS가 아닌 순서 로
짓으로 추정을 한다.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y_i^* = \beta H_i + \gamma K_i + \delta D_i + \epsilon_i \cdots \cdots (5-1)$$

where

$$\begin{aligned} y &= 1 \text{ if } y_i^* \leq 0, \\ y &= 2 \text{ if } 0 \leq y_i^* \leq \mu_1 \\ y &= 3 \text{ if } \mu_1 \leq y_i^* \leq \mu_2 \\ y &= 4 \text{ if } \mu_2 \leq y_i^* \leq \mu_3 \\ y &= 5 \text{ if } \mu_3 \leq y_i^* \leq \mu_4 \end{aligned}$$

기본 추정식은 제4장의 식(4-1)과 동일하지만 잠재 변수의 값이 두 개(binary)가 아닌 여러 개(multinomial)이고 또한 순서적(ordinal)이다. 식(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 변수는 5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곧 생활만족도를 5점 척도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또한 본 추정은 오즈비(odds ratio)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즈비에 대해서는 제7장 3절의 회귀분석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앞서 제4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취업확률함수를 추정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비자발적 실업 인구의 생활만족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취업의향이 K_i 에 포함된다. 제4장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본 추정 결과도 t-값은 생략하고 유의성의 수준만을 별표로 표시하고 있다.

〈표 5-4〉는 식(5-1)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먼저 인적자본 요인을 보면, 학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국어 능력은 인적 자본 요인 이외의 변수를 도입하면 할수록 더욱 유의성이 강해지는데,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건강은 기술통계분석에서 살펴봤다시피 건강이 좋을수록 생활만족도도 매우 유의하게 높아진다.

110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표 5-4〉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추정(전체)

생활만족도(Ordered logit odds ratio)				
구분		model1	model2	model3
인적 자본요인	학력(Ref. 고졸)			
	중졸이하	1.136*	1.078	1.143*
	대졸이상	1.028	1.045	0.944
	한국어 능력(Ref. 중급)			
	상급	1.193**	1.284***	1.552***
	하급	0.919	0.842**	0.846**
	건강(좋은=1)	3.420***	2.977***	2.727***
한국 생활 관련 변인	한국생활의 어려움 (있음=1)		0.402***	0.412***
	다문화 수용성		1.036*	1.043**
	차별 경험(있음=1)		0.717***	0.729***
	국적취득여부 (있음=1)		0.749***	0.770***
	체류 기간		0.962***	0.971***
	취업 의향 (있음=1)		0.767***	0.799**
인구 사회학적 · 경제적 변인	연령			0.992 †
	출신국(Ref.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중국(한족)			0.896
	중국(조선족)			0.727**
	베트남			0.982
	필리핀			1.207*
	일본			0.818 †
	남편 소득(Ref.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1.175*
	200~250만원 미만			1.383***
	250만원 이상			2.011***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1.039	
자가			1.181*	
도시거주(살고 있음=1)			0.991	
log-likelihood		-7145.467	-6920.438	-6001.526
chi2 (d.f.)		554.534 (5)	839.681 (11)	842.887 (22)
Observations		5,813	5,743	5,096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한국생활 관련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차별 경험을 받을수록, 국적을 가지고 있을수록, 체류 기간이 길수록, 취업 의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감소하고,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증가한다.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는 감소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한국생활이 길어지면서 더 나은 생활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모국보다 생활환경이 좋은 한국에서 생활이 처음에는 대체로 만족하였지만, 점차 시간이 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예를 들어 자신들이 차별을 받거나,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출신 조선족과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반면, 그 이외의 국가들은 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 결과는 Lee(2013)의 연구에서 지적한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것과 유사하지만, 중국 출신 조선족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것이 다르고, 특히 베트남이 아닌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Lee(2013)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2009년 데이터와의 시간적 차이, 또는 추정법의 차이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남편 소득이 높을수록, 집의 소유형태가 자가일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 특히 남편의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의 남편을 둔 결혼이민자보다 약 100%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만족도 추정모델도 식(4-2)로 계산된 통계량으로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표 5-5>를 보면, 모델 2와 모델 3 모두 0.1%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두 모델이 모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표 5-5〉 모델 적합성 테스트(Wald test statistic)

구분	model1 - model2	model2 - model3
χ^2 statistic	285.8***	138.1***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6〉은 출신국별로 추정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학력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어 능력은 전체 추정과 유사하게 여러 국가에서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한국어와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 추정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하급일 경우 유의한 영향을 보였지만, 국가별 추정에서는 유의성이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면,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의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가 강한 양의 관계에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차별을 받으면 대부분 국가의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데 비하여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별 경험은 중국 한족, 베트남,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키는데 비하여, 중국 조선족,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한국 국적이 있을수록 중국 출신 한족 결혼이민자만이 생활만족도가 감소하고,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 출신 한족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편 소득이 많을수록 대부분 국가의 결혼이민자가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출신 한족 결혼이민자만이 집의 소유 형태가 자가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5-6〉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추정(출신국별)

생활만족도(Ordered logit odds ratio)						
구분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인적 자본 요인	학력(Ref. 고졸)					
	중졸이하	1.120	1.130	0.967	1.421	0.520
	대졸이상	0.826	1.232	1.099	1.286	0.767
	한국어 능력(Ref. 중급)					
	상급	1.462*	1.384†	2.537**	3.157***	1.443
	하급	0.891	0.844	0.960	0.790	0.777
	건강(좋은=1)	2.000***	2.888***	2.497***	3.217***	2.847***
한국 생활 관련 변인	한국생활어려움(있음=1)	0.431***	0.309***	0.350***	0.565	0.377**
	다문화 수용성	1.099*	1.104*	1.065†	1.005	0.945
	차별 경험(있음=1)	0.726*	0.786	0.698**	0.814	0.646*
	국적취득여부(있음=1)	0.650**	0.758	1.043	0.932	1.200
	체류 기간	0.962*	1.000	0.917**	0.959	1.007
	취업 의향(있음=1)	0.653*	1.090	1.200	0.869	0.363***
인구 사회 학적 · 경제적 변인	연령	0.985	0.996	0.982	0.975	0.980
	남편 소득(Ref.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1.579*	0.919	1.095	1.175	1.570
	200~250만원 미만	1.817**	1.140	1.257	1.170	1.894*
	250만원 이상	2.249***	1.595*	2.029***	1.743**	2.840***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1.431†	1.108	0.864	0.802	0.916
자가	1.573**	1.105	1.074	1.057	0.957	
도시거주(살고있음=1)	0.872	0.890	0.982	0.967	1.163	
log-likelihood		-958.398	-683.078	-1257.300	-774.281	-553.778
chi2 (d.f.)		144.437 (17)	125.438 (17)	140.704 (17)	117.256 (17)	120.531 (17)
Observations		798	604	1,072	659	472

주: 1)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생활만족도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들에 대해 서인데, 이들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생활만족도 수준이 비교적 높고, 한

국 생활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생활만족도가 쉽게 낮아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필리핀 이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한국 생활이 열악해지면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중국 출신 한족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는 한국 생활이 길어질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한족 출신 결혼이민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생활만족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실태를 앞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6장

결혼이민자 자녀의 인구자질(1): 언어 능력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 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제3절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 능력의 결정요인



6

결혼이민자 자녀의 << 인구자질(1): 언어 능력

제1절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결혼이민자 자녀의 인구자질 중 하나인 자녀의 언어 능력에 대해 살펴본다. 언어는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아동의 성장과 지적발달에 중요하다. 특히, 학령기가 되면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이나 학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정현주 2008; Kude 2008). 자녀들의 학교적응 및 학업능력은 고등교육의 진학이나 사회 진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창 성장 중인 결혼이민자 자녀들에게는 언어 능력이 그들의 중요한 인구자질이 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의 언어발달이 일반가정의 아이들의 언어발달 수준과 비교해 낮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정예리·이숙희 2010; 황상심 2008).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자녀의 언어 능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자녀의 인구자질 향상과 앞으로 미래 사회의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외 선행연구들은 이민 2세 및 3세의 모국어의 사용 능력의 퇴화와 이민국가의 언어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Arriagada 2005), 이민국가 언어의 사용이 자녀의 교육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Portes 1999; Portes and MacLeod 1999), 인종 및 가족 속성에 따른 자녀의 언어 능력에 관한 연구 (Espenshade and Fu 1997; Espinosa and Massey 1997)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민가정의 아이들의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해 왔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이 일반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언어발달 수준보다 낮다는 것에서 시작해(정예리·이숙희 2010; 황상심 2008),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유아의 발달과정에서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 사용언어를 간과할 수 없다. 결혼이민자인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기를 때에는 한국어 능력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자신의 모국어를 자녀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박지윤·석동일 2007).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들로 한국인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경우 결혼이민자 여성이 주된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언어 능력은 그 자녀의 언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어머니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그 자녀 역시 언어 능력에 문제를 겪게 되고 그에 따라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지적되어 왔다(오성배 2007; 조영달 2006). 최현욱·황보명(2009)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자녀의 한국어 능력간의 상관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한국체류기간이 자녀의 언어발달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황상심 2008).

반면, 김안나·권민균(2010)의 연구를 보면, 샘플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지만²⁵⁾, 어머니의 언어 능력 외의 다른 속성이 자녀의 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의 유무는 유아의 언어 능력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학력을 고졸이

25)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자녀 가운데 만 2~6세인 유아기 남녀 아동 31명(남아 15명, 여아 16명)과 그 엄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과 그 미만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어머니의 학력은 이들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김경령 2012).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자녀에게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이 대졸이상과 고졸그룹 간, 그리고 대졸이상과 중졸이하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오성숙·이은경 2012)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특성과 자녀의 언어 능력 사이에 대한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다.

아동과 어머니가 가진 특성이외의 변인들도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을 살펴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보다 농촌이나 소도시의 7, 8세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수용어휘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고, 구문이해능력은 7세 아동들의 경우에만 대도시보다 농촌이나 소도시 지역의 다문화가정 아동이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이은경·김화수 2011). 반면, 거주 지역에 따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 차이를 비교한 또 다른 연구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정예리·이숙희(2010)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따른 구분 없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에 비하여 낮았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유아만 비교해 보았을 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유아보다 언어발달이 더 낮을 것을 볼 수 있는 등 거주 지역별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들 또한 혼재되어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는 한국어 뿐 아니라 어머니 모국어에 대한 능력 또한 함께 키워 나아갈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이중언어 능력은 학습이나 직업 등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인구자질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제2절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 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 능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능력과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고, 어떤 요인이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언어 능력은 자녀 본인의 속성은 물론 부모의 속성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 속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1. 자녀의 한국어 능력

〈표 6-1〉은 어머니의 인적자본요인에 따른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은 상급이 대부분이고 중급을 합하면 그 비율이 약 97%로 대체로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하급의 비율이 적어지는데, 그 이외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별로 보면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자녀의 한국어 능력도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2〉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한국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의 한국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어렵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문화 수용성과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차별 경험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는 반면, 어머니의 한국 국적을 가지

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가 한국에 체류한 기간과 한국어 능력은 뚜렷한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표 6-1〉 어머니의 인적자본요인에 따른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능력

(단위: %)

구분		한국어 능력			합계(N)	χ^2
		상급	중급	하급		
전체		79.4	17.4	3.2	100.0(3,739)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77.0	17.5	5.5	100.0(599)	12.0*
	고졸	79.8	17.4	2.9	100.0(1,798)	
	대졸 이상	79.9	17.4	2.7	100.0(1,342)	
어머니 한국어 능력	상급	86.0	12.4	1.6	100.0(1,259)	77.8***
	중급	76.2	20.9	2.9	100.0(1,679)	
	하급	75.4	18.1	6.5	100.0(801)	
어머니 건강 상태	매우 좋다	82.3	14.5	3.2	100.0(1,145)	25.9**
	좋다	81.1	16.3	2.6	100.0(911)	
	보통이다	75.4	21.1	3.5	100.0(1,311)	
	나쁘다	80.3	16.7	3.0	100.0(305)	
	매우 나쁘다	77.6	14.9	7.5	100.0(67)	

주: 1)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2〉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한국어 능력

(단위: %)

구분		한국어 능력			합계(N)	χ^2
		상급	중급	하급		
어머니 한국생활 어려움	있다	79.0	17.8	3.3	100.0(3,296)	2.5
	없다	82.2	14.9	2.9	100.0(443)	
어머니 다문화 수용성	전혀 그렇지 않다	79.7	17.0	3.3	100.0(859)	9.8
	그렇지 않다	79.6	18.5	1.9	100.0(475)	
	약간 그렇지 않다	80.0	15.8	4.3	100.0(489)	
	약간 그렇다	78.3	17.9	3.7	100.0(831)	

구분		한국어 능력			합계(N)	x ²
		상급	중급	하급		
	그렇다	79.3	18.5	2.2	100.0(627)	
	매우 그렇다	79.7	16.4	3.9	100.0(458)	
어머니 차별 경험	있다	77.7	18.6	3.7	100.0(1,585)	4.7†
	없다	80.6	16.5	2.9	100.0(2,154)	
어머니 한국 국적	있다	82.0	15.8	2.2	100.0(1,795)	9.3***
	없다	77.0	18.9	4.2	100.0(1,944)	
어머니 체류 기간	0~4년	78.8	15.2	6.0	100.0(250)	43.5***
	4~7년	73.2	18.7	8.2	100.0(343)	
	6~14년	80.5	16.4	3.0	100.0(1,326)	
	14년 이상	79.7	18.2	2.1	100.0(1,820)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1〉과 〈표 6-2〉는 결혼이민자 본인의 속성과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반면, 〈표 6-3〉은 자녀 본인의 속성과 자녀 자신의 한국어 능력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경향을 보면,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가 남자인 경우보다 한국어 능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중도입국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한국어 능력이 낮지만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녀의 어머니 나라에 대한 태도는 뚜렷한 경향성이 파악되지 않으며,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많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4〉는 그 외에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에 따른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대하여 나타낸 표이다. 어머니의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높고,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편 소득과의 관계를 보면,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경향이 보이고, 집의 소유형태가 자가일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3〉 자녀 본인의 요인에 따른 자녀의 한국어 능력

(단위: %)

구분		한국어 능력			합계(N)	x ²
		상급	중급	하급		
자녀 성별	남자	77.9	18.0	4.1	100.0(1,957)	12.3**
	여자	81.0	16.8	2.2	100.0(1,782)	
자녀 중도 입국	있음	55.6	29.1	15.3	100.0(505)	347.5***
	없음	83.1	15.6	1.4	100.0(3,234)	
자녀의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도	전혀 관심없다	87.9	9.9	2.2	100.0(223)	22.4**
	관심없다	81.0	15.6	3.4	100.0(263)	
	보통이다	76.6	19.6	3.7	100.0(1,442)	
	관심있다	79.3	18.3	2.4	100.0(890)	
	매우 관심있다	81.1	15.4	3.5	100.0(921)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80.0	15.6	4.4	100.0(135)	31.3***
	자랑스럽지 않다	77.2	18.3	4.6	100.0(219)	
	보통이다	77.3	19.4	3.4	100.0(1,934)	
	자랑스럽다	79.9	18.3	1.8	100.0(722)	
	매우 자랑스럽다	84.9	11.4	3.7	100.0(729)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4〉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에 따른 자녀의 한국어 능력

(단위: %)

구분		한국어 능력			합계(N)	x ²
		상급	중급	하급		
어머니 국적	중국(한족)	79.7	13.0	7.3	100.0(507)	64.5***
	중국(조선족)	81.7	14.8	3.5	100.0(623)	
	일본	76.5	21.7	1.8	100.0(1,149)	
	베트남	87.8	11.6	0.6	100.0(172)	
	필리핀	80.0	17.4	2.6	100.0(621)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79.0	17.4	3.6	100.0(667)	
남편 소득	150만원 미만	76.6	20.2	3.1	100.0(993)	10.9†
	150~200만원 미만	78.9	18.1	3.1	100.0(747)	
	200~250만원 미만	81.2	16.0	2.9	100.0(596)	
	250만원 이상	81.9	15.0	3.1	100.0(1,006)	

구분		한국어 능력			합계(N)	x ²
		상급	중급	하급		
집 소유 형태	월세	74.5	20.5	5.0	100.0(823)	30.4***
	전세	78.0	17.1	4.9	100.0(595)	
	자가	81.4	16.4	2.2	100.0(2,321)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2.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

전 절에서는 부모 및 자녀 본인의 속성과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다. <표 6-5>는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요인과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급 이상의 비율이 약 30% 정도로, 대체로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별로 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의 능력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인 건강상태에 따른 뚜렷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표 6-6>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과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머니의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어머니의 다문화 수용성과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차별 경험을 당한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높은 반면,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던 가지지 않던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어머니 체류기간과 자녀의 한국어 능력도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5〉 어머니의 인적자본요인에 따른 결혼 이민자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

(단위: %)

구분		어머니 모국어 능력			합계(N)	χ^2
		상급	중급	하급		
전체		9.3	18.8	71.9	100.0(3,739)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13.9	11.0	75.1	100.0(599)	84.3***
	고졸	8.7	16.2	75.1	100.0(1,798)	
	대졸 이상	8.2	25.6	66.2	100.0(1,342)	
어머니 한국어 능력	상급	12.9	16.3	70.9	100.0(1,259)	37.7***
	중급	6.6	20.6	72.8	100.0(1,679)	
	하급	9.5	18.9	71.7	100.0(801)	
어머니 건강 상태	매우 좋다	10.9	17.6	71.4	100.0(1,145)	27.3**
	좋다	7.1	18.9	74.0	100.0(911)	
	보통이다	7.9	19.8	72.3	100.0(1,311)	
	나쁘다	14.1	19.3	66.6	100.0(305)	
	매우 나쁘다	17.9	14.9	67.2	100.0(67)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6〉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

(단위: %)

구분		어머니 모국어 능력			합계(N)	χ^2
		상급	중급	하급		
어머니 한국생활 어려움	있다	8.6	19.0	72.5	100.0(3,296)	20.0***
	없다	15.1	17.2	67.7	100.0(443)	
어머니 다문화 수용성	전혀 그렇지 않다	10.5	18.2	71.4	100.0(859)	21.0*
	그렇지 않다	9.9	25.1	65.1	100.0(475)	
	약간 그렇지 않다	8.8	19.2	72.0	100.0(489)	
	약간 그렇다	8.3	18.8	72.9	100.0(831)	
	그렇다	8.8	16.9	74.3	100.0(627)	
	매우 그렇다	9.8	15.5	74.7	100.0(458)	
어머니 차별 경험	있다	10.2	19.7	70.2	100.0(1,585)	4.4
	없다	8.7	18.1	73.2	100.0(2,154)	
어머니 한국 국적	있다	9.3	15.7	75.0	100.0(1,795)	22.7***
	없다	9.4	21.7	69.0	100.0(1,944)	

구분		어머니 모국어 능력			합계(N)	x ²
		상급	중급	하급		
어머니 체류 기간	0~4년	8.4	12.0	79.6	100.0(250)	70.4***
	4~7년	18.4	12.0	69.7	100.0(343)	
	7~14년	10.9	20.1	68.9	100.0(1,326)	
	14년 이상	6.6	20.0	73.4	100.0(1,820)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7〉은 자녀 본인의 요인과 자녀 자신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자녀의 성별로 보면, 앞 절의 한국어 능력과 유사하게 여자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남자보다 높고, 중도 입국한 자녀일수록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자녀일수록, 어머니 모국어를 권장하는 집안 분위기일수록,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큰 자녀일수록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8〉은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과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머니 국적별로 보면, 중국(한족, 조선족)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전반적으로 높고 베트남에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편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집의 소유형태가 자가에서 월세일수록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7〉 자녀 본인의 요인에 따른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

(단위: %)

구분		어머니 모국어 능력			합계(N)	x ²
		상급	중급	하급		
자녀 성별	남자	8.3	16.2	75.6	100.0(1,957)	27.8***
	여자	10.5	21.7	67.9	100.0(1,782)	

구분		어머니 모국어 능력			합계(N)	χ^2
		상급	중급	하급		
자녀 중도 입국	있음	40.0	30.1	29.9	100.0(505)	771.3***
	없음	4.6	17.0	78.5	100.0(3,234)	
자녀의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도	전혀 관심없다	4.9	4.0	91.0	100.0(223)	265.2***
	관심없다	1.9	7.6	90.5	100.0(263)	
	보통이다	9.1	13.5	77.4	100.0(1,442)	
	관심있다	6.2	23.9	69.9	100.0(890)	
	매우 관심있다	16.0	28.8	55.3	100.0(921)	
어머니 모국어 권장	매우 그렇다	23.6	28.0	48.4	100.0(670)	395.0***
	그렇다	8.8	26.3	64.9	100.0(481)	
	보통이다	6.8	19.9	73.2	100.0(1,364)	
	그렇지 않다	3.1	10.6	86.3	100.0(559)	
	전혀 그렇지 않다	5.2	6.9	87.9	100.0(665)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3.7	10.4	85.9	100.0(135)	81.1***
	자랑스럽지 않다	7.8	10.1	82.2	100.0(219)	
	보통이다	8.8	16.6	74.6	100.0(1,934)	
	자랑스럽다	8.3	21.9	69.8	100.0(722)	
	매우 자랑스럽다	13.3	25.7	61.0	100.0(729)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8〉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 모국어 능력

(단위: %)

구분		어머니 모국어 능력			합계(N)	χ^2
		상급	중급	하급		
어머니 국적	중국(한족)	17.0	16.6	66.5	100.0 (507)	186.1***
	중국(조선족)	16.2	11.6	72.2	100.0 (623)	
	일본	5.7	26.5	67.7	100.0 (1,149)	
	베트남	3.5	5.8	90.7	100.0 (172)	
	필리핀	4.8	18.4	76.8	100.0 (621)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9.0	17.5	73.5	100.0 (667)	
	남편 소득	150만원 미만	7.9	17.3	74.8	
150~200만원 미만		9.9	17.1	73.0	100.0 (747)	
200~250만원 미만		10.7	17.6	71.6	100.0 (596)	
250만원 이상		8.2	22.5	69.4	100.0 (1,006)	

구분		어머니 모국어 능력			합계(N)	x ²
		상급	중급	하급		
집 소유 형태	월세	13.0	20.7	66.3	100.0 (823)	45.5***
	전세	13.1	19.8	67.1	100.0 (595)	
	자가	7.1	17.8	75.1	100.0 (2,321)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제3절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 능력의 결정요인

제2절에서는 부모의 속성과 자녀의 언어 능력(한국어 능력, 어머니 모국어 능력)과의 관계가 어떠한 경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교차 분석은 그 이외의 중요한 변수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변수의 진정한 효과가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변수들을 도입하여 그 영향을 검토한다.

1. 자녀의 한국어 능력

먼저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대하여 분석을 행한다. 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Y_i = \alpha + \beta H_i + \gamma K_i + \zeta C_i + \delta D_i + \epsilon_i \cdots \cdots (6-1)$$

여기에서 Y_i 는 자녀의 한국어 능력으로 제 2장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녀가 인식하는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5개의 척도로 응답한 것을 복합 점수로 한 변수로 최저 점수는 4점이고, 최고점수는 20점이다. H_i , K_i , D_i 의 변수는 이전과 같고, 본 절에서 새롭게

게 도입되는 변수군은 C_i 로 자녀 관련 요인이다. 분석은 이전 절의 분석과 같이 각 변인 별로 단계별 추정을 행한다.

식 (6-1)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6-9>이다. 지면 관계로 t-값은 생략하고 유의성의 수준만을 별표로 표시하고 있다. 먼저 어머니의 인적자본 요인 별로 살펴보면,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낮아지지만, 자녀 관련 요인 및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을 통제하면 어머니 학력의 유의성이 소멸되거나 약해지는 것으로 볼 때, 그다지 강건한(robust)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0.1%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머니의 건강이 좋을수록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 한국 생활 변인 중에는 특별히 강건한 영향의 변수가 없는 반면에, 자녀 관련 요인은 대체로 강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어머니 관련 변수만을 도입한 모델 2와 자녀의 요인을 도입한 모델 3의 결정 계수(R-squared)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0.026 → 0.113),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자녀 본인의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변수의 영향을 보면, 교차분석에도 나타났지만 자녀의 성별이 여자일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고, 연령에 따른 한국어 능력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중도입국 여부는 매우 유의성이 강한 요인으로 중도입국한 아이일수록 한국어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은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큰 자녀일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에서 어머니의 출신국을 보면, 교차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높다

130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는 것을 알 수 있고, 집의 소유형태가 자가일수록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9〉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능력 추정(전체)

한국어 능력(OLS)					
구분		model1	model2	model3	model4
어머니 인적자본 요인	학력(Ref. 고졸)				
	중졸이하	-0.405*	-0.374*	-0.192	-0.282†
	대졸이상	0.088	0.083	0.126	0.084
	한국어 능력(Ref. 중급)				
	상급	0.641***	0.561***	0.646***	0.628***
	하급	-0.373*	-0.306*	-0.239†	-0.201
	건강(좋은=1)	0.360***	0.389***	0.308**	0.300**
어머니 한국생활 관련변인	한국생활의 어려움(있음=1)		0.269†	0.154	0.192
	다문화 수용성		-0.004	0.012	0.014
	차별 경험(있음=1)		-0.204*	-0.141	-0.191†
	국적취득여부(있음=1)		0.256*	0.182†	0.186
	체류 기간		0.020*	-0.006	0.001
자녀 관련요인	성별(남=1)			-0.420***	-0.433***
	연령			0.004	0.008
	중도입국여부(있음=1)			-2.628***	-2.494***
	어머니 나라 관심도			0.003	0.007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0.153**	0.191**
인구 사회학적 · 경제적 변인	어머니 연령				-0.006
	어머니 출신국(Ref.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중국(한족)				-0.298
	중국(조선족)				-0.167
	베트남				0.648**
	필리핀				-0.302
	일본				-0.290
	남편 소득(Ref.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0.149
	200~250만원 미만				0.349*
	250만원 이상				0.207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0.057
자가				0.277*	
도시거주(살고 있음=1)				0.046	
상수항	18.136***	17.607***	17.939***	17.731***	
R-squared	0.023	0.026	0.113	0.114	
Observations	3,739	3,739	3,739	3,342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출신국별 영향에서는 비록 베트남만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지만, 각 국의 경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표 6-10>에서는 출신국별로 추정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출신 한족 결혼이민자의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어머니의 학력이 낮으면 자녀의 한국어 능력도 낮지만,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높으면 자녀의 한국어 능력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건강은 중국(조선족), 필리핀,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 6-9>의 결과에서 건강의 영향이 매우 강한 결과를 비교하면,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능력도 건강에 정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어머니의 한국생활 변인을 보면, 대부분 국가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유의성이 낮지만 한국생활이 어려울수록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체류기간이 길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 관련 요인은 전체 추정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중도 입국 여부와 유의한 관계가 없고,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클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강한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그 외의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는 국가별로 뚜렷한 영향이 보이지 않는다.

〈표 6-10〉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능력 추정(출신국별)

		한국어 능력(OLS)				
구분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어머니 인적 자본 요인	학력(Ref. 고졸)					
	중졸이하	-0.847*	0.146	-0.195	0.596†	1.098*
	대졸이상	-0.007	0.313	-0.231	0.050	0.324†
	한국어 능력(Ref. 중급)					
	상급	1.024**	1.116***	0.880*	-0.113	0.520**
	하급	-0.267	0.986	0.147	0.235	-0.378
	건강(좋은=1)	0.090	0.426†	0.590	0.421†	0.355*
어머니 한국 생활 관련 변인	한국생활어려움(있음=1)	0.797†	-0.564*	-0.773†	0.772†	0.266
	다문화 수용성	-0.033	0.124†	-0.031	0.000	0.029
	차별 경험(있음=1)	-0.372	0.030	-0.014	-0.201	-0.130
	국적취득여부(있음=1)	0.569	0.590	0.320	0.569	-0.129
	체류 기간	-0.021	0.043	-0.080	-0.011	-0.071*
자녀 관련 요인	성별(남=1)	-0.595*	-0.521*	-0.536†	-0.545*	-0.321†
	연령	0.035	0.005	0.046	0.098†	0.099**
	중도입국여부(있음=1)	-4.901***	-2.699***	-3.952***	-2.463**	-0.401
	어머니 나라 관심도	-0.036	0.215*	-0.046	0.218*	0.003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0.342†	0.094	0.474*	0.209†	0.322**
인구 사회 학적 · 경제적 변인	어머니 연령	0.053†	-0.005	0.036	-0.012	0.052†
	남편 소득(Ref.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0.201	0.256	-1.043†	-0.327	0.399
	200~250만원 미만	0.220	0.033	-0.341	0.046	0.203
	250만원 이상	0.447	-0.001	-0.090	0.678*	0.203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0.518	-0.234	-0.418	0.219	0.224
	자가	0.451	0.195	0.114	0.648*	0.075
도시거주(살고 있음=1)	0.386	0.399†	-0.224	0.303	-0.379†	
상수항	14.249***	15.853***	17.804***	14.765***	14.170***	
R-squared	0.344	0.206	0.105	0.073	0.037	
Observations	463	564	161	553	1,002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국가별 추정에서는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가 여타 국가와 다른 특징을 보였다. 첫째,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음의 관계에 있다는 것, 둘째, 중도입국 여부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 셋째, 어머니의 한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자녀의 한국어 능

력이 낮아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는 다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 자녀와 이질적인(heterogeneous)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언어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른 국가의 결과나 선행연구의 결과(박주희, 남지숙 2010)와 달리 본 연구의 일본출신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어머니의 한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자녀의 한국어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로 한국에 온 경우가 많아 중국, 베트남, 또는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 보다 한국 입국 시기가 빠른 여성들이 많다²⁶⁾.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도 다른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자녀보다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언어 능력은 자가 응답형식으로 스스로의 언어 능력을 평가해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 이 주관성에 더해, 연령이 높은 자녀들일수록 일상생활언어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학령기 자녀들의 경우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문장이해력이나 글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등의 학습적인 면에서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글에서 느끼는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오성배 2007),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²⁷⁾.

여타 국가와 다르게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으로는 중도입국 여부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이는 일본 출신의 경우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유사하여 다른 국가에서 중도입국한 자녀들보다 한국어를 배우기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26) <표 2-5>에서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을 보면 다른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보다 월등히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즉, <표 3-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61%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국가보다 체류기간이 긴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은 대부분이 나머지 39%, 또는 그 이외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 자녀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출신 결혼이민자들과 달리 종교나 다른 이유들로 한국남성과 결혼하게 된 이유 및 일본이라는 국가의 문화적 특성, 또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특성들이 작용해 자녀의 언어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출신국 별로 보았을 때, 다른 국가 출신의 어머니를 둔 자녀들과 상이한 패턴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 및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바탕으로 더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

앞에서는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에 대한 추정을 한다. 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Y_i = \alpha + \beta H_i + \gamma K_i + \zeta C_i + \delta D_i + \epsilon_i \cdots \cdots (6-2)$$

기본적으로 식(6-2)는 식(6-1)과 구성이 동일하며, Y_i 는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으로 제 2장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녀가 인식하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 능력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5개의 척도로 응답한 것을 복합 점수로 한 변수로 최저 점수는 4점이고, 최고점수는 20점이다. 종속변수가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C_i 에는 식(6-1)과는 다르게 어머니 모국어를 권장하는 집안의 분위기를 변수로 도입하였다. 분석은 식(6-1)과 동일하게 4개의 모델로 추정하였다.

〈표 6-11〉은 식(6-2)를 추정한 결과이다. 이 결과도 지면 관계로 t-값은 생략하고 유의성의 수준만을 별표로 표시하고 있다. 먼저 어머니의 인적자본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높은데, 4개 모델 모두 강한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강건하지는 않지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에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의지가 강할수록,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수록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낮은 반면, 어머니가 차별을 경험하거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어머니의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자녀의 어머니 국가 언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머니는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관심이나 투자에 대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출신국의 언어까지 자녀에게 가르치거나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곧 자신의 문화보다 다른 문화를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이 강할수록 자녀가 어머니 나라의 모국어를 익힐 기회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된다.

자녀 관련 요인은 대부분 강한 유의성을 갖고 있는데, 자녀의 성별이 남자일수록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낮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중도 입국을 한 경우, 어머니 나라에 관심이 많을수록, 집에서 어머니 모국어를 권장할수록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11> 결혼이민자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 추정(전체)

어머니 모국어 능력(OLS)					
구분		model1	model2	model3	model4
어머니 인적자본 요인	학력(Ref. 고졸)				
	중졸이하	-0.104	0.055	-0.104	0.057
	대졸이상	0.980***	0.859***	0.443**	0.403*
	한국어 능력(Ref. 중급)				
	상급	0.405*	0.537**	0.362*	0.108
	하급	0.086	0.044	-0.060	0.023
	건강(좋은=1)	-0.328*	-0.298†	-0.032	0.059
어머니 한국생활 관련변인	한국생활 어려움(있음=1)		-0.817**	-0.434†	-0.467*
	다문화 수용성		-0.133**	-0.160***	-0.190***
	차별 경험(있음=1)		0.481**	0.290*	0.321*
	국적취득여부(있음=1)		-1.060***	-0.342*	-0.099
	체류 기간		0.010	0.041***	0.027†
자녀 관련요인	성별(남=1)			-0.508***	-0.495***
	연령			0.103***	0.093***
	중도입국여부(있음=1)			5.609***	5.389***
	어머니 나라 관심도			0.689***	0.683***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0.132†	0.114
	어머니 모국어 권장			0.880***	0.872***
인구 사회학적 · 경제적 변인	어머니 연령				0.000
	어머니 출신국(Ref.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중국(한족)				0.889**
	중국(조선족)				0.884**
	베트남				-0.787*
	필리핀				0.724**
	일본				1.196***
	남편 소득(Ref.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0.187
	200~250만원 미만				0.177
	250만원 이상				0.145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0.073
자가				-0.723***	
도시거주(살고 있음=1)				0.471**	
상수항	8.292***	9.594***	1.376*	1.163	
R-squared	0.010	0.025	0.339	0.347	
Observations	3,739	3,739	3,739	3,342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그 이외의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베트남 이외의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일본 자녀의 영향력과 유의성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편 소득은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집의 소유형태가 자가일수록 월세에 비하여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낮으며, 도시에 거주할수록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의 한국어 능력 추정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관련 변수만을 도입한 모델 2와 자녀의 요인을 도입한 모델 3의 결정 계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0.025 → 0.339),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은 자녀의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 다른 모델보다 자녀의 요인을 포함한 모델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2〉는 〈표 6-11〉을 국가별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어머니의 학력을 보면, 전체 추정(표 6-11)에서는 모든 모델이 매우 강한 유의성을 가지며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국가별 추정(표 6-12)에서는 일본만이 유의하고 나머지 국가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아마도 이것은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여성의 학력이 매우 유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어 능력 변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한국 생활 관련 변인에서 한국생활 어려움 변수의 영향이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에 반하여, 전체 추정(표 6-11의 모델4)에서는 5%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출신국별 추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그들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어머니 나라 언어를 가

르치는 데에는 시간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들은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출신국별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경향은 주로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에게 나타나는 반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또는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 수용성은 전체 추정결과가 각 국가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차별 경험을 할수록 중국 출신 한족 결혼이민자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인의 경우는 피부색과 같이 외모에서 뚜렷하게 한국인과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차별 경험에 대해 민감할 수 있고,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 한국에 동화되는 것보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찾아나가려 하는 마음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의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자녀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앞으로 자녀가 자라서 한국사회에서 생활해 나아감에 있어서 차별경험에 대한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중국인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기대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경향은 체류기간에서도 볼 수 있고,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자녀 관련 요인은 전체 추정과 유사한 영향이 있으며 전 국가가 고르게 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는 국가별로 유의성이 다른 것이 눈에 띄는데, 도시에 거주할수록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중국 출신 조선족 결혼이민자의 자녀임을 알 수 있다.

〈표 6-12〉 결혼이민자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 추정(출신국별)

		어머니 모국어 능력(OLS)				
구분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어머니 인적 자본 요인	학력(Ref. 고졸)					
	중졸이하	0.151	0.155	-0.737	0.254	-1.065
	대졸이상	0.570	0.005	1.952	-0.473	0.837***
	한국어 능력(Ref. 중급)					
	상급	-0.662	0.536	-0.363	-0.347	-0.747*
	하급	0.058	-0.894	0.345	-0.433	0.129
	건강(좋은=1)	0.570	-0.039	-0.274	-0.180	0.189
어머니 한국 생활 관련변인	한국생활어려움(있음=1)	-0.398	-0.289	-0.353	0.110	-0.516
	다문화 수용성	-0.272*	-0.191 †	-0.179	-0.214*	-0.211**
	차별 경험(있음=1)	0.901*	0.688 †	-0.302	-0.149	0.005
	국적취득여부(있음=1)	0.123	0.051	-0.152	0.852	-0.616
	체류 기간	0.122*	0.058	0.119 †	0.054	0.006
자녀 관련 요인	성별(남=1)	0.009	-0.427	0.057	-0.465	-0.604*
	연령	-0.030	0.048	-0.134 †	0.189**	0.285***
	중도입국여부(있음=1)	8.156***	8.590***	10.258***	3.982***	1.250**
	어머니 나라 관심도	0.572**	0.418*	0.408 †	0.610***	0.907***
	어머니에대한 자부심	0.113	-0.047	-0.380	0.295	0.135
	어머니 모국어 권장	0.859***	0.806***	0.380 †	0.967***	0.931***
인구 사회학적 · 경제적 변인	어머니 연령	0.013	0.002	-0.018	-0.064 †	-0.088*
	남편 소득(Ref.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미만	-0.048	-0.070	1.234	-0.169	-0.118
	200~250만원미만	-0.055	0.446	0.695	0.138	-0.345
	250만원 이상	0.176	-0.583	0.078	-0.395	0.299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1.180 †	0.214	1.693	0.066	-0.485
	자가	-0.998 †	-0.848	0.436	-0.812*	-0.484
	도시거주(살고 있음=1)	0.677	0.999**	-0.112	0.178	0.338
상수항	2.089	2.528	6.377**	2.432	3.815*	
R-squared	0.502	0.504	0.434	0.191	0.258	
Observations	463	564	161	553	1,002	

주: 1)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제7장

결혼이민자 자녀의 인구자질(2): 정신 건강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신 건강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제3절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신 건강의 결정요인



7

결혼이민자 자녀의 << 인구자질(2): 정신 건강

제1절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앞 장에 이어 자녀의 인구자질 중 정신 건강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 자녀의 대부분이 학령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학령기(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성장 발달 단계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춘기 및 질풍노도의 시기로 대변되는 이 시기는 성인기에 접어들기 위한 가치관 및 행동 양식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장은옥 2011). 그러나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정서 및 행동 측면에서 한국인 자녀보다 취약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이원령 2013), 그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곧 그들의 인구자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자녀의 정신 건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데, 주로 부모의 속성이 미치는 영향과 자녀 자신의 속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려 한다.

먼저 해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Riley et al.(2009)의 연구는 4살에서 10살의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미국인 여성 133명을 대상으로 엄마의 우울함이 자녀의 정신적·행동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Leinonen et al.(2003)은 부모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녀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도 해외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속성이 자녀의 속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지영·이주연(2012)의 연구는 초등학교 3~6학년 2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분석한 결과, 엄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클수록, 자녀의 불안 및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우희정(2013)은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자녀의 불안 및 우울감이 낮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속성 이외에 자녀 본인의 경험 및 속성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Kim et al.(2011)은 대전, 충북, 충남의 25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2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조사를 실시하여, 차별 경험이 자녀 본인의 정신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심영 외(2013)는 7개 지역(서울, 경기, 충북, 충청,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의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3학년 학생 및 그 어머니 각각 305명, 295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자녀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감정이 자녀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 남윤주·이숙(2009)의 연구는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아동 15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동남아인일 경우 및 어머니에게 소외감을 느낄수록, 그리고 친구관계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느낄수록 우울감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였다.

상기 선행연구들은 부모 혹은 자녀 본인의 속성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지만, 외부적 요인에 의한 영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 만일 어머니가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해왔을 경우, 혹은 재혼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어린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양계민(2011)에 의하면, 중도입국으로 우리나라에 온 청소년은 대부분 중국출신으로 17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이 대부분이며, 반수에 가까운 비율로 한국어와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약 60%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중도입국자녀는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고, 이러한 환경이 아동의 정신 건강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이상 살펴본 자녀의 정신 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는 부모의 속성뿐만 아니라 자녀 자신의 속성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어머니 본인이 받는 차별 경험 혹은 자녀 자신이 받은 폭력 경험,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등이 자녀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 출신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제2절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신 건강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표 7-1〉은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요인과 자녀의 정신 건강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의 정신 건강은 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해 본 적 있는 지에 대한 것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23.1%로 5명 중 1명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해 보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정신 건강과 명확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가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7-1〉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요인에 따른 자녀의 정신 건강

(단위: %)

구분		정신 건강		합계(N)	x ²
		유	무		
전체		23.1	76.9	100.0(3,739)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22.4	77.6	100.0(599)	1.3
	고졸	23.9	76.1	100.0(1,798)	
	대졸 이상	22.4	77.7	100.0(1,342)	
어머니 건강상태	매우 좋다	19.0	81.1	100.0(1,145)	19.5**
	좋다	23.3	76.7	100.0(911)	
	보통이다	25.4	74.6	100.0(1,311)	
	나쁘다	28.2	71.8	100.0(305)	
	매우 나쁘다	23.9	76.1	100.0(67)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7-2〉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과 자녀의 정신 건강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국생활을 어려워할수록, 차별을 경험할수록, 자녀가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문화 수용성과는 뚜렷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수록,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가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7-2〉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정신 건강

(단위: %)

구분		정신 건강		합계(N)	χ^2
		유	무		
어머니 한국생활 어려움	있다	23.9	76.1	100.0(3,296)	10.8**
	없다	16.9	83.1	100.0(443)	
다문화 수용성	전혀 그렇지 않다	19.9	80.1	100.0(859)	12.0*
	그렇지 않다	25.1	75.0	100.0(475)	
	약간 그렇지 않다	25.8	74.2	100.0(489)	
	약간 그렇다	25.5	74.5	100.0(831)	
	그렇다	22.3	77.7	100.0(627)	
	매우 그렇다	21.0	79.0	100.0(458)	
차별 경험	있다	25.1	74.9	100.0(1,585)	6.2*
	없다	21.6	78.4	100.0(2,154)	
국적취득 여부	있다	21.4	78.6	100.0(1,795)	5.7*
	없다	24.7	75.3	100.0(1,944)	
체류 기간	0~4년	32.4	67.6	100.0(250)	14.8**
	4~7년	25.1	74.9	100.0(343)	
	7~14년	22.6	77.4	100.0(1,326)	
	14년 이상	21.8	78.2	100.0(1,820)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7-3〉은 자녀의 요인과 자녀 본인의 정신 건강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가 남자인 경우, 또는 중도 입국을 한 자녀일수록,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자녀가 슬픔이나 절망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도는 자녀의 정신 건강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지만,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클수록 자녀가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녀 자신이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거나,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할수록 자녀가 슬픔이나 절망을 느끼는 비율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3〉 자녀의 요인에 따른 자녀의 정신 건강

(단위: %)

구분		정신 건강		합계(N)	χ ²
		유	무		
자녀 성별	남자	21.7	78.3	100.0(1,957)	4.5*
	여자	24.6	75.4	100.0(1,782)	
중도 입국	있음	29.1	70.9	100.0(505)	11.8**
	없음	22.2	77.8	100.0(3,234)	
자녀 한국어 능력	상급	20.6	79.4	100.0(2,967)	51.4****
	중급	31.8	68.2	100.0(651)	
	하급	37.2	62.8	100.0(121)	
자녀의 어머니 나라 관심도	전혀 관심없다	22.9	77.1	100.0(223)	30.9****
	관심없다	34.2	65.8	100.0(263)	
	보통이다	22.1	78.0	100.0(1,442)	
	관심있다	25.7	74.3	100.0(890)	
	매우 관심있다	19.1	80.9	100.0(921)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38.5	61.5	100.0(135)	66.5****
	자랑스럽지 않다	38.4	61.6	100.0(219)	
	보통이다	23.7	76.3	100.0(1,934)	
	자랑스럽다	20.2	79.8	100.0(722)	
	매우 자랑스럽다	16.9	83.1	100.0(729)	
자녀 차별경험	있다	54.3	45.7	100.0(199)	114.9****
	없다	21.4	78.6	100.0(3,540)	
자녀 폭력경험	있다	54.8	45.2	100.0(281)	196.9****
	없다	18.6	81.4	100.0(2,950)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7-4〉는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과 정신 건강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 국적 별로 보면,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신적인 슬픔이나 절망을 느낀 비율이 가장 크고, 중국 출신 한족 결혼이민자 자녀가 가장 낮다. 그리고 남편의 소득은 자녀의 정신 건강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집의 소유형태가 월세에 비하여 전세나 자가일

경우, 자녀가 느끼는 슬픔이나 절망감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7-4〉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에 따른 정신 건강

(단위: %)

구분		정신 건강		합계(N)	x ²
		유	무		
어머니 국적	중국 (한족)	19.1	80.9	100.0(507)	8.9
	중국 (조선족)	22.0	78.0	100.0(623)	
	일본	23.0	77.0	100.0(1,149)	
	베트남	27.3	72.7	100.0(172)	
	필리핀	24.2	75.9	100.0(621)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25.3	74.7	100.0(667)	
남편 소득	150만원 미만	22.6	77.4	100.0(993)	2.3
	150~200만원 미만	23.2	76.8	100.0(747)	
	200~250만원 미만	24.3	75.7	100.0(596)	
	250만원 이상	21.2	78.8	100.0(1,006)	
집 소유 형태	월세	27.7	72.3	100.0(823)	12.6**
	전세	21.5	78.5	100.0(595)	
	자가	21.9	78.1	100.0(3,739)	

주: † p<0.1, * p<0.05, ** p<0.01, *** p<0.001.

제3절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신 건강의 결정요인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의 하였던 교차 분석을 배경으로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신 건강에 대하여 교차 분석에서는 통제하지 못하였던 변수들을 통제하여 각 변인 별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frac{P}{1-P} = \alpha + \beta H_i + \gamma K_i + \zeta C_i + \delta D_i + \epsilon_i \dots \dots (7-1)$$

여기에서 등호의 좌측은 오즈(odds)를 나타내며 P는 성공확률(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할 확률)²⁸⁾, 1-P는 실패할 확률(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하지 않을 확률)로서 이들의 상대적 확률을 나타낸다. 식(7-1)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그 로그 값을 구한 것이 오즈비(odds ratio)가 된다.

$$\frac{P}{1-P} = e^{(\alpha + \beta H_i + \gamma K_i + \zeta C_i + \delta D_i + \epsilon_i)} \dots\dots(7-2)$$

여기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cetris paribus*), 인적자본 요인(H_i)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begin{aligned} \left(\frac{P}{1-P}\right)^* &= e^{(\alpha + \beta H_i + \gamma K_i + \zeta C_i + \delta D_i + \epsilon_i)} \dots\dots(7-3) \\ &= \left(\frac{P}{1-P}\right)e^\beta \end{aligned}$$

이 되고, 이를 정리하면,

$$\frac{\left(\frac{P}{1-P}\right)^*}{\left(\frac{P}{1-P}\right)} = e^\beta \dots\dots(7-4)$$

즉, 식(7-4)의 좌측 항을 오즈비라 하고, 그 결과는 β 의 자연로그 값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1보다 클 경우가 성공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28) 따라서 정신 건강이 좋다는 것은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할 확률이 작은 경우이다.

한 이것은 인적자본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한국생활 관련변인, 자녀 관련요인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식(7-1)의 우변의 변수들은 대부분 식(6-1)과 같지만, C_i 에 한국어 능력을 포함하여 추정한다. 단,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제 6장 자녀의 한국어 능력 추정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변수는 제외한다.

〈표 7-5〉는 식(7-1)을 추정한 결과이다. 지면 관계로 t -값은 생략하고 유의성의 수준만을 별표로 표시하고 있다. 먼저 어머니의 인적자본 요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어머니의 건강이 좋을수록 자녀가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가 느끼는 슬픔이나 절망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효과는 비록 대졸 이상의 카테고리 변수가 유의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지만 비선형일 가능성이 있다. 즉 고졸의 결혼이민자 자녀가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에서는 어머니가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자녀가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낄 확률이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결혼이민자 자녀에 비하여 약 50%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모델 3). 그 이외의 차별 경험, 한국 국적 취득 여부, 체류 기간은 몇몇 모델에서 유의성을 보이긴 하지만 전체 변인을 통제된 모델에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강건하지 않은 효과로 보인다.

152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표 7-5〉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신 건강 추정(전체)

정신 건강 (logit odds ratio)					
구분		model1	model2	model3	model4
어머니 인적 자본 요인	학력(Ref. 고졸)				
	중졸이하	0.928	0.914	0.706*	0.714*
	대졸이상	0.915	0.905	0.906	0.845
	건강(좋은=1)	0.757***	0.777**	0.791*	0.754**
어머니 한국생활 관련 변인	한국생활의 어려움(있음=1)	-	1.370*	1.419*	1.510*
	다문화 수용성	-	1.009	1.017	1.024
	차별 경험(있음=1)	-	1.146†	1.007	1.033
	국적취득여부(있음=1)	-	0.857†	0.967	0.890
	체류 기간	-	0.991	0.982*	0.991
자녀 관련 요인	성별(남=1)			0.803*	0.784*
	연령			1.155***	1.158***
	중도입국여부(있음=1)			0.779	0.852
	한국어 능력(Ref. 상급)				
	중급			1.636***	1.713***
	하급			1.917*	1.812†
	어머니 나라 관심도			0.982	0.999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0.816***	0.806***
	차별 경험(있음=1)			2.789***	2.532***
	폭력 경험(있음=1)			4.723***	4.688***
인구 사회 학적 · 경제적 변인	어머니 연령				0.991
	어머니 출신국(Ref.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중국(한족)				0.660*
	중국(조선족)				1.015
	베트남				0.801
	필리핀				1.059
	일본				0.816
	남편 소득(Ref.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1.095
	200~250만원 미만				1.363*
	250만원 이상				1.122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0.612**
자가				0.801†	
도시거주(살고 있음=1)				1.118	
상수항	0.364***	0.302***	0.090***	0.125***	
log-likelihood	-2014.179	-2004.876	-1523.989	-1347.309	
chi2(d.f.)	14.065(3)	32.671(8)	339.553(17)	292.184(28)	
Observations	3,739	3,739	3,231	2,903	

주: † p<0.1, * p<0.05, ** p<0.01, *** p<0.001.

자녀 관련 요인은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유의성이 큰 변인이 많은데, 먼저 자녀가 남자일수록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경향이 감소하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본인의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차별 경험을 할수록, 그리고 학교 폭력을 경험할수록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차별 경험과 학교 폭력 경험은 자녀의 정신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차별 경험의 경우, 차별을 당하지 않은 아이에 비하여 슬픔이나 절망을 느낄 확률이 약 2.5배, 폭력 경험을 하지 않은 아이의 약 4.7배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큰 경우에는 자녀의 정신 건강이 좋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어머니 출신국 영향을 보면, 중국 출신 한족 결혼이민자 자녀가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확률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편 소득에 의한 영향은 150만 원 미만에 비하여 200~25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가 느끼는 슬픔이나 절망감이 커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남편의 소득이라는 변수는 자녀의 입장에서 가정의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변수인데, 이 변수에서 200~250만 원 미만 카테고리에서 유의성이 보였다는 의미는 경제상황이 더 나은 가정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보다 슬픔이나 절망감을 더 느낀다는 결과로, 이는 자녀가 느끼는 슬픔이나 절망감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보다 자녀 자신의 속성이 슬픔이나 절망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집의 소유형태는 전세나 자가의 경우, 월세의 경우보다 자녀가 느끼는 슬픔이나 절망감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경제적 여유로움이 자녀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감소시키지 않는 결과와 함께 생각해보면 일견 정합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 아버지가 가지는 특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에 더해 자녀들이 부모의 소득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보다는 주거상태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또는 자가인지에 대한 인지는 더욱 높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결과에 대한 더욱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행동양태나 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한 향후 분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녀의 정신 건강에 대한 추정도 식(4-2)로 계산된 통계량으로 모델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표 7-6>은 그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델 2, 3, 4는 각각 1%, 0.1%, 5%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으므로, 세 모델 모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7-6> 모델 적합성 테스트(Wald test statistic)

구분	model1 - model2	model2 - model3	model3 - model4
χ^2 statistic	17.3**	281.0***	23.7*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7-7>은 국가별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모델의 몇몇 변수들의 영향이 소멸(drop)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추정 모델에 비하여 전체 샘플 사이즈가 작아진 것과 함께(베트남), 카테고리 변수일 경우 소멸된 카테고리 변수의 경우, 그 사이즈가 특히 작아진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일본). 따라서 이러한 국가(베트남)과 변수(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학력 변수)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표 7-7)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신 건강 추정(국적별)

		정신 건강 (logit odds ratio)				
구분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어머니 인적 자본 요인	학력(Ref. 고졸)					
	중졸이하	0.847	0.968	0.061*	0.411 †	(drop)
	대졸이상	0.506	0.571	0.068*	0.752	1.165
	건강(좋은=1)	0.954	0.639 †	0.201 †	0.624 †	0.896
어머니 한국 생활 관련 변인	한국생활의 어려움(있음=1)	3.721*	2.367*	(drop)	0.478 †	1.059
	다문화 수용성	0.971	1.088	0.907	1.084	1.070
	차별 경험(있음=1)	0.873	0.965	0.925	1.235	1.044
	국적취득여부(있음=1)	0.859	1.140	3.825	1.639	0.564
	체류 기간	0.990	0.991	0.957	0.944	0.971
자녀 관련 요인	성별(남=1)	1.032	0.962	2.871	0.779	0.628**
	연령	1.194*	1.211**	1.142	1.142*	1.215***
	중도입국여부(있음=1)	0.569	1.080	(drop)	1.299	1.066
	한국어 능력(Ref. 상급)					
	중급	1.589	2.858**	8.886*	1.210	1.658**
	하급	0.685	0.350	(drop)	1.881	6.870***
	어머니 나라 관심도	0.974	1.125	1.558	0.948	1.024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0.691	0.836	0.351**	0.851	0.746*
	차별 경험(있음=1)	0.309	0.739	33.251*	4.751***	3.176***
	폭력 경험(있음=1)	4.694**	9.546***	10.051*	2.534**	3.490***
인구 사회 학적· 경제적 변인	어머니 연령	0.956	0.972	0.971	0.985	0.994
	남편 소득(Ref.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0.647	0.591	2.204	1.367	1.091
	200~250만원 미만	1.400	2.129*	5.358	1.151	0.987
	250만원 이상	0.545	0.737	1.530	1.334	0.869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0.615	0.490	(drop)	0.941	0.444*
자가	0.701	0.424*	2.805 †	0.846	0.804	
도시거주(살고있음=1)	1.324	0.710	3.131	1.181	1.027	
상수항	0.262	0.084	0.308	0.495	0.107	
log-likelihood	-124.921	-195.754	-37.304	-252.040	-424.484	
chi2 (d.f.)	56.580 (23)	74.257 (23)	43.381 (19)	66.831 (23)	100.125 (22)	
Observations	330	468	107	530	924	

주: † p<0.1, * p<0.05, ** p<0.01, *** p<0.001.

어머니 학력의 경우,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 자녀가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확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강은 전체추정(표 7-5)에서 강한 유의성을 보인 반면, 국가별 추정(표 7-6)에서 보이는 국가에서는 유의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의 경우, 어머니의 건강이 좋을수록 자녀가 느끼는 슬픔이나 절망감이 느끼는 확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한국생활 변인을 보면,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히 중국 출신 한족 결혼이민자 자녀가 슬픔 및 절망을 느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이외의 변수들은 유의한 영향이 보이지 않는다.

자녀 관련 요인을 보면,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남자 자녀의 정신 건강이 좋은 경향이 있으며, 자녀 본인의 한국어 능력이 좋지 않은 경우 정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어를 매우 잘하는 경우에 비하여 약 6.9배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차별 경험은 중국 출신 한족과 조선족 결혼이민자의 경우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 경험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외 연령, 학교 폭력 경험은 전체추정과 유사한 영향이 전 국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 중 남편 소득은 그다지 큰 유의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 추정에서 나타난 효과가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의 효과로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나라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어머니 인적자본 요인에서 건강 변수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다른 국가 출신(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의 결혼이민자와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앞 장까지의 분석에서도 이들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의 영향이 매

우 독특하게 나타난 것은 아마도 이들 국가를 상기 5개 국가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를 제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집의 소유형태는 전세의 영향이 일본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자가의 영향은 중국 조선족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집이 전세일 경우, 중국 출신 조선족 결혼이민자의 집이 자가일 경우, 자녀가 느끼는 슬픔이나 절망감이 월세에 사는 결혼이민자 자녀보다 작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8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와 그들 자녀가 2000년대 들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먼저 그들의 인구자질을 정의 및 비교하고, 정의된 인구자질 요인에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은 이민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국가에서의 인적자본의 축적결과를 인적자본으로 정의하였지만, 인적자본의 축적 결과는 주로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바, 그것이 관찰되지 않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인구자질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취업 중인 결혼이민자는 취업여부와 소득, 취업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생활만족도를 인구자질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들 자녀는 인적자본 축적의 과정으로 언어 능력과 정신 건강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과의 인구자질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자가 한국여성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들 자녀 또한 한국여성의 자녀들과 비교해 보면 인구자질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인구자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인구자질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취업 중인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 중 취업유무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인적자본요인인 학력은 취업상태와 음의 관계를 보였고, 한국어 능력과 건강상태는 취업상태와 양의 관계를 보였다. 한국 생활 관련 변인 중

에서는 차별경험, 국적취득여부, 체류기간이 취업상태와 양의 관계를 보였다. 출신국별 분석에서는, 필리핀과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인적자본 요인인 건강요인에서는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그리고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 관련변인 중에서는 차별을 경험한 것이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류기간의 장기화는 베트남, 필리핀,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중인 결혼이민자의 소득함수 추정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요인 중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 관련 변인 중에서는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체류기간이 길수록 결혼이민자의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한국어 능력은 중국 한족과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경우 소득이 낮았고,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건강상태는 중국 한족 출신의 결혼이민자 경우에만 건강상태와 소득이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한국생활 관련 변인 중에서는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소득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인 생활만족도 결과 분석에서는 중졸 이하의 학력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능력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국 생활 관련 변인에서는 한국생활의 어려움, 차별 경험, 한국 국적, 그리고 취업

의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고, 다문화 수용성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어 능력이 높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좋은 건강상태는 출신국과 상관없이 모든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인구자질 중 한국어 능력 추정에서는 어머니의 인적자본 요인인 한국어 능력과 건강상태가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 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은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자녀 자신의 요인으로는 남자인 경우, 중도 입국한 경우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출신국 별로 보면, 인적자본 요인 중 어머니의 출신국이 중국 한족인 경우에는 어머니 학력이 중졸이하일 때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낮았고, 어머니의 출신국이 필리핀과 일본인 경우는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높았다.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양의 영향을 미쳤는데, 어머니의 출신국이 필리핀을 제외한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베트남, 일본인 경우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한국어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한국생활과 관련된 변인 중에서는 대체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어 능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어머니의 출신국이 일본인 경우 어머니의 한국 체류 기간이 길수록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 본인과 관계된 요인 중에서는 어머니의 출신국이 베트남과 일본인 경우 유의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약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자녀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출

신국이 필리핀과 일본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 출신국 결혼이민자 자녀는 중도입국을 한 경우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가 중국 조선족 출신인 경우는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높았고, 어머니가 일본 출신인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자녀의 한국어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인구자질 중 어머니 모국어 능력에 대한 추정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어머니 국가 언어 능력이 높았다. 어머니가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어머니가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낮았고, 어머니가 한국생활에서 차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의 어머니 국가 언어 능력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본인이 남성인 경우 어머니 모국어 능력은 낮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중도입국을 한 경우,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어머니의 모국어를 권장할수록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서 보면, 어머니의 인적자본 요인은 일본 출신의 어머니를 둔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학력과 그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 사이에 양의 관계가 나타났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경우에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국가 출신의 어머니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에 대한 능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은 중국 한족 출신의 어머니의 경우에만 유의했는데, 즉 어머니가 중국 한족인 경우 어머니의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련 요인에서는 어머니의 출신국이 일본인 경우 자녀의 성별이 남자일 때,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낮을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의 연령은 필리핀과 일본 출신 어머니를 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높아졌다. 중도입국한 경우는 모든 출신국 자녀들이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높았으며,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도와 아버지의 어머니 모국어에 대한 권장은 베트남의 경우만 유의성이 약간 약하기는 하지만 모든 출신국에서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정신 건강 추정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경우,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에 자녀가 슬픔이나 절망감을 덜 느끼고 어머니의 한국생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슬픔이나 절망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인 경우와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클수록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경향이 낮은 반면, 연령과 한국어 능력은 높을수록 슬픔 및 절망감을 느끼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련 요인 중 특히 차별 경험과 폭력 경험은 자녀의 슬픔이나 절망을 느끼는 것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국 별로 나누어 본 결과에서는, 어머니의 출신국이 베트남과 필리핀인 경우 어머니 학력이 증졸이하인 경우에 자녀가 슬픔이나 절망을 덜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 출신 한족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자녀가 슬픔이나 절망을 느낄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 자녀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에 슬픔이나 절망을 느끼는 경향이 낮았고, 베트남을 제외한 모든 출신국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슬픔이나 절망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국 한족과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출신국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자녀가 느끼는 슬픔이나 절망감이 컸고, 특히,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컸다.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은 베트남과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 자녀가 느끼는 슬픔이나 절망감을 감소시켰다. 베트남, 필리핀,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는 차별 경험이 자녀가 느끼는 슬픔이나 절망감을 증가시켰다. 자녀의 폭력 경험은 모든 출신국에서 슬픔 및 절망감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제2절 정책적 제언

본 절에서는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국사회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에 있어서 향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한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은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취업 패턴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자는 보조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학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우는 미취학 자녀의 존재뿐만 아니라 학령기 자녀 양육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만을 위한 취업 지원 등의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한국 여성에게 지원되는 보편적인 정책을 결혼이민자들에게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의 취업 경향은 출신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필리핀 및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는 학력이라는 인적자본을 인정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컸고, 그 외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그러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그 외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단순 노무나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가진 인적자본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현재 결혼이민자라는 명명 아래 이루어지는 여러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출신국가별로 그 특징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출신의 결혼이민자라도 국가마다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의 출신자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이나 그 외의 특징들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의 상황과 배경에 알맞은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고 그 결과 다문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학력은 노동시장에서 중요도가 높은 요인으로 결혼이민자의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모국의 학력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정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정규 학위 취득을 도와주는 것이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을 높이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창원 다문화센터에서는 인적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 대학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사업의 1호 여성은 모국에서 고등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그 사업의 혜택을 받고 창원대학교를 졸업하여 현재 창원 다문화센터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며 다른 결혼이민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 중, 중국 출신 한족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지원 시스템이 초기 정착에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990년

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체류기간이 대체로 짧았던 기간이 지나고 이제는 한국사회의 이민 역사가 길어지고 있음에 따라 초기 적응기에 필요한 정책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민 초기 이후 생활에 알맞은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가 특정 국가에서 더욱 많이 온다거나, 그리고 그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에 특정 출신국의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학령기에 많이 분포하는 등과 같은 우리사회의 이민 주기에 따른 현상들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반면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 증진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아마도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것이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려 생활만족도가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여성 또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운영 중인 취업 관련 지원을 결혼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이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여 그들의 인구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본인의 취업 및 자녀의 언어 능력 등에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은 갖추 수 있도록 강조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에 더하여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이나 다양한 언어 능력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결과와 한국어 능력과 취업유무와의 관계, 그리고 한국어 능력과 소득사이의 관계에서는 출신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조선족이나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중국 출신 한족이나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아지고,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욕구와 상황, 그리고 출신국 등을 고려한 정책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취업이 필요한 필리핀 및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라면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춘 후 더욱 수준 높은 한국어 능력을 위해 힘쓰기 보다는 더욱 높은 학력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취업 중인 상태에서 소득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목표를 가진 일본출신 결혼이민자라면 한국어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등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일본 결혼이민자 자녀는 다른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와 약간 다른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체류기간이 길어짐에도 한국어 능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어 능력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것과 일상적 대화가 아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을 더욱 면밀히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도 입국한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도입국 자녀는 공교육 제도의 틀

안에 들어와 있을 경우에만 통계에 잡히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도입국 자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즉 중도입국 자녀 중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정책을 실행하는 것 이상으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은 그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원천이 된다. 그러나 한국에 살고 있는 그들은 어머니 모국어를 익힐 기회가 그다지 없을 것이다. 현재 결혼이민자 자녀의 이중언어를 권장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에서 어머니 모국어를 가르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에게 몽골어를 가르치는 등의 폐해도 드러나고 있다(국회다정다감 포럼자료²⁹⁾).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는 어머니 모국어를 가르치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집에서 어머니 모국어를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어머니 모국어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집안에서 어머니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면 자녀들의 이중언어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중언어에 관심이 있는 부모나 자녀들이 다문화 환경을 적극 활용해 제2외국어를 가정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부부에 대한 교육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정신 건강은 차별과 폭력 경험을 할수록 좋지 않

29)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14년 11월 7일, 주최: 국회 이자스민 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은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차별과 폭력 경험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등 심리·정서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에 대한 패널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 상황이 일반 가정의 청소년보다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을 소득수준 별로 비교하면 저소득층에서만 차이가 나고, 고소득층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요인이 아동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 자녀의 인구자질은 경제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의 인구자질도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은 거시적으로 볼 때, 그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그들의 인구자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결혼이민자 및 자녀 자신이 가진 특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인구자질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자신의 취업여부 및 소득, 그리고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특성과 인구자질 사이의 관계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여, 획일화 된 서비스나 정책보다는 출신국가별 특성들을 잘 파악해

특성화되고 맞추어진 서비스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녀들의 역량에도 어머니인 결혼이민자들의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혼이민자가 안정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자녀들의 인구자질을 위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일차지원과 함께 자녀들의 이중언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속한 가족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글로벌 시대에 학교와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발휘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한국사회는 점점 다양한 민족이 살아가는 터전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 나아가 다문화가족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 강혜정·이규용(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9(2), pp.49~73.
- 김대일(2008).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과 자녀 교육. 노동경제논집 31(2), pp.73~103.
- 김안나·권민균(2010).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기 자녀의 언어 능력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아동교육 19(1), pp.163~178.
- 김정근·이승욱·이주열·김무채(1996). 인구자질과 태생기·주산기·영아기 사망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19(2), pp.47~76.
- 김현숙(2005). 기혼여성 노동공급과 자녀보육 및 기회비용. 한국경제학회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혜련(2009). 결혼이주여성의 모자보건 및 모자영양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9 9월호, pp.50~64.
- 남윤주·이숙(2009).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과 일산적 스트레스가 자아개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학회지 47(9), pp.27~36.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0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서미진(2010). 결혼이민자의 취업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1~10.
- 성도경(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2(3), pp.749~772.
- 안명옥(2005).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대한가정의학회 제57차 추계학술대회.
- 안혜령·이순형(2009).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 비교. 아동학회지 30(1), pp.1~10.
- 안효자(2008). 일개 시 농어촌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4), pp.383~391.
-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육

아정책연구소.

- 양승주(1995).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행태분석. 한국인구학 18(1), pp.63-87.
- 양심영·박수경·김미숙(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특성 및 사회적 자본
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pp.270~282.
- 양인숙·김선혜(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
치는 영향. 경영경제연구 34(1), pp.237~266.
-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오대규(1997).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 보건복지포럼, 10, pp.6-13.
- 우희정(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학
회지 51(2), pp.195~206.
- 유은광·김혜진·김명희(2012).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대한간호학회지 42(2), pp.171~180.
- 은선경(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 pp.37~74.
- 이규용·박성재·강혜정(2011). 결혼이민자 가정과 노동시장 통합. 한국노동연구
원.
- 이삼식·김익기·최효진(2013).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박중서·김필숙·김형석(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
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호·성재민·신선옥·이지은·윤미례·이혜정·박진(2014). 제15차(2012)년도 한
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한국노동연구원.
- 이원령(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및 행동문제와 관련변인에 대한 문헌 고
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9(3), pp.409~431.
- 이은경·김화수(2011). 7, 8세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 능력 - 지역 간 차이
를 중심으로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3), pp.317~331.
- 이지영·이주연(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동의 부적
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아시아아동복지
연구 10(2), pp.83~101.

- 이태정·이용수·신현구·김명수(2013).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상태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인구학 36(3), pp.21~44.
- 장영식(1998).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가족보건정책. 보건복지포럼 1998, 3월 호 pp.18~28.
- 장은옥(2011).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27(2), pp.369~387.
- 전기택·정해숙·김이선·김영란·주재선·김혜영·손창균·이재분·정기선·황정미·강민정·선보영·최윤정·주유선·박건표·동제연(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정예리(2010). 다문화 가정 유아의 차별 경험을 통한 인간이해 가치교육적 함의. 윤리교육연구 21, pp.249~268.
- 정예리·이숙희(2010). 거주 지역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및 사회적 힘의 비교- 도시와 농촌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영유아보육학, 63, pp.79~108.
- 정현주(2008). 가족의사소통과 가족스트레스가 자폐성 장애아동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7(3), pp.47-74.
- 조남훈(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옥이·박석준(2011).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한국어문화 교육의 방안과 내용 - 교육 사례 예시를 통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pp.217~238.
- 주재선·김영택·송치선·손창균·임찬수(2012).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현욱·황보명(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한국어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10(4), pp.315~329.
- 통계청(2014). 가계동향조사.
- 홍문식(1998). 출산력 억제정책의 영향과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인구학 21(2), pp.182~227.

- 황나미(2001).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의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62, pp.53~62.
- 황나미·조재국·김혜련·박현태·김기옥·김기수·이상원·윤강재(2007). 저출산 대응과 차세대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 서비스 혁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 황상심(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大石亜希子(2003). 母親の就業に及ぼす保育費用の影響. 季刊社会保障研究. 第39巻, 1号, pp.55~69. (오오이시 아키코 (2003) 「어머니 취업에 미치는 보육비용의 영향」 『계간·사회보장연구』 제 39권, 1호)
- Akbari, A. H. (1999). Immigrant “Quality” in Canada: More Direct Evidence of Human Capital Content, 1956~1994.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3(1), pp.156~175.
- Aliaga, A. O. (2001). Human Capital, HRD and the Knowledge Organization. In O. A. Aliaga (ed.),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01: Conference Proceedings* (pp.427~434). Baton Rouge, LA: AHRD.
- Amit, K. (2010).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s from Western Countries and from the FSU in Isra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 pp.515~534.
- Arriagada, P. A. (2005). Family Context and Spanish-Language Use: A Study of Latino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Quarterly* 86(3), pp.599~619.
- Bannister, R. C. (1979). *Social Darwinism: Science and Myth in Anglo-American Social Though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Becker, G. S. (1964).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pp.9~49.

- _____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itio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htoui, A. (2004). Unequal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with Immigrant Backgrounds in the Swedish Labour Market. *Labour* 18(4), pp.633~660.
- Beland, F., Birch, S., and Stoddart, G. (2002). Unemployment and Health: Contextual-level Influence on the Production of Health in Populations, *Social Science & Medicine* 55, pp.2033~2052.
- Bellettini, G. and Ceroni, C. B. (2007). Immigration Policy, Self-selection, and the Quality of Immigrants.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5(5), pp.869~877.
- Bleakley, H. and Chin, A. (2004). Language Skills and Earnings: Evidence from Childhood Immigran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2), pp.481~496.
- Bohnke, P. (2008). Does Society Matter? Life Satisfaction in the Enlarged Europe. *Social Indicator Research* 87, pp.189~210.
- Borjas, G. J. (1963). *The Economic Value of Educ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1981). *Investing in People: The Economics of Population Quality*,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85). Assimilation, Changes in Cohort Quality,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 pp.463~489.
- _____ (1991). *Immigration Policy, National Origin, and Immigrant Skills: A Comparison of Canada and the United*

- States*. NBER Working Papers Series No. 3691.
- Boyd, M. (1992). *Immigration, Language, and Ethnicity: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n Chiswick, B. R. (Ed.), *Gender Issues in Immigration and Language Fluency*.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Bratti, M. and Staffolani S. (2012). *Non-Standard Employment and Quality of Work: The Case of Italy*, T. Addabbo and G. Solinas (Ed., *A Microeconomic Analysis of Femal Labour Force Pariticipation in Italy*. Verlag Berlin Heidelberg: Springer.
- Chirikos, T. N. and Nestel, G. (1985). Further Evidence on the Economic Effects of Poor Health.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1), pp.61~69.
- Chiswick, B. R., and Hurst, M. (2000). The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employment Compensation Benefits of Immigrants. *Research in Employment Policy* 2, pp.87~115.
- Chiswick, B. R., and Miller, P. W. (2007). The International Transferability of Immigrants' Human Capital Skills. (IZA Discussion Paper No. 2670). Bonn, Germany: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Retrieved from <http://ftp.iza.org/dp2670.pdf>
- Cohen, J. E. (1995). Population Growth and Earth's Human Carrying Capacity. *Science* 269(5222), pp.341~346.
- Cohen, P. N., and Bianchi, S. M. (1999). Marriage, Children, and Women's Employment: What Do We Know?. *Monthly Labor Review* 122, pp.22~31.
- Davis-Kean, P. E. (2005).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The Indirect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pp.294~304.

- Dean, J. A. and Wilson, K. (2009). 'Education? It is Irrelevant to My Job Now. It Makes Me Very Depressed.': Exploring the Health Impacts of Under/Unemployment among Highly Skilled Recent Immigrants in Canada. *Ethnicity & Health* 14(2), pp.185~204.
- Diener, E. R.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pp.542~575.
- Diener, E. R., Sandvik, E., Seidlitz, L., and Diener, M.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 Research* 28(3), pp. 195~223.
- Duleep, H. O. and Regets, M. C. (2002). *The Elusive Concept of Immigrant Quality: Evidenced from 1970~1990*, IZA Discussion Paper No. 631.
- Duvander, A. Z. E. (2001). Do Country-specific Skills lead to Improved Labor Market Positions?, *Work and Occupations* 28, pp.210~233.
- Espenshade T. J. and Fu, H. (1997). An Analysis of English-Language Proficiency among U.S. Immigra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2), pp.288~305.
- Espinosa K. E. and Massey, D. S. (1997). Determinants of English Proficiency among Mexican 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1), pp.28~50.
- Finnie, R., and Meng, R. (2002). Minorities, Cognitive Skills and Incomes of Canadians, *Canadian Public Policy* 23(2), pp.257~272.
- Fisher, R. (1925). Theory of Statistical Estimation, *Mathematical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 22, pp. 700~725.
- Fitz-enz, J. (2000). *The ROI human capital: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employee performance*. New York: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 Galton, F. (1883).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London: Macmillan.

- Glad, J. (2001). The Current Attitude Toward Eugenics in France. *Mankind Quarterly* 42, pp.77~89.
- Gokdemir, O. and Dumludag, D. (2012). Life Satisfaction Among Turkish and Moroccan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The Role of Absolute and Relative Income, *Social Indicator Research* 106, pp.407~417.
- Gould, W.T.S. (2009). *Population and Development*. Routledge Perspectives on Development.
- Gronau, R. (1974). Wage Comparisons - A Selectivity Bia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 pp.1119~1143.
- Grundy, E., and Sloggett, A. (2003). Health Inequalities in the Older Population: The Role of Personal Capital, Social Resources and Socio-economic Circumstances. *Social Science & Medicine* 56, pp.935~947.
- Hatton, T. J. (2000). How Much Did Immigrant "Quality" Decline in Late Nineteenth Century America?.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3, pp.509~525.
- Kanas, A., and van Tubergen, F. (2009). The Impact of Origin and Host Country Schooling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Immigrants, *Social Forces* 88(2), pp.893~916.
- Kao, G. and Thompson, J. S. (2003). Racial and Ethnic Stratification in Educational Achievement and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 pp.417~442.
- Kim, H. M., Seo, J. W., Choi, S. H. (2011).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1), pp. 117~149.

- Kossoudji, S. A. (1988). English Language Ability and the Labor Opportunities of Hispanic and East Asian Immigrant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6(2), pp.205~228.
- Krueger, A. O. (1968). Factor Endowments and per Capita Income Differences Among Countries. *The Economic Journal* 78, pp.641~659.
- Kuder, S. J. (2008). *Teaching Students with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abilities* (3rd ed.). Allen and Bacon: Boston.
- LaLonde, R. J. and Topel, R. H. (1991). Immigrants in the American Labor Market: Quality, Assimilation, and Distributional Eff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81(2), pp.297~302.
- Lee, H. (2013). 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Female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Asian Pacific Migration Journal* 22(2), pp.199~230.
- Lee, L. (1982). Health and Wage: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with Multiple Discrete Indicator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3(1), pp.199~221.
- Leinonen, J. A., Solantaus, T. S. and Punamaki, R. (2003). Parental Mental Health and Children's Adjustment: The Quality of Marital Interaction and Parenting as Mediating Facto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2), pp.227~241.
- Leslie, D. and Lindley, J. (2001). The Impact of Language Ability on Employment and Earnings of Britain's Ethnic Communities. *Economica* 68, pp.587~606.
- Li, Q. and Sweetman A. (2014). The Quality of Immigrant Source Country Educational Outcomes: Do They Matter in the Receiving Country?. *Labour Economics* 26, pp.81~93.
- Lutz, W., and KC, S. (2011). Global Human Capital: *Intergrating Education and Population. Science* 333(6042), pp.587~592.

- Lynn, R. (2001). *Eugenics: A Reassessment*. Westport, CT: Praeger.
- Matto, A., Neagu, I. C., and Ozden, C. (2008). Brain Waste? Educated Immigrants in the US Labor Marke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7(2), pp.255-269.
- Mejia, A., Pizurki, H., and Royston, E. (1979). *Physician and Nurse Migration: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 Min, H. (2013). Ordered Logit Regression Modeling of the Self-Rated Health in Hawai'i With Comparisons to the OLS Model. *Journal of Modern Applied Statistical Methods* 12(2), pp.371~380.
- Mincer, J. (1962). *Aspects of Labor Economics*, In H. G. Lewis (Ed.),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ur Supply(pp. 63~106),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sk, C. (1996). *Making Health Work: Human Growth in Modern Japan*.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awata, K. and Ii, M. (2004). Estimation of the Labor Participation and Wage Equation Model of Japanese Married Women by the Simultaneous Maximum Likelihood Method. *Journal of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18, pp.301~315.
- Nesterko, Y., Braehler, E., Grande, G. and Glaesmer, H. (2013). Life Satisfact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Immigrants and Native-born German: The Role of Immigration-related Factors. *Quality of Life Research* 22(5), pp.1005~1013.
- Nikolas, R. (2010). *Biological citizenship and its forms*. In Zhang E., Kleinman, A.,
-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OECD. Retrieved from www.oecd.org/dataoecd/36/40/33703702.pdf

- Portes, A. and MacLeod D. (1999). Educating the Second Generation: Determinants of Academic Achievement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5(3), pp.373~396.
- Portes, P. R. (1999).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of Immigrants: A Cultural History Puzzl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36(3), pp. 489~507.
- Read, J. G., and Cohen, P. N. (2007). One Size Fits All? Explaining U.S.-born and Immigrant Women's Employment Across 12 Ethnic Groups. *Social Forces* 85(4), pp.1713~1734.
- Ribar, D. C. (1992). Child Care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Reduced Form Eviden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1), pp.134~165.
- _____ (1995). A Structural Model of Child Care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3(3), pp.558~597.
- Riley, A. W., Coiro, M. J., Broitman, M., Colantuoni, E., Hurley, K. M., Bandeen-Roche, K. and Miranda, J. (2009). Mental Health of Children of Low-Income Depressed Mothers: Influences of Parenting, Family Environment, and Raters. *Psychiatric Services* 60(3), pp.329~336.
- Schultz, T. W. (1961).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In N. B. Henry (Ed.), *Social forces influencing American Education* (pp.46~88),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ah, G.B. (1985). *Population Quality Through Population Education*.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in Community Education and Population Education. South Gujarat University.

- Shields, M. A., and Wheatley-Price, S. (2002). The English Language Fluency and Occupational Success of Ethnic Minority Immigrant Men Living in English Metropolitan Area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1), pp.137~160.
- Stepan, N. L. (1991). *The Hour of Eugenics: Race, Gender, and Nation in Latin Americ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tone, S. and Han, M. (2005). Perceived School Environments,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chool Performance among Children of Mexican Immigra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27, pp.51~66.
- Sung, M. S., Chin, M., Lee, J. and Lee, S. (2013). Ethnic Variations in Factors Contributing to the Life Satisfaction of Migrant Wives in South Korea. *Family Relations* 62, pp.226~240.
- Tainer, E. (1988).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Determination of Earning among Foreign-Born M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23(1), pp.108~122.
- Teo, P. (1995). Population Planning and Change in Singapore. *Population and Environment* 16(3), pp.237~251.
- UN(2013) *World Population Policies 2013*.
- Winship, C. and Mare, R. D. (1984). Regression Models with Ordinal Variab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pp.512~525.
- Woodward, J. L. (1939). The Field of Population Quality. *Social Forces* 17(4), pp.468~477.
- Yang, Philip Q. (1999). Quality of Post-1965 Asian Immigrants. *Population and Environment* 20(6), pp.527~544.
- Zeng, Z., and Xie, Y. (2004). Asian-Americans' Earnings Disadvantage Reexamined: The Role of Place of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5), pp.1075~1108.